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22년 기획연구 보고서

Part 1.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기부 트렌드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 유럽, 아시아, 미국을 중심으로
김성주

Part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국인 기부 연구 : 영국 Z세대의 자선·구호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중심으로
조의행

Part 3. NPO의 불록체인 활용 및 실행방안 : 가상자산 기부를 중심으로
강형구, 신은정, 장윤주

Part 4. 한국 사회 유산기부 논의 지형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노법래

Part 5. 국제 해외 기부 경향 분석 : 해외 기부의 다양성 및 포괄성
정복교, 김성주, 윤정아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22년 기획연구 보고서

Part 1.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기부 트렌드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 유럽, 아시아, 미국을 중심으로
김성주

Part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국인 기부 연구 : 영국 Z세대의 자선·구호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중심으로
조의행

Part 3. NPO의 블록체인 활용 및 실행방안 : 가상자산 기부를 중심으로
강형구, 신은정, 장윤주

Part 4. 한국 사회 유산기부 논의 지형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노법래

Part 5. 국제 해외 기부 경향 분석 : 해외 기부의 다양성 및 포괄성
정복교, 김성주, 윤정아

발 간 사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2008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기획연구는 2022년에도 이루어졌고, 그 결과물이 이처럼 나오게 되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김성주 교수님의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기부 트렌드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 유럽, 아시아, 미국을 중심으로”, 서울신학대 조의행 교수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국인 기부 연구: 영국 Z세대의 자선·구호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중심으로”, 한양대 강형구 교수님, 백석대 신은정 교수님, 이화여대 장윤주 님의 “NPO의 블록체인 활용 및 실행방안-가상자산 기부를 중심으로”, 세명대 노법래 교수님의 “한국 사회 유산기부 논의 지형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김성주 교수님, 정복교 케인대 교수님, 윤정아 교수님의 “국제 해외 기부 경향 분석: 해외 기부의 다양성 및 포괄성” 등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기부 관련한 것도 있고, 가상자산, 유산기부에 대한 현장의 변화나 수요를 검토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쌓여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도 기부 관련한 선진국이 될 수 있으리라 희망해 봅니다.

기획연구는 그 연구주제를 선정할 때부터 종전과는 다르면서 의미 있는 주제를 발굴하기 위해 기부문화연구소의 여러 연구위원들께서 수고해 주셨고, 착수 및 중간보고, 그리고 관련 발표를 통해 좀 더 의미 있는 연구 결과물이 나오기 위한 절차를 밟은 바 있습니다. 위 연구를 수행해 주신 모든 연구자 분들, 그리고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이영주 팀장님, 장윤주 님, 신성규 님, 정민정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22년 12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장

박 훈

Part. 1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기부 트렌드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 유럽, 아시아, 미국을 중심으로

I. 서론	014
II.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기부 트렌드에 관한 선행 연구	016
III. 연구방법	019
IV. 연구결과	020
1. 각 나라별 조사 결과 요약	
1) 오스트리아(Austria)	
2) 아이슬란드(Iceland)	
3) 핀란드	
4) 스웨덴	
5) 독일	
6) 호주	
7) 이스라엘	
8) 한국	
9) 미국	
2. 코로나19 이후 기부 및 봉사 활동 변화에 관한 국제 비교	
V. 결론	053
VI. 참고문헌	056



Part.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국인 기부 연구: 영국 Z세대의 자선·구호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062
2. 팬데믹 시대의 Z세대와 신뢰: 분석의 틀	065
1) 세대 구분과 특성	
2) 신뢰의 조건	
3. 영국 자선 단체의 신뢰도 문제와 젊은 세대와의 관계	070
4. 포스트 Covid-19 시기 영국 Z세대의 자선·구호 기관 신뢰도	074
5. 나가며	079
참고문헌	081

Part. 3

NPO의 블록체인 활용 및 실행방안 : 가상자산 기부를 중심으로

서론	090
I. 연구 방법론	092
1. 사례 연구	
II. 사례 연구	094
1. 블록체인 크라우드 기부 플랫폼	
2. 가상자산을 활용한 기부	
3. 기부 참여 증명 및 리워드	
4. 기부를 위한 메타버스 활용	
5. 소결	
III. 가상자산을 모금에 활용하기 위한 실행 요건	125
1. 가상화폐의 기부	
2. 가상자산의 기부: NFT의 직접 기부	
3. NFT를 기부 증명 및 리워드로 활용	
4. 소결	
참고문헌	148



Part. 4

한국 사회 유산기부 논의 지형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1. 서론	166
2. 유산기부의 사회적 맥락	167
1) 사회 전반의 성숙을 드러내는 지표	
2) 기부 문화의 성숙	
3) 한국 사회에서의 특수성에 따른 의미	
3. 분석 방법	170
1) 분석 자료	
2) 텍스트 처리	
4. 분석 결과	172
1) 토픽 구조	
2) 토픽 구성의 시계열 변화	
5. 결론	186
참고문헌	188

Part. 5**국제 해외 기부 경향 분석: 해외 기부의 다양성 및 포괄성**

I. 들어가며	194
II. 연구 방법	197
III. 연구 결과	199
1. 국가별 해외 기부 트렌드: 2020 GPT 연구 결과 요약	
2. 국가 간 해외 기부 트렌드: Financial Tracking Service(FTS)	
3. 해외 기부 다양성 지수 산출 및 분석	
IV. 결론	219
V.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적 제언	221
참고문헌	223

2022년
기획연구

Part. 1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기부 트렌드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 유럽, 아시아, 미국을 중심으로



책임연구자 **김성주**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책임 연구원

김 성 주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Assistant Professor

학력

School of Social Work, Indiana University, Ph.D.

Mandel School of Applied Social Science,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MSSA.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주요경력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Assistant Professor

Monmouth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Assistant Professor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Research Fellow

Korean Nonprofit and Philanthropy Researchers Network (KNPRN), Founder and Executive Director,

연구실적

Kim, S. J., & Jeong, B. (2021). University-based nonprofit and nongovernment education in South Kore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Nonprofit Education and Leadership*, 12 (3), 17-33.

Cai, Q., Okada, A., Jeong, B., & Kim, S. J. (2021). Civil Society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A Comparative Study of China, Japan, and South Korea. *China Review*, 21(1), 107-137.

Lee, L. & Kim, S. J., (2020). The effect of government grants on private giving to East Asian nonprofits: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managers. *Advances in Social Work*, 20(1), 95-113.

Kim, S. J., & Jung, J. K. (2019). Korean nonprofit/non-government sector research: A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Voluntaristics Review: Brill Research Perspectives*, 4(6), 1-71.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일반 시민들의 기부 행동의 변화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로서 총 9개 나라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 및 자원봉사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인용된 설문 조사는 2020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설문 조사에 포함된 나라는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 독일, 호주, 이스라엘, 한국, 그리고 미국이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 기존의 기부자들 중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행동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관한 설문에서 한국 응답자의 80%가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조사에 포함된 9개 나라 중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독일(77%), 미국(62.6%), 호주(61%)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에서의 기부행동의 변화 중 특별한 점은 모르는 사람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모르는 사람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해당 비율이 다른 비교 대상 국가보다 높게 나타났다(22.2%).

코로나19 시기에 한국에서의 높은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는 경제 불황, 자연 재해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평소에 비해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국 사람들의 기부 성향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계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비교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으나, 본 연구의 결과가 한국이 코로나19 대응 정책에서도 상대적 우수성을 보인 것뿐만 아니라 자선적 활동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모범을 보인 것으로 해석하는 데 인용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코로나19, 기부 참여 변화, 자원봉사 참여 변화, 기부활동 분야, 국제비교

I. 서론

모든 종류의 국가적 재난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등 일상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의 위기를 초래한다(CDP, 2021). 특히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 규범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고, 국제 유통망 등 경제 네트워크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등 모든 공적 사적 영역에 있어서 전례 없는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팔베르크(Paarlberg)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 대유행은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대규모의 치명적인 재난과 비슷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지난 반세기 동안 발생한 어떤 자연재해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하고 있다(Paarlberg et al., 2021).

코로나19와 같은 강력한 전염병의 유행, 전쟁, 자연재해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을 직면했을 때 인간은 두 가지 상반되는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이익과 편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 행동(selfishness)이 증가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선적 행위(generosity)이 증가한다. 이기심의 발현은 우리의 생존 본능에 내재되어 있는데, 인간은 불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자기 보존 행동을 촉진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유행은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체 내·외부의 구성원에 대한 관대함을 감소시킨다. 실제로 코로나19 유행 초기 35개국을 대표하는 조사 자료에 따르면 각국 정부의 강력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에 빠뜨린 사례를 쉽사리 찾아 볼 수 있다(Fridman et al., 2022).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 19 발생 초기 일부 생필품에 대한 패닉 소비(panic buying)를 들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몇 달 동안 생필품의 수급이 불확실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과 일부 품목에서의 재고량 부족으로 인하여 화장지 또는 마스크 사재기 등 이기주의적 행동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였다.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의 발현뿐만 아니라 국가적 이기주의가 발현된 예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강력한 제한 정책으로 인해 각 개인의 일상생활 유지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였고, 실업률 상승, 농수산물 등 먹거리의 공급 불안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야기된 심각한 문제들로 인해 세계 각 국가들은 본인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실행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의 확보에 국가 이기주의가 강력히 작용하였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나

라들에게 백신을 공동 구매/배분하기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 의하면 백신이 개발된 2021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고소득 국가들이 한 해 출시될 코로나19 백신 생산량의 70%를 독점함으로써, 경제적인 우위에 있지 못한 나라들이 백신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하였다(고재원, 2021).

반면 코로나와 같이 공동의 위협에 직면한 경우 시민들은 사회적 결속과 공동의 합리적인 이익을 위한 행동을 강화한다는 주장도 있다. Zaki(2020)는 “위기 상황에서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이해”라는 연구를 통해 재난은 공동체 의식과 이타주의를 증진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2004년 인도양 쓰나미, 2010년 아이티(Haiti) 지진, 2011년 일본 대지진 등 국제적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당시 주변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였고, 국제 원조 기관들의 적극적인 구호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개인들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특별 기부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로 이타적 행동에 관한 연구는 전 세계의 다양한 연구 기관에서 실행되었는데, 지난 2021년 기준으로 발표된 연구들에 의하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선적 기부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국 가이드스타(Guidestar)의 새로운 데이터 자산인 캔디드(Candid)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2021년 미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기부는 약 10억 달러(\$1 billion)로 추정되며(Gulliver-Gracia et al., 2022), 미국 내 약 490개의 자선 재단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2021년 한 해 동안 설문에 응답한 재단에서 제공하는 배분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약 11% 증가하였다. Gulliver-Gracia et al.(2022)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내 자선 재단의 2020년 코로나19를 위한 지원금은 약 21억 달러로 추정되고, 2021년에는 총 323개 재단에서 약 15억 달러를 코로나19와 관련된 단체 및 프로그램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Gulliver-Gracia et al., 2022).

미국 최대 자선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자선 내비게이터(Charity Navigator)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해 기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12월 한 달 간 발생한 기부 총액을 조사한 결과, 2020년 전체 기부 중 약 64%에 해당하는 기부 금액이 12월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2018년 58%, 2019년 56%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Gulliver-Gracia et al., 2022). 더 나아가 코로나19의 위협 수위에 따른 기부의 변화를 측정한 연구에서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했던 2020년 후반까지 자선적 기부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Fridman et al.(2022)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한 모든 나라들에서 코로나19의 위험이 낮은 시기에서도 자선적 기부는 코로나19의 위험이 없었을 때보다 31.6%나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의 위험이 최고조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자선적 기부가 32.9%나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위험에 따른 개인 기부에 관한 분석에서도 코로나19 위험의 정도에 상관없이 개인 기부가 1.3~3.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Fridman et al., 2022).

이와 같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선적 기부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코로나19와 자선적 기부에 관한 연구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몇몇 선진 국가들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국가의 기부 트렌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기부 트렌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기부 행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나라의 기부 트렌드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유럽 연합의 일부 국가(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스웨덴), 중동지역 국가(이스라엘), 오세아니아 국가(호주), 북미 국가(미국), 그리고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의 기부 트렌드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II.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기부 트렌드에 관한 선행 연구

본 섹션에서는 앞서 제시한 미국의 코로나19와 기부 행위에 대한 개략적인 연구 결과 이외에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 행위에 대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탐색함으로써 전 세계 다양한 나라의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기부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영국의 기부 행동 조사 중 가장 규모가 큰 Charity Aid Foundation(CAF)에서는 2020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영국의 코로나19 관련 기부 행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2020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9,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기부 행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다음은 CAF의 2020년 10월 연구에 보고된 내용들이다(CAF, October 2020). CAF에 의하면 대부분의 기부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경험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부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월부터 6월 사이 총 기부 금액이 전년도 동일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15% (£800 million)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환자 및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기존의 펀드레이징 이벤트를 통한 기부는 급격히 줄었는데, 예를 들어 런던 마라톤 등을 통한 기금 모금 캠페인은 캠페인 자체가 취소 또는 축소됨에 따라서 기부 금액이 감소하였다.

코로나19 시기 캐나다의 기부 행동은 Sheridan College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 대학의 연구소에서는 2021년 4월 약 3,000명의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기부에 대한 인식 및 기부 행동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Barr, 2021).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약 51%의 응답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기부 활동의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15.8%는 오히려 기부를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존의 기부 활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한 응답자는 전체의 약 28%뿐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68% 이상의 캐나다인은 앞으로도 기부 행위에 변화를 줄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기부 행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미래에 기부를 줄일 확률이 늘릴 확률보다 두 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기부 행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 기부를 줄일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와 기부 행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연구 기관들에서 시행되었는데, 앞서 언급한 캔디드 데이터와 자선 내비게이터의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미국인들 또한 기부 행위를 축소하거나 중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늘린 것으로 조사되었다(Gulliver-Gracia et al., 2022). 본 섹션에서는 미국의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기부 행위에 관한 연구 중 인디애나대학의 필란트로피 스쿨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필란트로피 스쿨에서는 2020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약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기부 행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초와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있었던 2020년 후반 두 번의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기부 행위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21).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미국인들은 팬데믹 속에서도 기존의 기부 활동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높았으나, 몇몇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기부 의사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의 조사 결과, 2020년 5월과 9월 사이 약 4~6% 정도의 기부 참여율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단체와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단

체들에 대한 기부가 집중적으로 증가하였다. 2021년 기빙 USA(2021 Giving USA)에 의하면 2020년 총 개인 기부 중에 사회복지 단체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기부 금액은 전체 기부의 13% 정도였는데, 2020년에는 14%로 증가하였다. 자선 내비게이터(Charity Navigator)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찾을 수 있는데, 2018~2019년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전체의 23%~24%였는데 반해 2020년에는 3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21).

또한 인디애나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 발병 이후 국내 및 국외 자선 단체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기부(현물/현금 기부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기부)가 매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매우 강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기부를 한 기부자들은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이슈에 기부한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더 적극적이었으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에서는 2020년 12월 한 달에 이루어지는 연말 기부 총액이 전년도에 비해 급상승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한 해 전체 기부 중 12월 한 달에 이루어진 기부가 2018년에는 전체의 58%, 2019년에는 56%였던 것이, 2020년에는 전체 기부 중 64%가 12월 한 달 간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해 본격적인 겨울을 맞이하는 12월달에 일반적으로 기부가 증가하지만,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첫 해 겨울인 2020년 겨울에는 특히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과 기부 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이슈에 관하여 기부에 참여한 기부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연 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코로나19 관련 이슈에 관한 기부에 더욱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젊은 기부자일수록 사회 서비스 관련 단체 이외의 단체에 기부하는 경향이 나이가 많은 기부자들보다 더 강하였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코로나19 관련 이슈에 대한 기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온라인 기부, 크라우드 펀딩,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기부 등 새로운 기부 플랫폼을 이용한 기부가 매우 활성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21).

이 밖에 코로나19와 기부 행동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나라에서 시도되었는데, 코로나19 기간 동

안 인도의 기부 행위에 대한 연구(Venkatachalam et al., 2020), 나이지리아의 기부 행위에 대한 연구(Adelabu, 2021), 이슬람 국가의 기부 행위에 대한 연구(Abidin, 2021) 등이 있다.

III. 연구 방법

지난 2020년 1월 미국 인디애나대학 필란트로피 스쿨의 국제 필란트로피 파트 책임자인 파멜라 위프킹(Pamala Wiepking) 교수는 코로나19가 기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를 위하여 국제 자선 행동에 관한 연구팀(Global Generosity Research Team)을 결성하였다. 이 연구 팀에는 전 세계 20개국 50여 명의 필란트로피 관련 연구자들이 참여하였다. 이 연구팀에서는 조사 주제 및 영역 설정, 설문지 개발, 조사 가능 국가 선정과 같은 연구 방법에 관한 논의를 거쳐 2020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총 15개 나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 행동에 관한 공통 질문과 각 나라별 고유 질문을 포함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공통 질문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 행동의 변화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최종 11개 국가에서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설문에 참여하여, 11개 국가의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 행동의 변화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최종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러시아, 호주, 이스라엘, 한국, 그리고 미국의 연구팀이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르웨이와 러시아를 제외한 총 9개 나라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기부 현황을 정리하였고, 각 나라의 기부 활동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나라의 연구자들과 인터뷰를 통하여 보고서에 포함하지 못한 구체적인 기부 행위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시도하였다. 총 5개 나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화상 인터뷰를 실시하였고(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호주, 미국), 나머지 국가의 연구자와는 이메일을 통하여 추가 정보를 취득하였다. 인터뷰는 2022년 3월 ~6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IV.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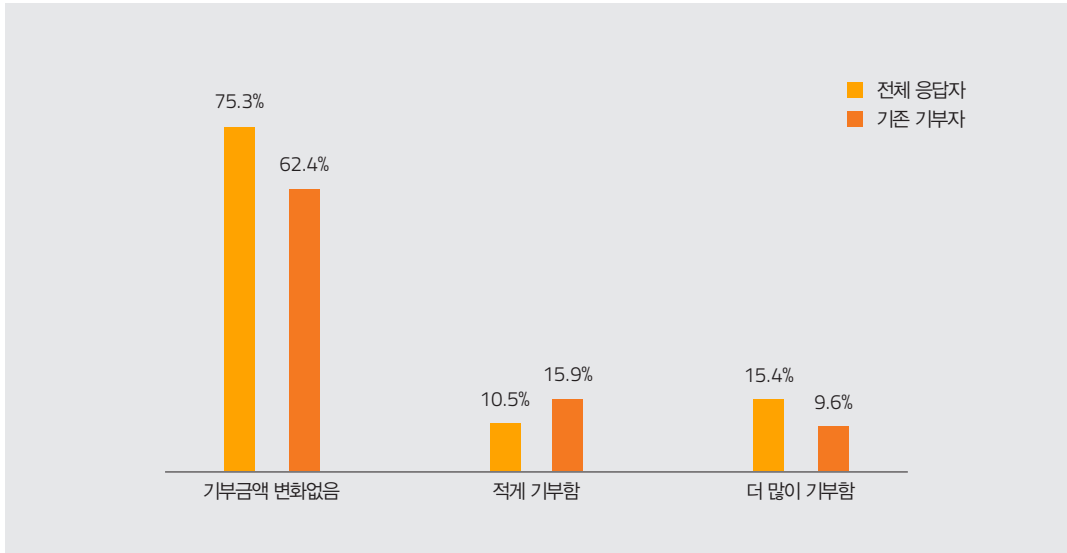
1. 각 나라별 조사 결과 요약



1) 오스트리아(Austr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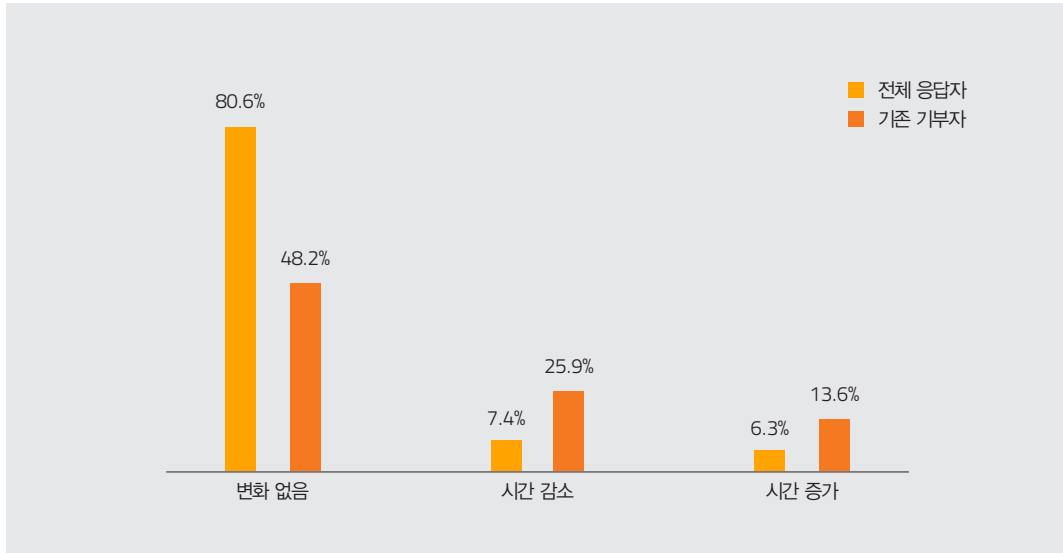
오스트리아의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의 변화와 자선적인 행동의 참여 여부에 관한 조사는 2020년 6월~9월 사이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전문 조사 기관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최종 응답자 수는 총 1,000명이었으며, 응답자의 49%는 남성, 51%는 여성이었다. 약 60%의 응답자는 파트너와 같은 집에 거주, 14%는 파트너가 있으나 따로 거주하고 있고, 약 26%는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코로나 19 발생 이후 오스트리아인들의 기부 참여 경험과 기존 기부금 지급의 변화 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연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3%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금 제공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오히려 전체 응답자 중 15.4%는 기존에 제공하던 기부금보다 더 많은 기부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응답자의 10.5%만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기부금을 축소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2019년도에 기부에 참여했던 응답자 중 62.4%는 기부금 지급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9.6%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금 지급이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15.9%만이 기부금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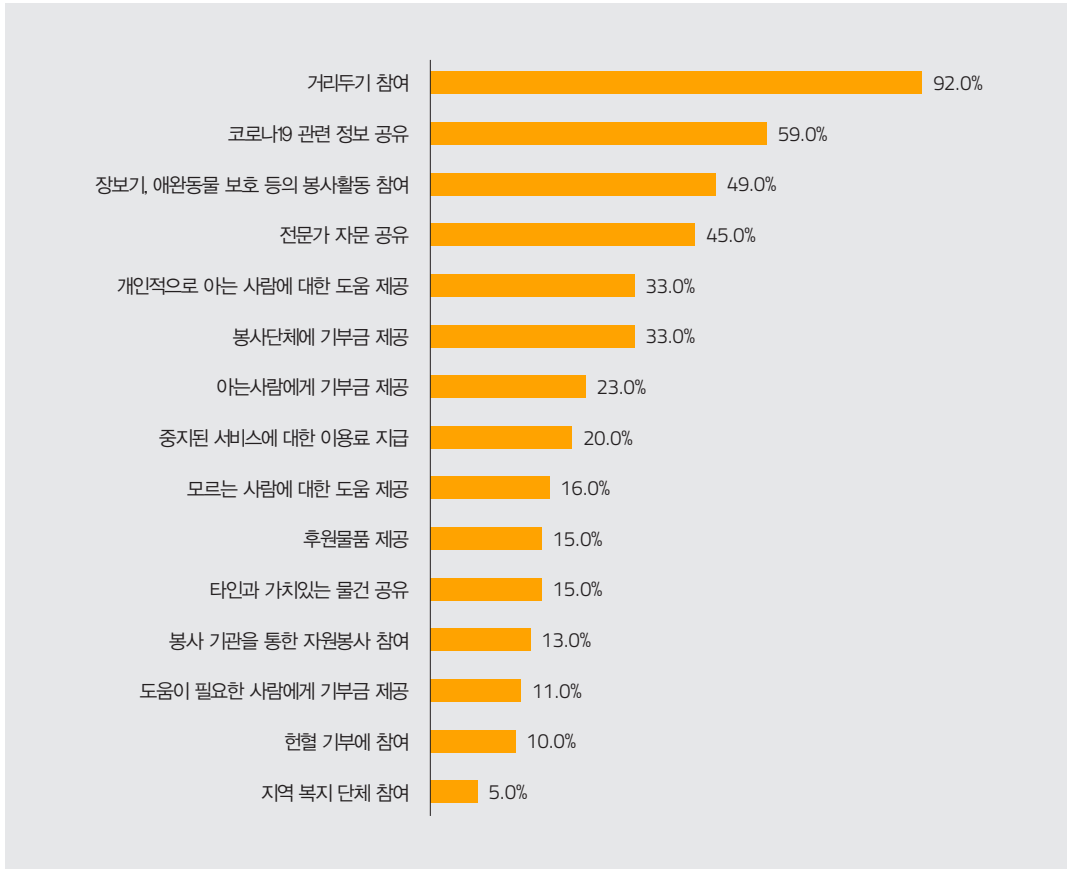
[그림 1] 코로나19로 인한 기부금 지급 변화 - 오스트리아

[그림 2]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원봉사 참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응답자의 80.6%는 코로나19 발병 이후에도 자원봉사 참여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오히려 전체 응답자의 6.3%는 자원봉사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자원봉사 시간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7.4%밖에 없었다. 2019년에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던 응답자 중 48.2%는 봉사 활동의 변화가 없었고, 13.6%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원봉사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기존에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사람 중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원봉사 활동을 줄인 사람은 25.9%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코로나19로 인한 자원봉사 참여 변화 - 오스트리아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자선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약 92%의 오스트리아 응답자들은 자발적 거리두기에 참여하였으며, 약 59%는 신뢰성 있는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원봉사 활동은 평소와는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코로나19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비영리 단체를 통하여 봉사할 기관과 대상을 찾아 봉사에 참여하였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개인적 또는 사회관계망을 이용하여 봉사 대상을 찾아 자원봉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실시한 경우는 전체의 13%밖에 되지 않지만,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장보기, 애완동물 돌보기 등 개인적으로 봉사 대상자를 찾아 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는 49%나 되었다. 또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도움을 주거나(33%) 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23%), 모르는 사람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거나(16%), 모르는 사람과 가치 있거나 필요한 물품(예, 마스크, 손세정제 등)을 공유하는(15%) 등의 개별적/직접적 방법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우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해야 할 자선적 활동의 일부는 기존에 유료로 이용해 오던 서비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계속 지불한 경우가 전체의 20%나 되었다.



[그림 3] 코로나19 관련 자선 활동의 참여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가족, 친구,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기부 및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오스트리아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는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기존의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 방법이 비영리 단체를 통한 자원봉사였다면 코로나19 시기에는 개인적인 경로를 통한 자원봉사가 더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개인적인 또는 사회관계망을 통한 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오직 30%밖에 되지 않았던 것에 비교해 보면 상당한 변화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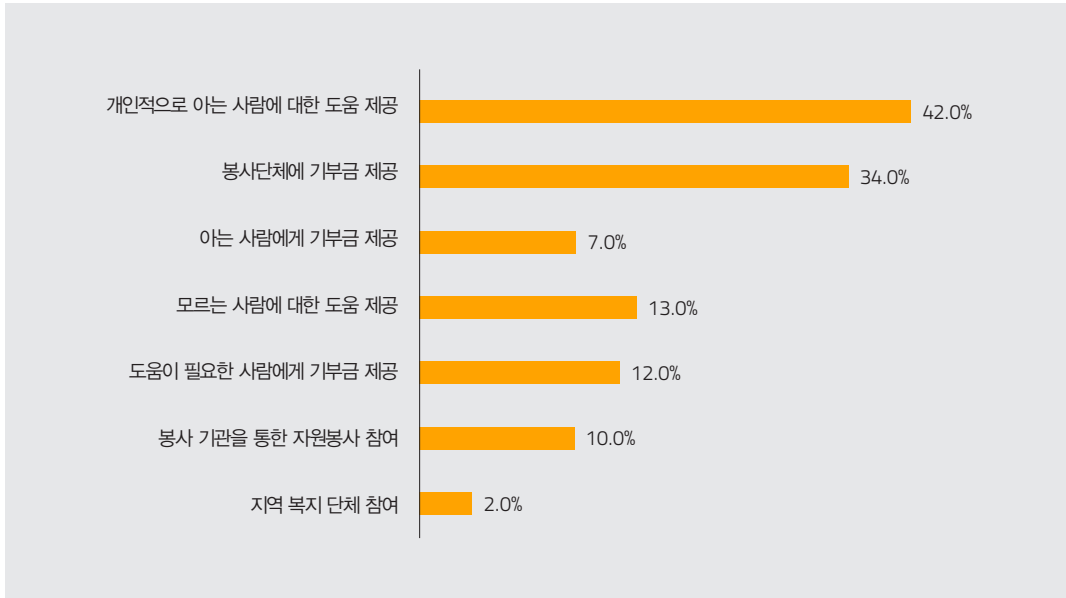
또한 ¾ 이상의 오스트리아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부 및 봉사 활동을 축소 또는 중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오히려 기부 및 봉사 활동을 늘린 경우도 있었으며, 기존의 기부 및 봉사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코로나19로 같은 전염병이 확대되더라도 더욱 적극적으로 기부 및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아이슬란드(Ice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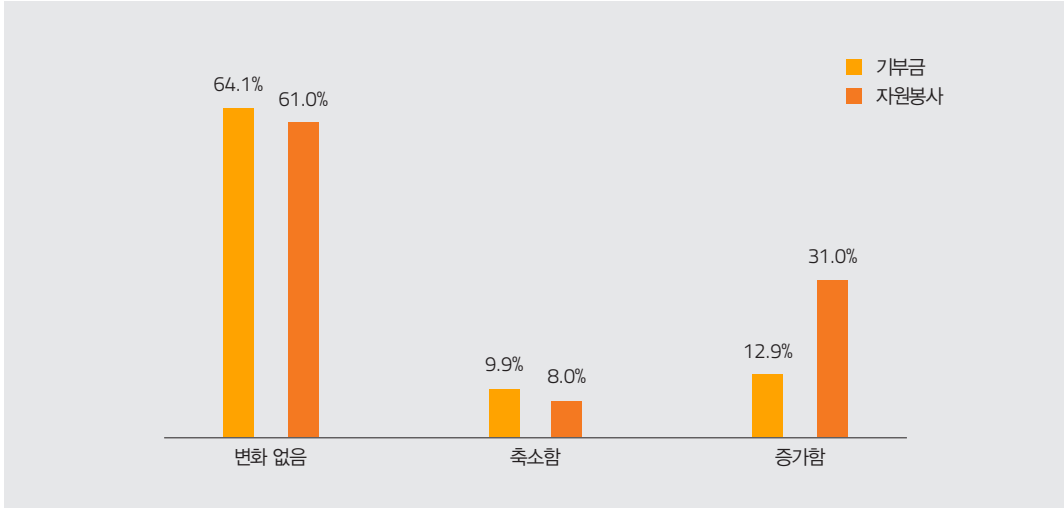
아이슬란드의 연구는 2020년 9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644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응답자 중 49%(315명)은 남자, 51%(329명)는 여자였으며, 58.7%는 기혼자였고, 64.4%가 수도 레이카비크(Reykjavík)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참여한 자선적 활동은 가족/친척/친구 등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체 응답자의 42%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르는 사람에 대한 도움을 제공한 경우는 응답자의 13%밖에 되지 않았으며, 모르는 사람에게 기부금을 제공한 경우도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아는 사람에게 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응답자의 10명 중 6명은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였지만 10명 중 0.7명(7%)만이 아는 사람에게 기부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부금 제공은 아는 사람보다 도움이 필요한 모르는 사람에게 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12%)가 아는 사람에게 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이슬란드에서는 기부금 제공은 자선단체를 통한 지원이 개별적 지원보다 선호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응답자의 34%가 자선단체를 통해 기부금을 제공하였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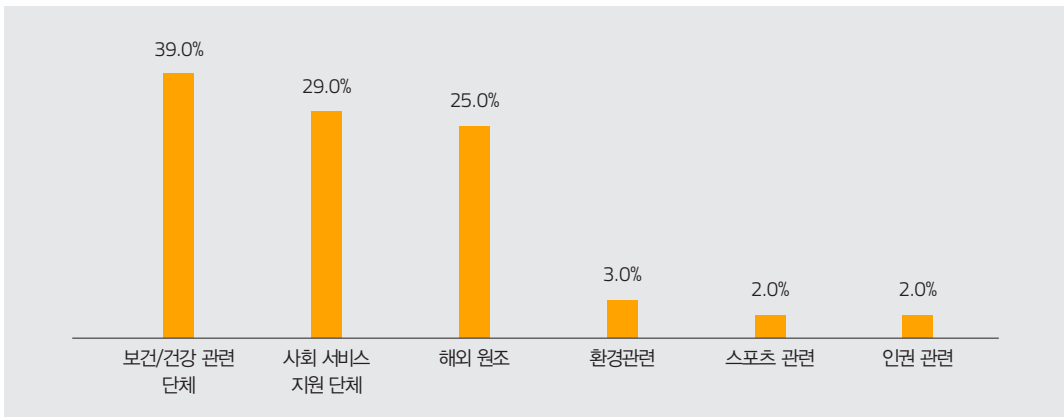
[그림 4] 코로나19 관련 자선 활동의 참여 - 아이슬란드

[그림 5]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금 및 자원봉사 활동의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응답자의 64.1%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기존에 제공하던 기부금의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61%도 기존에 해오던 자원봉사도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오히려 기부금과 자원봉사를 더욱 확대한 응답자들도 있었는데, 응답자의 13%는 기부를 더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1%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원봉사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기부금 제공 보다는 자원봉사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코로나19로 인한 기부금 및 자원봉사 참여 변화 - 아이슬란드

[그림 6]에서는 기부금 지급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응답자의 39%는 보건 및 건강 분야에 종사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단체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29%), 다른 나라에 대한 지원금 제공(2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지 2%만이 인권 및 정치적 대변자 기능을 하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 관련(3%), 스포츠나 레저 활동 등을 지원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3%).



[그림 6] 코로나19로 인한 기부금 지급 분야 - 아이슬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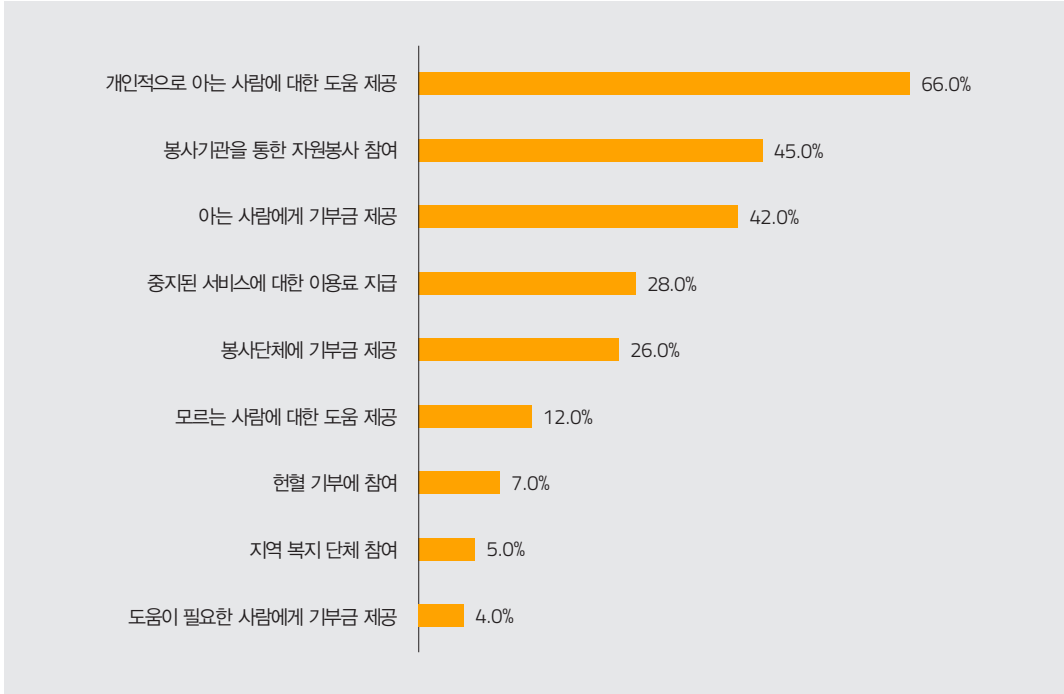


3)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1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020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 및 자원봉사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는 총 1,000명이 참여하였으며, 51%가 남자, 49%가 여자 응답자였다. 36.6%의 응답자가 자녀가 없는 결혼 가정이었으며, 싱글이 32.2%, 자녀가 있는 기혼 가정이 26.4%였다. 설문이 진행될 당시 핀란드에서는 첫 번째 대유행이 지나고 조금 진정된 시기로 하루 30건 이하가 발생하던 시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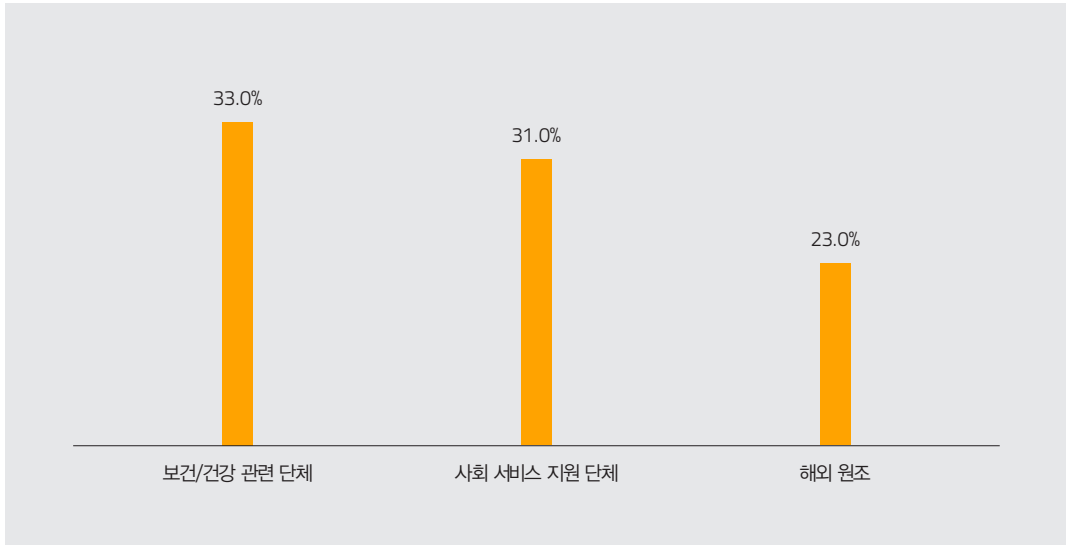
아래 [그림 7]에서와 같이 응답자의 66%는 코로나19 발생한 이후 가족/친구/친척 등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였으며, 45%의 응답자들은 봉사 기관을 통해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2%의 핀란드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26%의 응답자들은 봉사단체를 통해서도 기부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 28%의 핀란드 사람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유료 서비스 중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서비스에도 계속해서 요금을 지불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핀란드 사람들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모르는 사람에 대한 도움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림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응답자의 12%만이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도움이 필요한 모르는 사람에게 기부금 제공한 경우는 응답자의 4%밖에 되지 않았다. 혈액 기부에 참여한 사람은 전체의 7%였고, 지역 복지 단체를 통해 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는 전체의 5% 밖에 되지 않았다.



[그림 7] 코로나19 관련 자선 활동의 참여 - 핀란드

코로나19 발병 이후 핀란드 국민들이 기부한 기부금의 평균은 26유로~50 유로(3만5천~6만7천 원)였으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좀 더 자선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보건 및 건강 관련 지원 단체에 대한 기부가 가장 많았으며(33%), 다음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금 제공(31%), 해외 원조(2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코로나19로 인한 기부금 지급 분야 - 핀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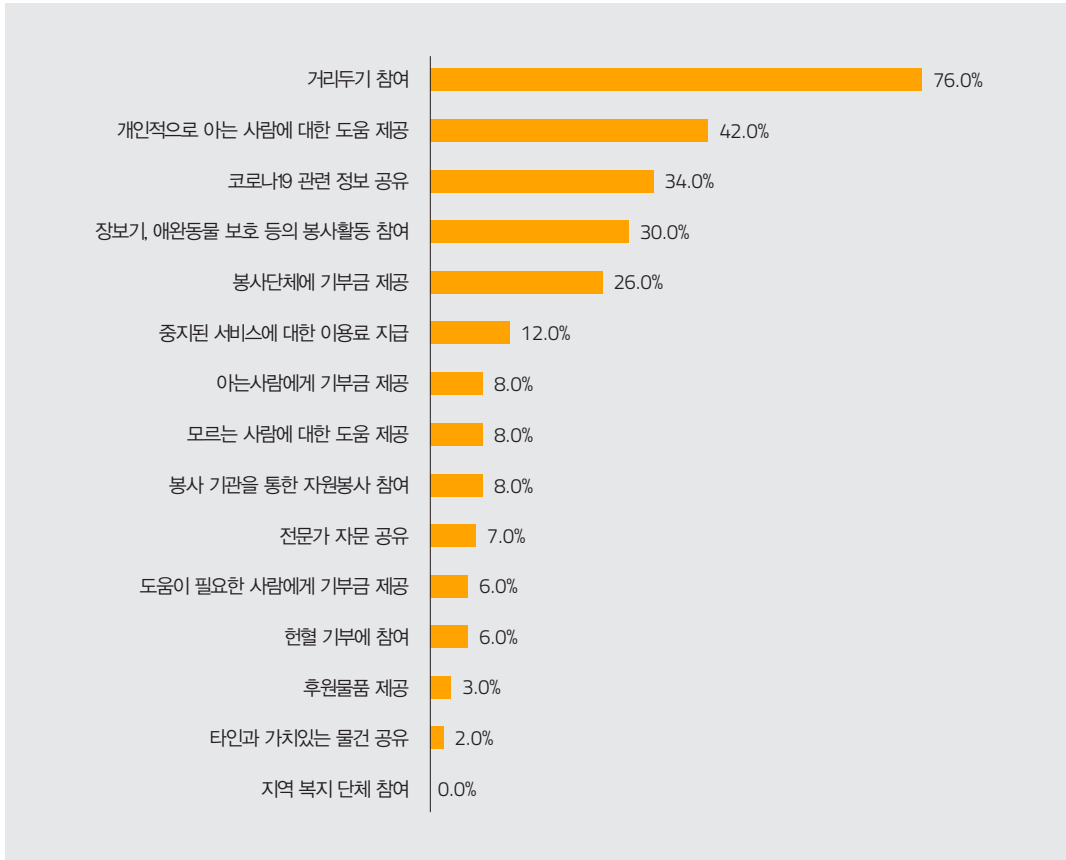
인터뷰를 통해 핀란드의 연구자들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시기의 기부 및 봉사 활동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핀란드에서는 정부가 거리두기, 집합 금지 등의 조치로 자원봉사 참여에 제약이 있었으며, 자원봉사 참여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축소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의도도 코로나 이전보다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부 및 봉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더 강해졌으며 이는 향후 봉사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강조하였다.



4) 스웨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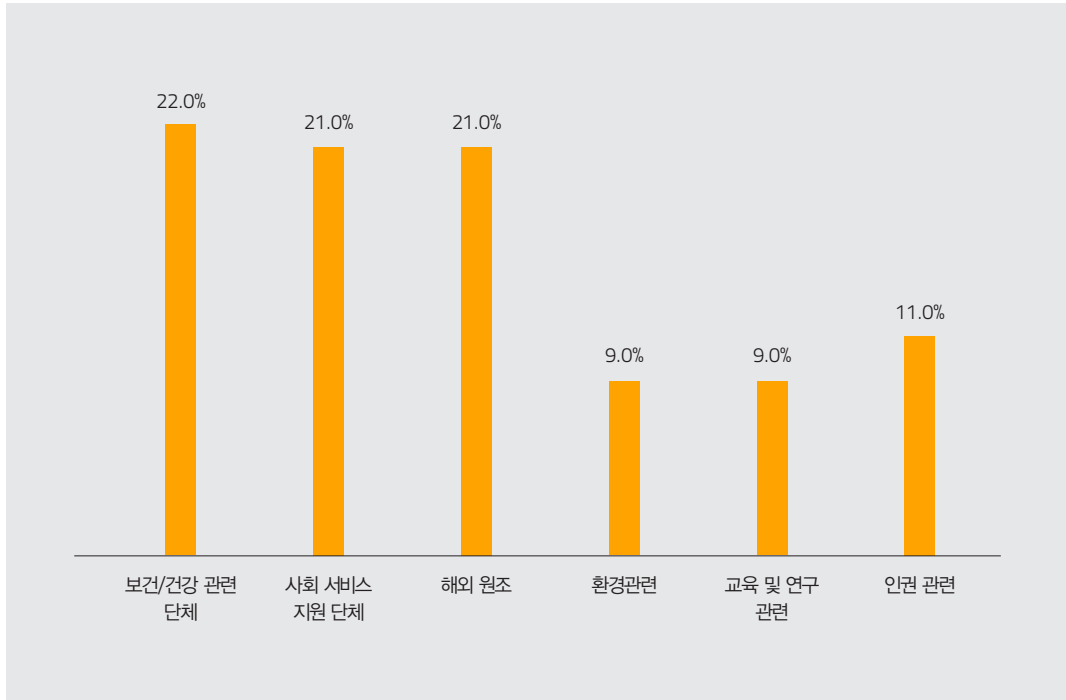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 및 자원봉사에 관한 스웨덴에서의 연구는 2020 10월~11월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스웨덴에 거주하는 18세~90세 사이의 성인 남녀 총 1,149명이 설문문에 참여하였다. 온라인 설문문에 참석한 응답자 중 46.4%는 남성, 54.6%는 여성이었으며, 최종 응답률은 42%였다.

[그림 9]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선 관련 활동에 참여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스웨덴에서는 응답자의 76%가 거리두기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다소 낮았으나, 인터뷰에서 스웨덴 연구자들은 본 연구를 위한 설문문이 진행되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강력한 국경 폐쇄 등 정부 규제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두기 참여율이 아주 낮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설문문에 응답한 42%는 가족/친척/친구 등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34%는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30%의 응답자는 장보기/애완동물 산책 등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 생활에 제약이 있는 개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였으며, 26%의 응답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들에게 기부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유료 서비스에 지속적인 요금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응답자의 12%는 유료 서비스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기부금을 제공하였으며,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한 경우는 8%였다. 또한 응답자의 8%는 봉사 기관을 통한 자원봉사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스웨덴에서는 혈액 기부에 참여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6%로 다른 유럽 국가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그림 9] 코로나19 관련 자선 활동의 참여 - 스웨덴

[그림 10]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급한 기부금의 지급 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보건 및 건강 관련 비영리 단체에 지원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22%), 다음으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21%), 해외 원조(21%) 순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에서는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인권 및 사회 정의에 관한 일을 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금 제공도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높았는데, 인권 및 사회 정의 관련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는 응답자의 11%였으며, 그 밖에 교육 및 연구 관련 기관(9%), 환경 관련 단체(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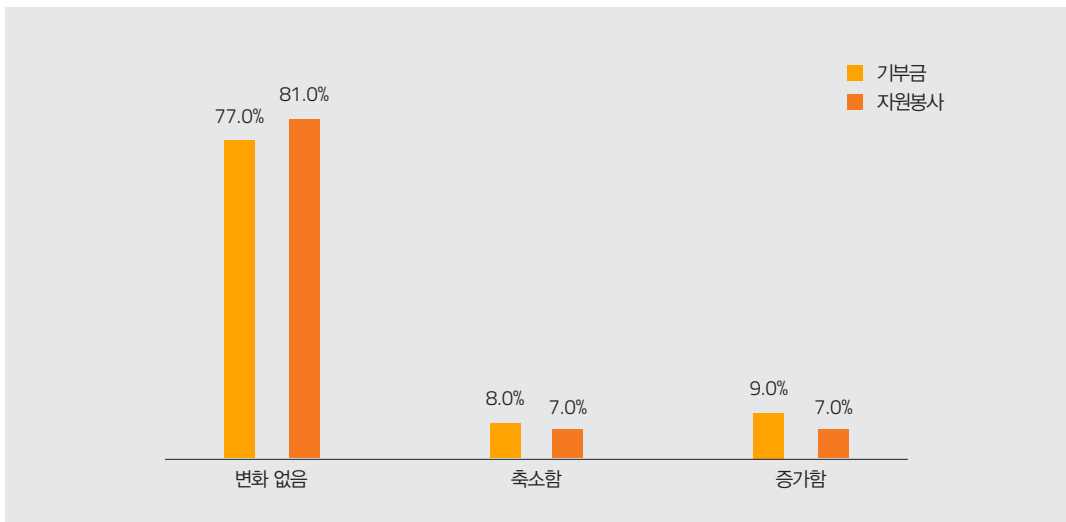


[그림 10] 코로나19로 인한 기부금 지급 분야 - 스웨덴

5)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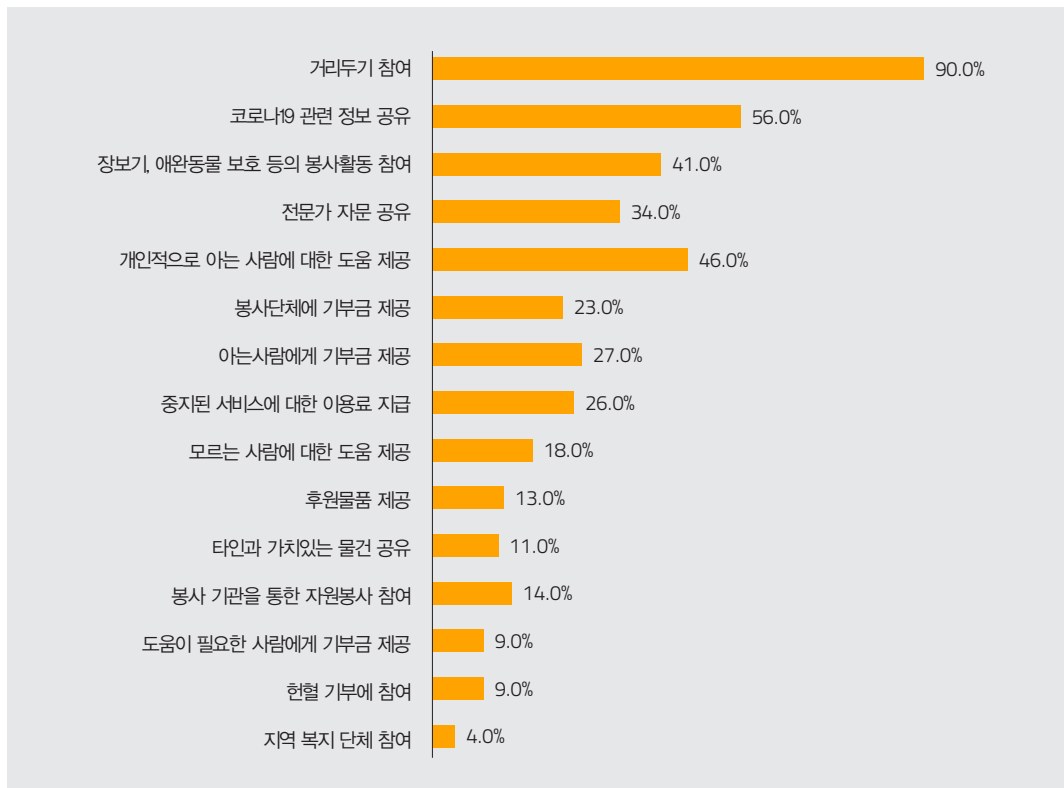
독일의 연구는 2020년 8월3일~20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독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86세 이하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51%는 여성, 49%는 남성이었으며, 0.2%는 기타 성별이었다. 주거 형태에 따른 구별에 의하면 55%는 파트너와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트너와 다른 집에 거주하는 경우 13%, 혼자 사는 경우가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수집할 당시 독일에서는 첫번째 웨이브가 끝난 상태로 3월 중순 비유럽연합 국가 사람들에 대한 국경 폐쇄, 학교 및 유치원 등 교육 기관 폐쇄, 식당·운동 시설 등 생활 이용 시설 폐쇄 등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거리두기 및 2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 후였다.

[그림 11]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금 및 자원봉사 참여 변화를 분석한 결과로, 전체 응답자의 77%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기부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약 8%만이 기부금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응답자의 9%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를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는 응답자의 총 81%가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7%는 오히려 확대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7%만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자원봉사 참여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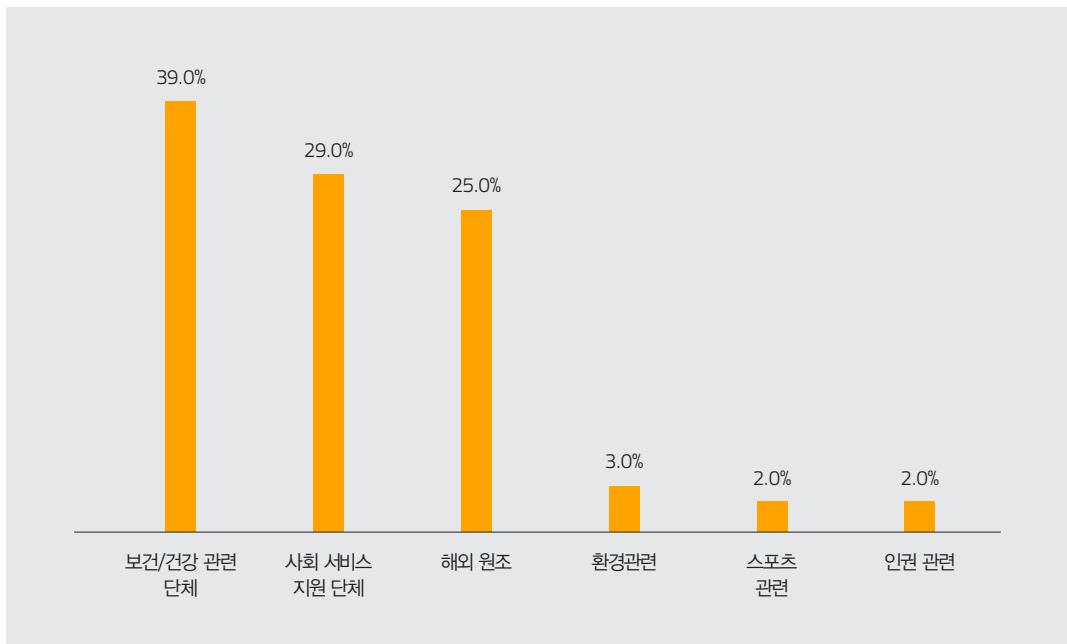
[그림 11] 코로나19로 인한 기부금 및 자원봉사 참여 변화 - 독일

[그림 12]는 코로나19 관련 각종 자선 활동의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로서, 독일에서는 90%의 응답자가 거리두기 정책에 참여하였으며, 56%는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였다. 46%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 대해 도움을 제공한 적이 있고, 41%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을 위해 장보기 또는 애완동물 보호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34%의 응답자는 코로나19 관련 전문가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였고, 27%는 아는 사람 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금을 제공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26%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던 유료 서비스가 중지되었음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 대금을 지불하였으며, 23%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봉사 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르는 사람에 대한 도움 제공(18%)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는 9%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독일에서는 응답자의 9%가 혈액 기부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다른 유럽 나라보다 조금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이다.



[그림 12] 코로나19 관련 자선 활동의 참여 - 독일

[그림 13]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제공된 기부금을 지급 분야별로 분석하였으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비영리 단체에 가장 많은 기부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39%). 다음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29%), 해외 원조(25%) 기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독일에서는 인권 관련 단체(2%), 환경(3%) 및 여가 관련 단체(2%) 기부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코로나19로 인한 기부금 지급 분야 -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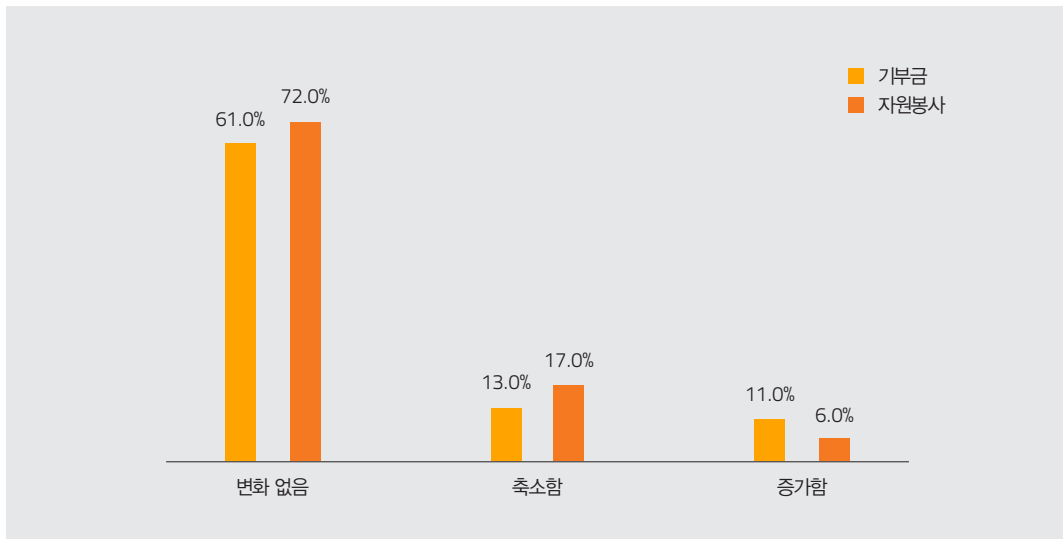


6) 호주

호주의 연구는 2020년 8월 온라인 설문을 통하여 실시되었으며, 총 1,007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응답자의 49.2%가 남성이었으며, 49%가 여성, 0.8%가 다른 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1.4%는 혼자 사는 가구였으며, 27.7%가 18세 미만의 자녀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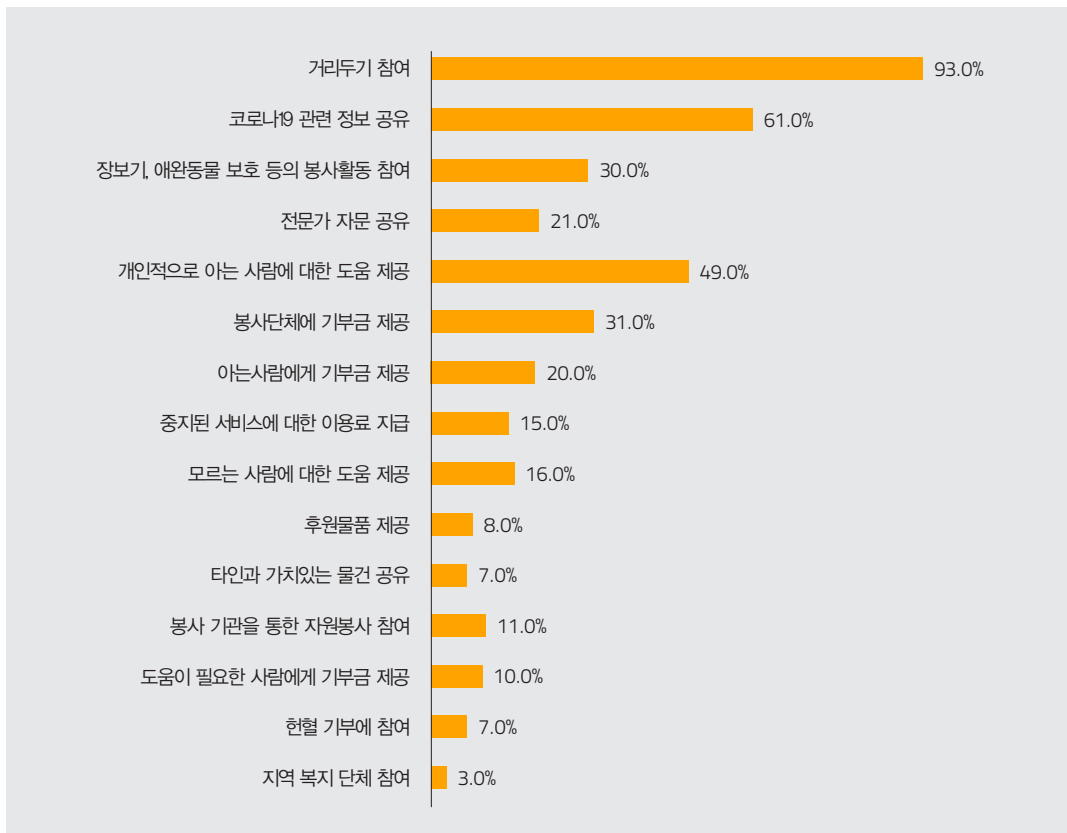
호주에서는 2020년 1월 25일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3월 20일 국경 폐쇄 명령이 내려졌으며, 모든 호주에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4일 간의 격리를 의무화하였다. 조사 당시 빅토리아 주에서는 두 번째 대유행이 발생했으며, 강력한 규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던 때였다.

[그림 1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응답자의 61%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기존에 제공하던 기부금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오히려 11%는 기부금액을 더 늘린 것으로 응답하였다. 자원봉사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72%의 응답자는 자원봉사 참여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6%는 오히려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응답자의 13%는 기부금을 축소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17%의 응답자는 자원봉사 활동을 줄였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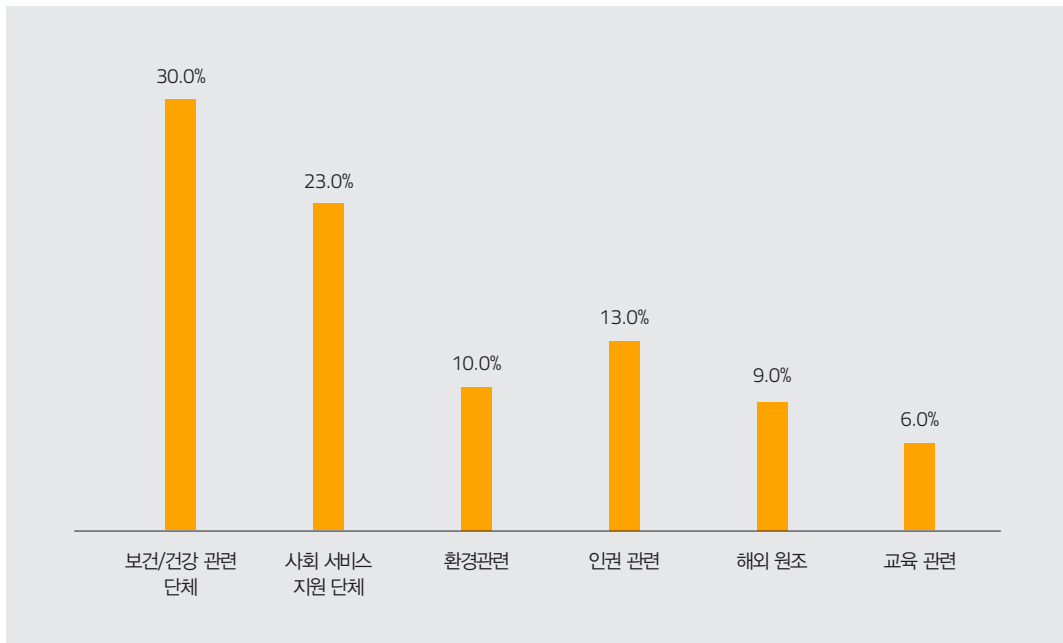
[그림 14] 코로나19로 인한 기부금 및 자원봉사 참여 변화 - 호주

[그림 15]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참여한 자선적 활동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93%의 응답자가 거리두기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61%의 응답자는 코로나19 관련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대해 도움을 제공하거나(49%), 아는 사람에게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20%)이 모르는 사람에게 대한 도움 제공(16%),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금 제공(1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서는 봉사 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한 경우가 31%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단된 유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한 경우는 전체의 1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는 혈액 기부에 참여하였으며, 2%의 응답자만이 [그림 15]에 포함된 자선적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15] 코로나19 관련 자선 활동의 참여 - 호주

[그림 16]은 기부금 지급 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로서,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기부자들은 보건/건강 관련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제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30%). 다음으로 사회 서비스 단체(23%), 인권 관련 단체(13%), 환경 관련 단체(10%), 해외 원조 관련 단체(9.0%), 교육 관련(6.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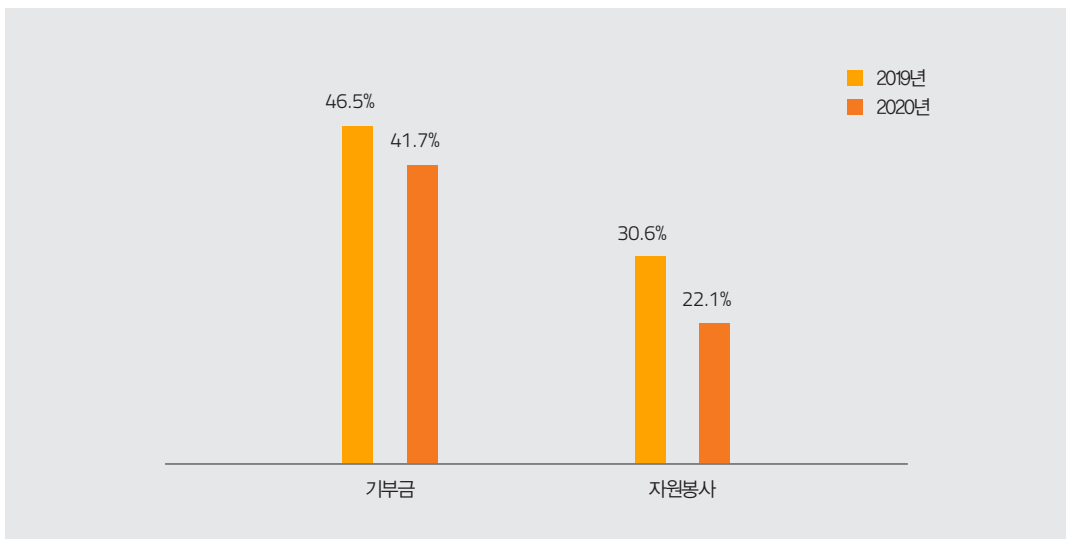
[그림 16] 코로나19로 인한 기부금 지급 분야 - 호주



7)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조사는 2020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33주 동안 매주 실시되었으며, 한 주에 평균 560명의 응답자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최종 총 26,737명이 참여하였으며, 약 50,000건의 설문이 완료되었다. 응답자 중 약 10%는 적어도 3번 이상의 설문에 참여하였다. 응답자의 약 89%는 유대인이었고, 11%는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응답자였다. 설문 조사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2020년 2월 초에 첫 번째 국경 폐쇄가 있었고, 2020년 9월에 두 번째 국경 폐쇄가 있었다.

[그림 1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2월부터 9월까지 자선적 기부에 참여한 사람은 응답자의 41.7%였으며, 응답자의 평균 22.1%가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기부 참여율과 자원봉사 참여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다소 줄어든 것이다. 참고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기부 참여율은 47%, 자원봉사 참여율은 31%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기부 참여율과 자원봉사 참여율이 비슷한 비율로 줄어들었으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기부에 참여하는 비율보다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6% vs.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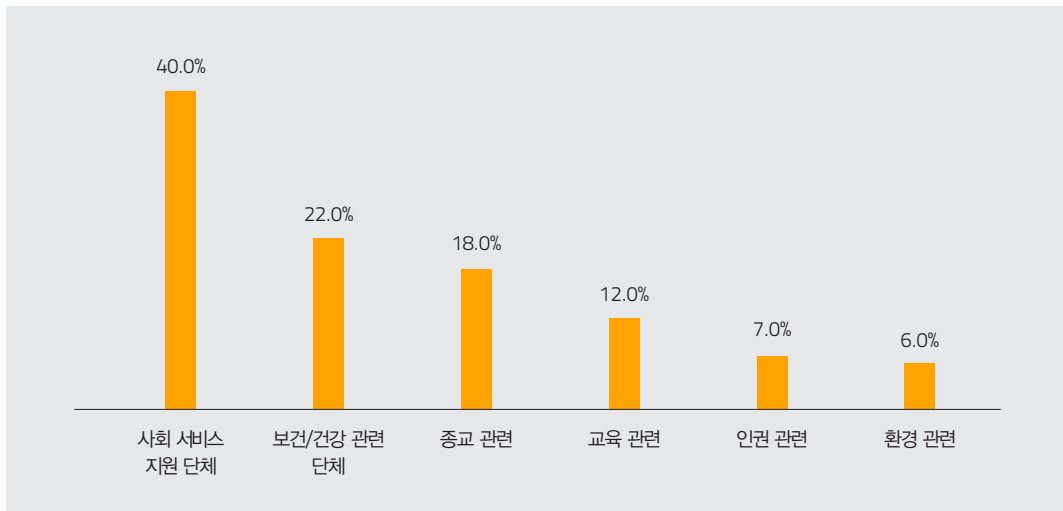


[그림 17] 코로나19로 인한 기부금 및 자원봉사 참여 변화 - 이스라엘

[그림 18]은 기부금 지급 분야별 분석 결과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이 기부한 단체는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회 서비스 단체에 대한 기부로서 응답자의 40%가 사회 서비스 단체들에 기부를 하였다. 반면 보건 및 건강 관련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는 응답자의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다른 유럽 국가의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연구자들은 기부자들이 보건 및 건강 관련 단체에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기부한 원인을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코로나19 발병 초기 코로나가 매우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생필품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정부의 생필품 및 건강 관련 물품 지원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해 민간의 지원 및 기부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연구에서와는 다르게 기초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가 보건 및 건강 관련 단체에 대한 기부보다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둘째, 이스라엘에서는 보건 및 건강 관련 서비스는 정부에서 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건 및 건강 관련 단체보다는 다른 목적의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사회 서비스 단체 기부 및 보건/건강 관련 단체 기부 다음으로는 종교 관련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18%), 교육 관련 단체(12%), 인권 관련 단체(7%), 환경 관련 단체에 대한 기부(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코로나19로 인한 기부금 지급 분야 - 이스라엘



8)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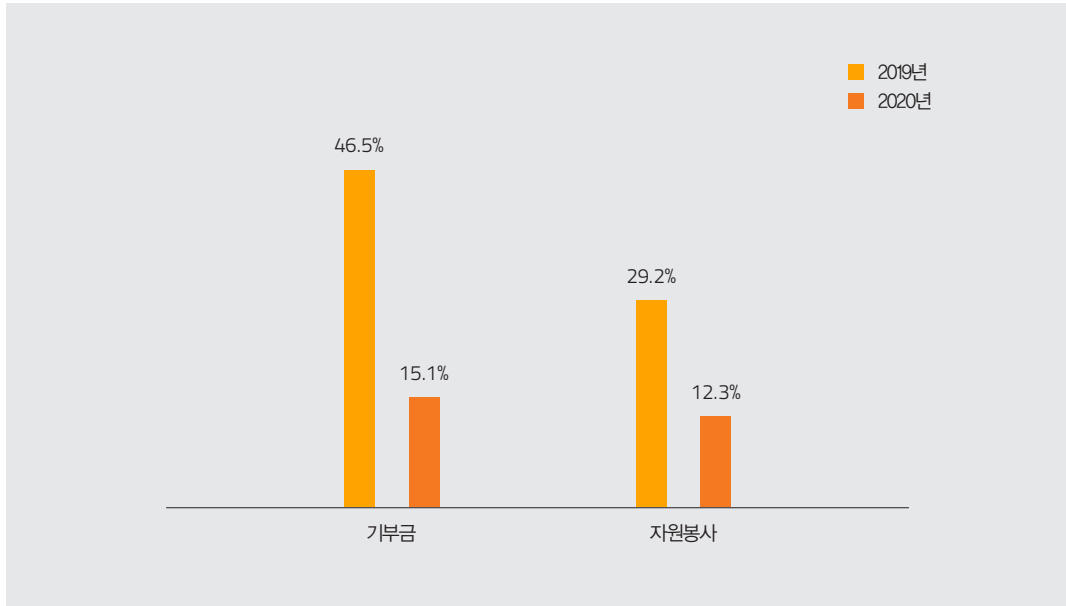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기부 및 자원봉사에 관한 한국의 조사는 2020 기빙코리아 조사의 일환으로 2020년 8월 12일~8월 21일 사이에 설문이 진행되었다. 2020 기빙코리아 조사에는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총 2,006명이 참여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여성 50.3%(1,010명), 남성이 49.7%(99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에 따른 구별은 기혼자 61.8%, 싱글 30.1%, 사별 및 이혼자 8.1%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최초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이래 몇 번의 대유행을 경험하였으며, 본 연구의 설문이 진행될 당시 한국에서는 두 번째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다. 한국 정부는 “3T” 정책(검사, 추적, 치료)을 강력히 시행하던 시기였으며, 거리두기 정책과 집합 금지 정책이 실시되던 시기에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림 19]와 같이 한국에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기부에 참여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15.1%로 2019년 기부 참여율(46.5%)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참여율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발병 이후에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전체 응답자의 12.3%만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 조사 시기가 첫 번째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나고 연이어서 두 번째 대유행이 시작된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적/개인적 활동이 매우 위축된 시기였기도 하고, 기부 및 봉사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겨울 이전의 조사이기 때문에 코로나19발생 이전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도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9년도의 조사는 1년 간의 기부 참여율이며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조사는 반 년 간의 기부 활동에 대한 조사이므로, 상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 있는데, 김성주 외(2022)의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ARS, 온라인 기부(예, crowdfunding, Peer-to-peer donation), 팬텀 기부 등 다양한 기부 방식을 통한 기부가 지난 5년 간의 기부 추세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Kim et al.,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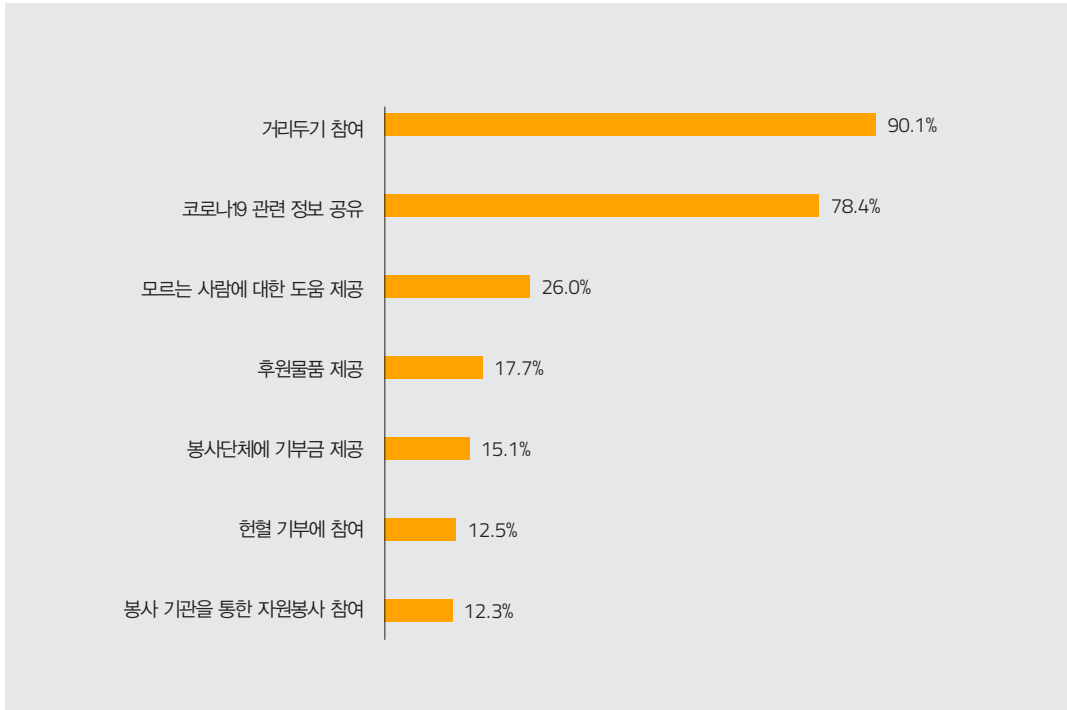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기부 및 자원봉사의 변화에 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80.8%가 기부 행위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코로나 이전과 같거나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53.2%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기부에 참여하던 사람들은 코로나19가 발생했더라도 기존의 기부금 제공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것이며, 또한 지금은 기부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기부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응답자도 전체의 41.7%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코로나19로 인한 기부금 및 자원봉사 참여 변화 -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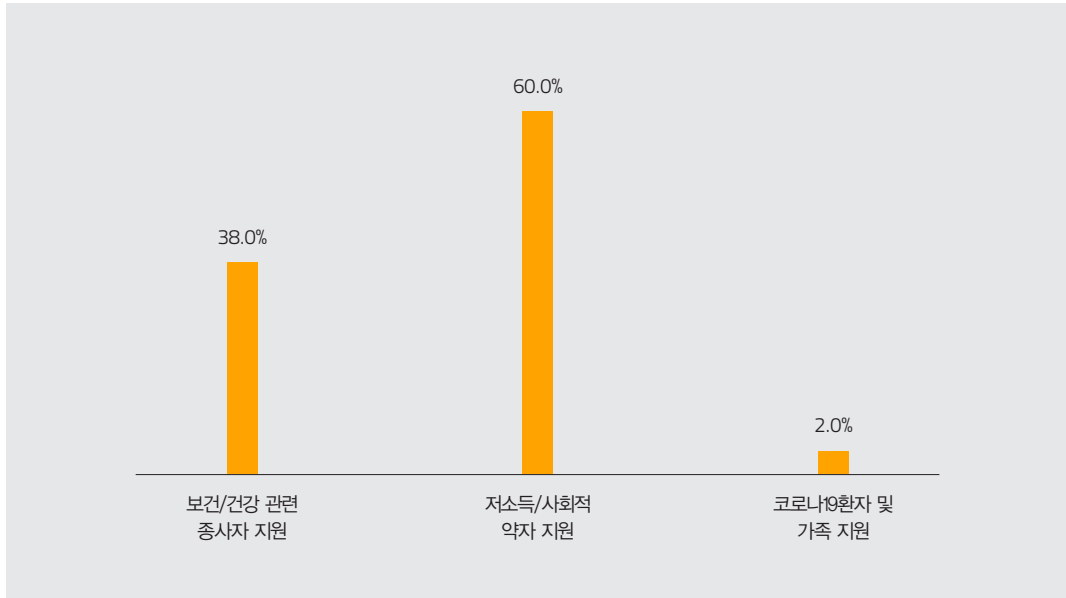
[그림 20]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참여한 자선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응답자의 90%가 거리 두기에 참여하였으며, 78.4%의 응답자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26%는 모르는 사람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였으며, 17.7%의 응답자는 후원물품을 제공하였다. 봉사 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한 응답자는 전체의 15.1%였으며, 혈액 기부에 참여한 사람도 전체의 12.5%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발병 이후 봉사 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한 응답자는 전체의 12.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0] 코로나19 관련 자선 활동의 참여 - 한국

[그림 21]은 코로나19 이후 지급된 기부금 지급 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로서, 응답자의 60%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저소득 가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부금 지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스라엘 연구 결과와 비슷한 현상으로 한국의 기부자는 보건 및 건강 관련 지원 단체에 대한 기부보다는 저소득 가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부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 및 코로나19 방역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일선 전문가들에 대한 지원도 집중되었는데, 응답자의 38%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 및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금을 제공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환자 및 환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2%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는 코로나19 환자 및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환경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 코로나19로 인한 기부금 지급 분야 -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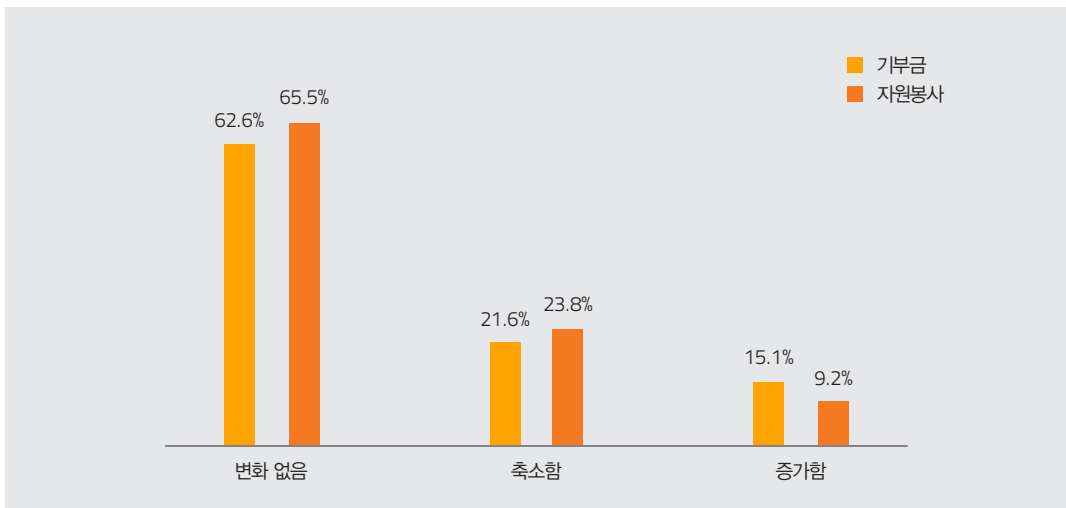


9) 미국

미국의 연구는 시카고 대학의NORC 연구 센터 주최로 2020년 9월 14일부터 10월 6일 사이에 미국 전역 18세 이상 95세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총 응답자는 1,535명으로 49%가 남성 응답자였으며, 51%가 여성 응답자였다. 응답자의 49.3%가 싱글이었으며, 29.3%가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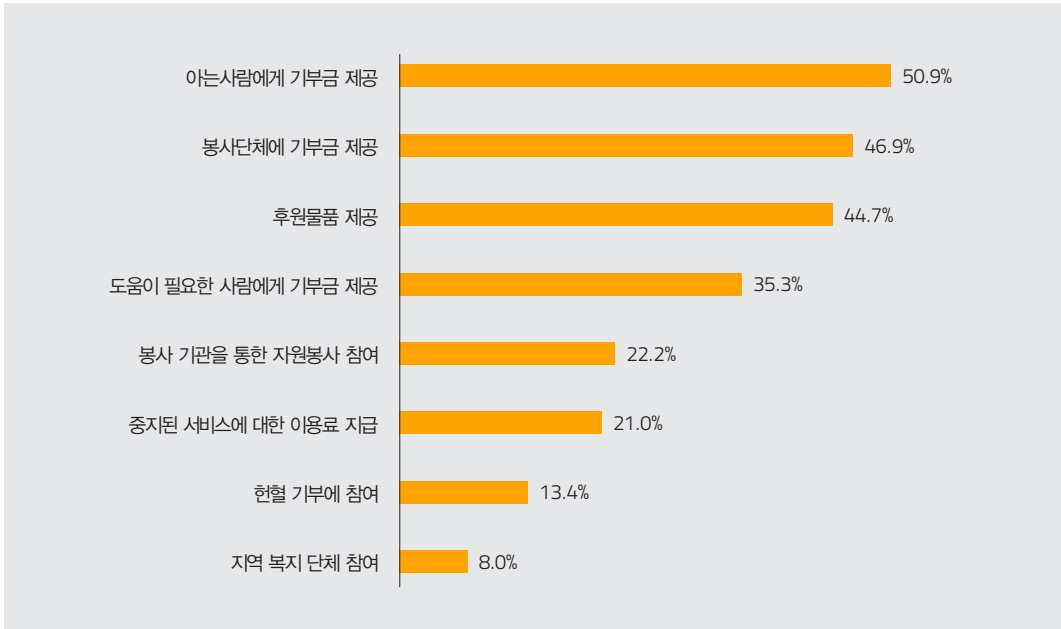
미국 연구가 진행될 당시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으며, 많은 주에서 거리 두기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조치를 적용하고 있었다. 학교는 온라인 수업 및 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었으며, 어떤 주에서는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던 시기였다.

[그림 2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응답자의 62.6%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기부금 제공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5%는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금을 축소한 응답자는 전체의 21.6%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원봉사 참여의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변화가 없다(65.5%)’, ‘증가하였다(9.2%)’, ‘축소하였다(23.8%)’로 자원봉사를 축소할 경우가 기부를 축소할 경우보다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코로나19로 인한 기부금 및 자원봉사 참여 변화 - 미국

[그림 23]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응답자가 참여한 자선 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응답자의 50.9%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아는 사람에게 기부금을 제공하였으며, 46.9%는 봉사 단체를 통하여 기부금을 제공하였고, 응답자의 44.7%는 봉사 단체에 후원물품을 제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35.3%는 모르는 사람에게 기부금을 제공하였고, 22.2%의 응답자는 봉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실시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유료 서비스에 계속해서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1%였고, 혈액 기부에 참여한 경우는 전체의 13.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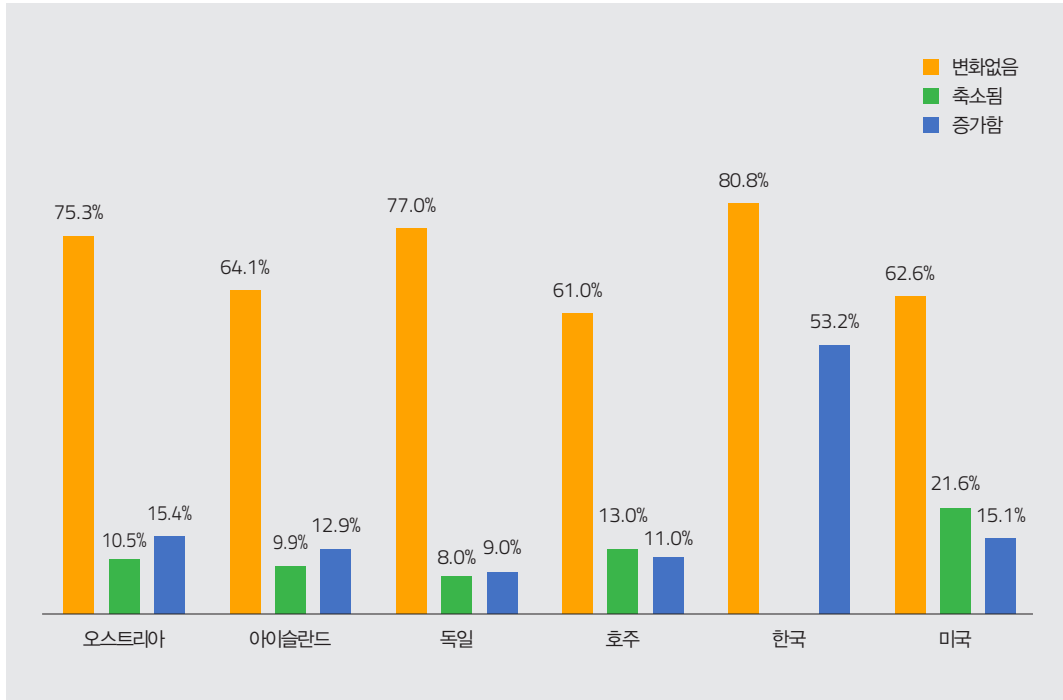
[그림 23] 코로나19 관련 자선 활동의 참여 - 미국

2. 코로나19 이후 기부 및 봉사 활동 변화에 관한 국제 비교

본 섹션에서는 각국의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선적 활동 변화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간 비교 분석 결과를 서술하였다.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에 앞서 각 국가의 연구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국가 간 비교 분석 결과의 통계적 해석에 한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각 항목에 대한 단순 수치상의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간 기부 행위의 차이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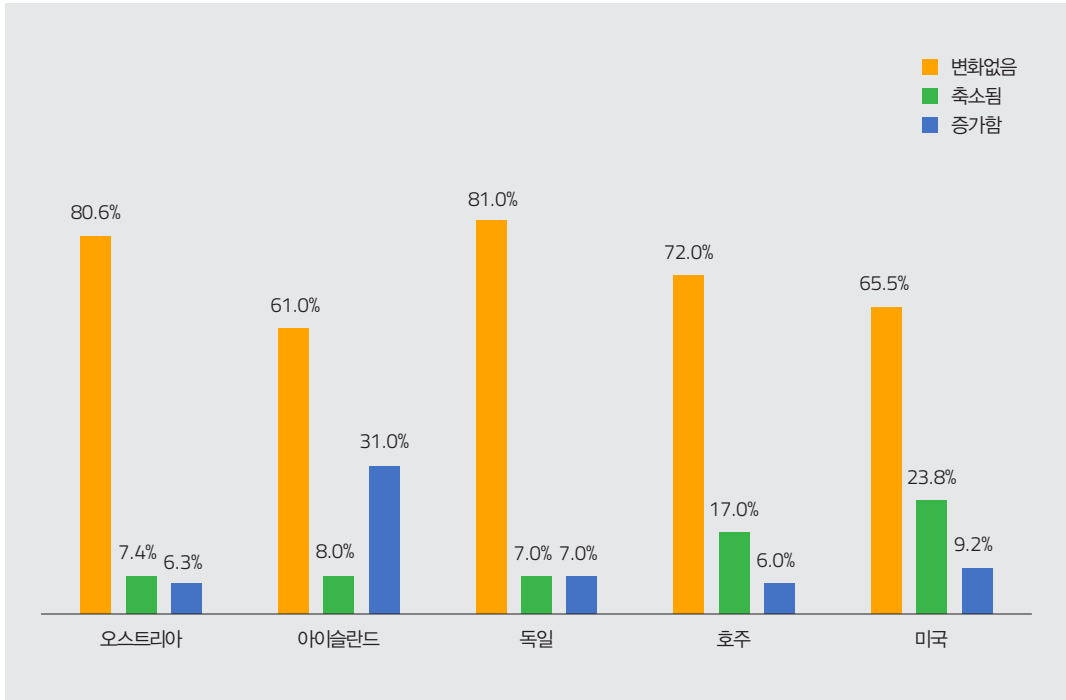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존에 제공하던 기부의 변화에 관한 조사에서는 [그림 24]에서 보듯이 설문 에 참여한 9개국에서 높은 수준에서 기부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기부의 변화가 가장 많은 나라는 호주, 미국 순이었다. 특히 한국은 기부 변화가 없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기존 기부자의 80%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기부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를 오히려 증가시켰다고 응답한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람들이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시 기부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있는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서도 이러한 기부 문화가 적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8년 IMF 금모으기 운동,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 돕기 기부 참여, 2019년 고성 산불 돕기 기부 캠페인 등 국내·외적으로 각종 자연 재해 및 경제적 재난이 발생하였을 시 한국인들이 보여준 기부에 참여하는 경향은 다른 나라에서 보여주는 재난 기부와 조금 다른 경향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도 한국인들의 기부 참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기부 유지율과 기부 증가율의 결과는 설문 조사 방법상의 차이인지 실제로 기부를 유지한 비율과 증가 비율이 높은 것인지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기에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자선적 행위에 더 많이 참여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비교 분석 결과의 해석상 주의가 꼭 필요하다.

반면 미국에서는 기부 문화가 매우 발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를 축소하였다는 비율이 21.6%로 다른 나라(평균 11%)에 비해 상당히 높았으며, 기부를 늘렸다는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금 참여 변화 추이 국가 간 비교

[그림 25]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원봉사의 변화 추이를 비교한 것으로 비교 대상에 포함된 5개 나라 모두 60% 이상의 응답자가 자원봉사의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응답자의 81%가 이에 해당된다. 아이슬란드는 자원봉사의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 대상 5개 국가 중 가장 낮았으나(61%), 자원봉사에 더 많이 참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개 나라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1%). 반면 자원봉사를 축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의 23.8%이며, 다음으로 높은 나라가 호주(17%)였다. 유럽 국가들은 7.5% 수준의 자원봉사 활동의 축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원봉사의 변화에 관한 설문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의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원봉사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에서는 봉사기관을 통한 자원봉사는 현격히 줄었으나, 온라인 봉사 참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노법래 외,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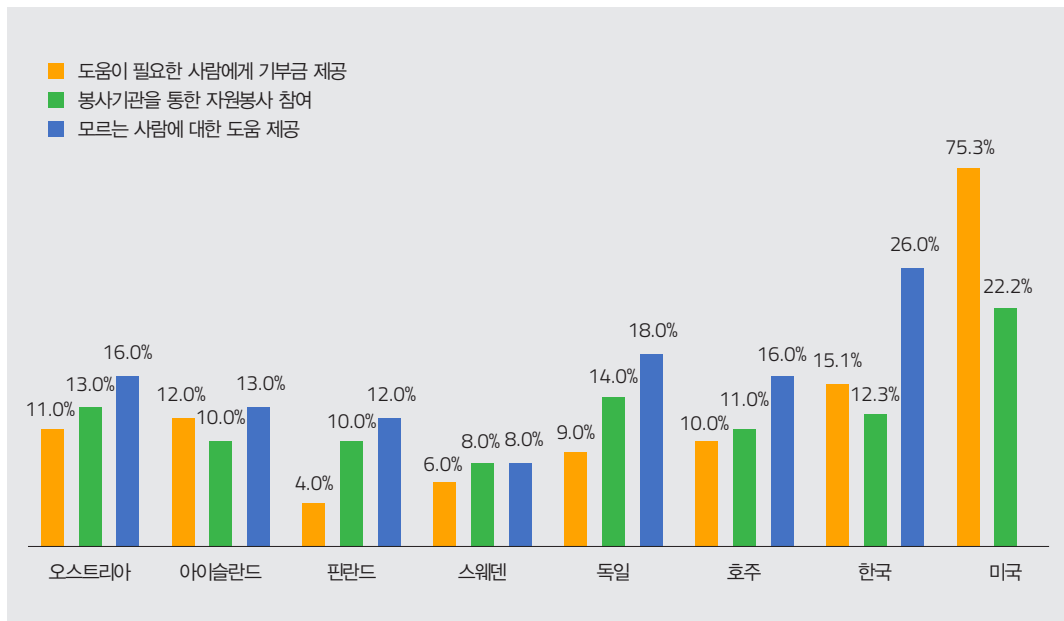
[그림 25]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원봉사 참여 변화 추이 국가 간 비교

[그림 26]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선적 활동 참여에 관한 국제 비교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한국이 다른 8개 국가보다 모르는 사람에 대해 도움을 제공한 경우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6%), 이는 기존의 연구와는 매우 다른 결과이다. 세계기부지수를 발표하는 영국의 연구기관인 Charity Aid Foundation의 연구에 의하면 지난 10년 간 한국의 기부 지수가 다른 유럽 및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주요 요인 중 특히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가 비교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조사되었기 때문이다(CAF, 201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의 모르는 사람에 대한 도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국가 재난 상황 시 한국민들의 자선적 활동에 대한 참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집중되는 경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알지 못하는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금을 제공한 경우에서도, 미국(35.3%)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높은 참여율

(15.1%)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원봉사의 참여 방식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는데, 기존의 방식은 비영리 단체 등 봉사 단체를 통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였다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조사 대상 대부분의 나라에서 개인적 네트워크 또는 SNS를 통해 자원봉사 대상을 찾고 봉사 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유럽 국가들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유럽 국가들에서는 강력한 폐쇄 조치로 인해 비영리 단체도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고, 개인이 온라인 네트워크 및 앱 등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봉사 활동 대상을 찾고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봉사단체를 통한 자원봉사 참여는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의 경우 비영리 단체를 통한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는 응답자의 4%밖에 되지 않았으며,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11%를 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봉사 단체를 통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향이 더 높았는데, 이는 미국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들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봉사할 대상을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면적 사회 통제를 하지 않은 한국에서도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비영리 단체를 통한 자원봉사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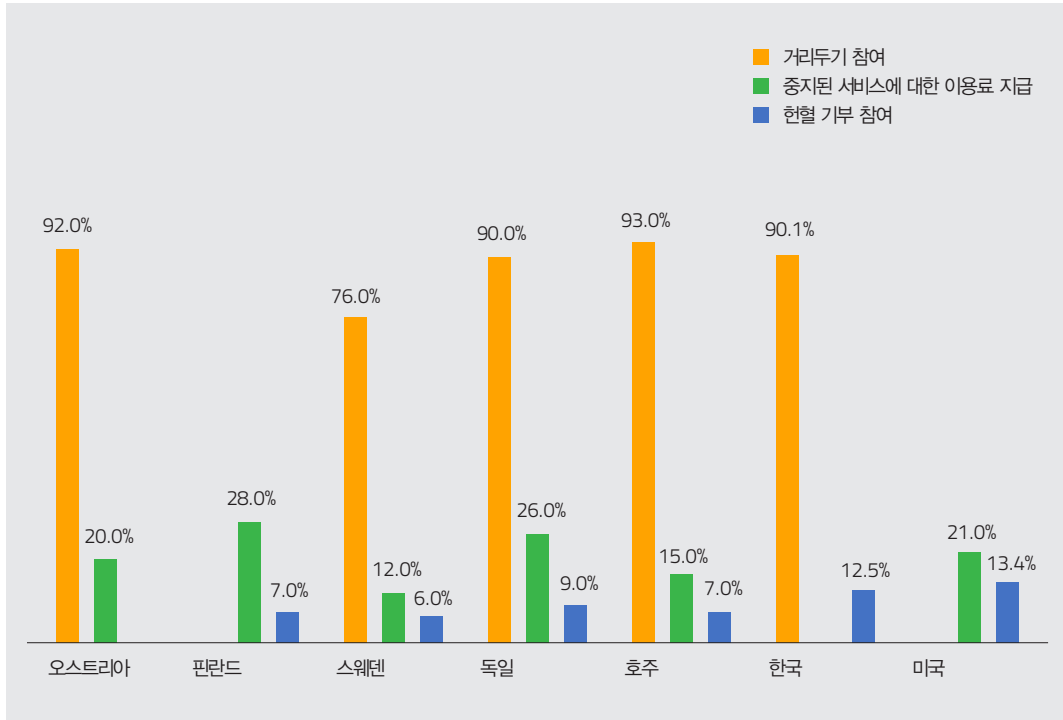


[그림 26]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선적 활동 참여 국제 비교 (1)

[그림 27]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선적 활동 참여에 관한 국제 비교 중 거리두기 참여, 혈액 기부, 중지된 서비스에 대한 대금 지급 참여 등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거의 모든 나라에서 90% 이상의 응답자가 거리두기에 참여하였으나, 스웨덴에서는 76%의 응답자만이 거리두기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스웨덴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거리두기 정책을 강제로 실시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코로나19 발생 이후 참여한 자선적 활동 중 특이한 사항은 유료로 사용하던 서비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계속 지불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핀란드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단된 유료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이용료를 지불하였으며(28%), 다음으로 독일(26%), 미국(21%), 오스트리아(20%), 호주(15%), 스웨덴(12%)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조사에서는 이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중단된 유료 서비스에 이용 대금을 계속 지불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혈액 기부에 참여한 비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미국과 비슷한 12.5%의 혈액 기부 참여율을 보였다. 한국에서 혈액 기부는 전통적인 기부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을 수 있고, 코로나19 발병 이후 헌혈 부족을 호소하는 보도가 혈액 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도 하였으며, 중·고등학생들의 혈액 기부가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혈액 기부를 촉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현역 군인들의 혈액 기부가 더욱 활발이 이루어졌으며, 헌혈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지하철 역 인근, 번화가, 도심 여러 곳에 마련되어 혈액 기부를 위한 접근성이 매우 높은 환경도 한국에서 혈액 기부가 많이 발생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7]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선적 활동 참여 국제 비교 (2)

V. 결론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심각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위협을 초래하였고, 범국가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 정부 및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특히 각국 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이는 기부 및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금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코로나19 이전 시기와 비교해 기부 금액이 늘어났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노연희, 2020).

그러나 한국의 코로나 시기 기부 트렌드와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 트렌드를 비교 분석하는 국제 비교 연구는 시행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기부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기부 트렌드를 파악하고 각 나라의 트렌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코로나19 이후 기부 및 자원봉사 트렌드를 국제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6월~12월 사이에 총 15개 나라에서 실시된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 변화에 대한 국제 자선 행동에 관한 연구팀(Global Generosity Research Team)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9개 나라의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과 각국의 지표를 비교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인용된 나라에는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 독일, 호주, 이스라엘, 한국, 미국이 포함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 및 자원봉사에 관한 국제 비교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 참여의 변화에 대한 조사에서 미국을 포함한 유럽 및 호주의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평균 65%(61%~77%)가 코로나19 이전과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한국의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81%가 코로나19 이후에도 기존에 제공하던 기부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독일(77%), 오스트리아(75.3%)보다도 높은 수치이며, 미국(62.6%)이나 호주(61%)보다도 약 18%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를 더 늘린 비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독일 등 유럽 국가는 응답자의 9%~15% 사이에서 기부금을

늘렸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은 응답자의 53%가 그러하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이 평소 기부에 참여하는 비율은 본 연구의 비교 대상에 있는 다른 국가들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시 기부에 적극 참여하는 한국 기부 문화로 인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의 기부자들은 더욱 적극적인 기부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르게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이 22%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두 번째로 높은 독일(16%)보다도 6%나 높은 수치이며, 최저 수준을 나타낸 스웨덴(8%)보다는 무려 1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한국에서는 국가적 재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불특정 다수를 위한 자선 행위의 증가가 모르는 사람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밖에 봉사 기관을 통한 자원봉사 참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금을 제공하는 비율도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혈액 기부 참여 비율은 미국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리두기 참여도 미국 및 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중 특이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지된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지급은 한국에서는 설문되지 않았지만 미국 및 유럽에서는 7%~13%의 응답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유료 서비스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계속 지급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거리두기, 집합 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새로운 방식의 자원봉사 참여가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자원봉사 참여는 비영리단체 등 기관을 통해 봉사할 대상과 장소를 찾았다고 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 자원봉사 대상과 장소를 찾고, 개인 네트워크 또는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장보기, 애원동물 돌보기, 가족/친구 또는 모르는 개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비영리단체 등 자원봉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봉사할 대상을 찾고 SNS 등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다른 연구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다(노법래 외, 2022).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에 관한 국제 비교 분석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에서는 미국 및 유럽 국가의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 참여도에 비해 기존의 기부행동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모르는 사람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혈액 기부에 참여한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부 및 자원봉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국가 간 상대 비교 결과는 각 나라의 연구 방법의 차이 및 통계적 한계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기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가 국제적 맥락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인지를 위한 비교 자료만 인용될 수 있을 것이다.

VI. 참고문헌

- Abidin, Z. (2021). Islamic Philanthropy and Covid-19 Pandemic Crisis: The Socio-Economic Role of Nahdhatul Ulama, al-Uqud: Journal of Islamic Economics, 5(1), 166-183.
- Adelabu, O. (2021). The Resurgence of Corporate Philanthropy in Nigeria: A Study of CACOVID and COVID-19.
- Barr, N. (2021). Charitable Giving in the Time of COVID-19. Community Ideas Factory: Creative Behavioural Insights, 1. https://source.sheridancollege.ca/fhass_community_ideas_factory_cbi/1
- Charity Aid Foundation (2019, October). CAF world giving index: Ten years of giving trends. https://www.cafonline.org/docs/default-source/about-us-publications/caf_wgi_10th_edition_report_2712a_web_101019.pdf
- Charity Aid Foundation (2020, October). UK giving and COVID-19: A special report. <https://www.cafonline.org/docs/default-source/about-us-publications/caf-uk-giving-2020-covid-19.pdf>
- Fridman, A., Gershon, R., & Gneezy, A. (2022). Increased generosity under COVID-19 threat. Scientific reports, 12(1), 1-8.
- Fridman, A., Gershon, R., & Gneezy, A. (2022). Increased generosity under COVID-19 threat. Scientific reports, 12(1), 1-8.
- Gulliver-Gracia, T., Kumar, S., & Sato, G. (2022, May 25). Philanthropy and COVID-19: Examining two years of giving. <https://candid.issuelab.org/resource/philanthropy-and-covid-19-examining-two-years-of-giving>
- Kim, S. J., & Jang, Y. J., & Lee, Y. L. (2022, June). Digital for good: A global study on emerging ways of giving- South Korea.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https://scholarworks.iupui.edu/bitstream/handle/1805/29310/SouthKoreaReportEnglish2022.pdf>

-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21, November). Understanding philanthropy in times of crisis: The role of giving back during COVID-19. <https://scholarworks.iupui.edu/bitstream/handle/1805/26934/philanthropy-crisis-nov21.pdf>
- Paarlberg, A., Bergdoll, J., Houston, P., & Kou, X. (2021). Understanding Philanthropy in Times of Crisis: The Role of Giving Back During COVID-19. <https://scholarworks.iupui.edu/handle/1805/26934>
- Venkatachalam, P., Yeh, D., & Memon, N. (2020). Philanthropy and the COVID-19 Response in India, Bridgespan's Mumbai office. <https://www.bridgespan.org/insights/library/philanthropy/philanthropy-covid-19-response-in-india>
- Zaki, J. (2020). Catastrophe compassion: Understanding and extending prosociality under crisis.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24(8), 587-589.
- 고재원 (2021, February 23). 부자나라가 백신을 독점하고 있다. WHO 코백스 물량 부족사태 우려. 동아시아언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4204>
- 노연희 (2020).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일반시민의 기부행동 분석. *NGO 연구*, 15(3), 1-30.
- 노법래, 정진경, 최권호, 이민영 (202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자원봉사활동 변화의 실제-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의 시계열적 추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4(1), 133-155.

2022년
기획연구

Part.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국인 기부 연구: 영국 Z세대의 자선·구호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중심으로



책임연구자 **조익행** 서울신학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책임 연구원

조 의 행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신학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학력

PhD, Politics and Government, University of Kent, Canterbury

주요경력

한국법제연구원 해외위촉조사원
한국인문사회과학회 총무·학술이사
한국사회이론학회 학술이사
(사) SAND연구소 법인이사
경기일보 (前)칼럼니스트

연구실적

「영국의 복지개혁법안 (Welfare Reform Bill) 2011 연구」 『최신외국법제정보』 2011년, 5호.
「영국의 중간 소송 관련 법령과 적용사례」 『최신외국법제정보』 2013년, 7호.
「남겨진 자(Left Behind)들이 이끈 브렉시트(Brexit): 영국 노동당과 블루칼라의 정체성 균열, 그리고 영국 정체성」 『현상과인식』 2016년, 40(3).
「21세기 국제규범으로서의 '정당한 전쟁' : '보호해야 할 책임'이 갖는 논쟁점과 전망」 『현상과인식』 2018년, 42(3).
「더 나은 세계 만들기: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와 미국」 『현상과인식』 2022년, 46(3).

요약

이 연구는 ‘분별력 있는 세대’로 불리는 영국 Z세대의 자선·구호 신뢰도를 검토했다. 영국 Z세대는 전반적으로 밀레니얼 세대와 유사한 행태를 보이지만 이타주의적 성향이 훨씬 강하다. 특히 이성 정치인이나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뚜렷한 주관을 바탕으로 가족과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세대이다. 열정적으로 가족과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열망하는 이들은 자선기관을 둘러싼 여러 스캔들에도 기관 존립 기반인 선한 의도와 존립 목적을 의심하지 않아 왔다. 기부보다는 실천적인 봉사와 참여를 통해 기 투명성에 대한 신뢰와 친밀도를 축적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팬데믹은 이들 세대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으로서 온라인 소액 기부와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는 이들 세대가 갖는 사회적 책무성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기관에 대한 투명성을 확인하고 친밀도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이어지는 팬데믹으로 Z세대는 봉사 시간 확대, 비대면으로 인한 교육 질 저하 및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경험하고 있지만, 지역 기반 중소 기관들은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이 세대의 기관 신뢰도는 2021년부터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영국 비영리 섹터에 대한 Z세대의 신뢰도는 충분한 디지털화와 기관의 관리 매뉴얼 강화 등, 전반적인 혁신과 변화가 수반된다면 다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기부, 자선기관, 영국 Z세대, 디지털 원주민, 자선기관 신뢰도

1. 들어가며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최근 서거했다. 이러한 영국발 소식에 전 세계는 애도를 표했다. 여왕은 해가 지지 않던 세계 최대 제국이 평범한 국가로 품위 있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나라와 국민 그리고 영연방을 지탱해 왔던 상징적인 존재였다. 재위 70년의 한 시대의 끝을 알린 그의 죽음은 영국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갔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국내외 언론 기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영국은 그 수년 전부터 이미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 시작은 브렉시트(Brexit)로 명명된 영국의 유럽 연합으로부터의 탈퇴였다. 좁게는 영국과 유럽의 사건이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소비 심리 위축, 수요 저하 및 환율 변동의 연쇄 반응을 촉발하는 자유무역 질서 퇴조의 신호탄이었다는 의미도 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정치·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았다. 미국 트럼프 정부와 중국의 무역 갈등과 이른바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오랜 불확실성에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요동치길 반복했다. 브렉시트 투표가 있던 2016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일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그 이듬해에는 독일(1.51%)과 프랑스(1.03%)보다 1% 포인트 이상 높은 2.6%였다(OECD Data). 2021년, ‘노 딜 브렉시트’ 우려가 해소되었음에도 트러스 총리의 무리한 감세 정책 실패로 야기된 파운드화 폭락은 영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경제 문제로 이어졌다. 결국 트러스는 임기 45일 만에 낙마한 총리로 이름을 남겼다. 현재 영국인들은 치솟는 물가와 함께 새로운 왕과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트러스 내각이 감세 정책 카드를 꺼낸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지난 2020년 발병한 이래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Covid-19) 팬데믹에 의한 경기 침체였다. 영국 정부의 팬데믹 초기 대응도 나빴다. 집단 면역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은 치참한 실패로 끝났고, 총리였던 보리스 존슨마저 감염되어 자칫 사망할 뻔했다. 이후 여러 차례 이어진 봉쇄령과 거리두기(distancing)는 영국 국민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경제 활동까지 마비시켰다.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은 쪽은 취약 계층과 이들을 돕는 자선·봉사 단체 혹은 기관(이하 기관)을 포함한 비영리 섹터였다. 이들 기관으로 향하던 기부금 상당수가 병원과 국가 의료 체계(이하 NHS)로 향하자 모금에 의존해 오던 비영리 섹터 활동은 난관에 봉착했다. 2020년 기준, 약 163,000개에 이르는 기관이 등록된 비영리 섹터는 영국 GDP의 0.9%를 차지하며 약 95만 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Smith, 2021), 팬데믹은 취약 계층의 생

존과 비영리 존속에 큰 위협이 되었다. 2020년 4월 8일, 리시 수낙 당시 재무장관(현재 총리)이 비영리 섹터에 총 7억 5천만 파운드(한화 약 1조 1천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급하게 발표한 이유도 비영리 섹터의 붕괴를 방조할 때 벌어질 복지와 경제적 영역에서의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발 빠른 영국 정부의 지원은 지역사회 보건과 복지를 담당해 온 중소 규모 기관의 숨통을 틔워줬지만, 배분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투명성 문제 등의 논란이 뒤따랐다. 정부 재정 지원 확대는 팬데믹 이전까지 갖가지 스캔들로 몸살을 앓던 영국 기관의 재원과 그 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House of Common, 2020). 하지만 팬데믹은 이러한 기관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뿐 아니라 영국인의 기부 행태까지 바꾼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했다. 영국의 자선지원재단(Charities Aid Foundation, 이하 CAF)이 매년 발간하는 영국인의 기부 행태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기부자의 감소이다.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기부자의 감소세가 성별, 연령대 및 지역에 걸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팬데믹 초기 잠깐 증가했던 기부액도 시간이 흐르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CAF, 2022). 인플레이션을 참작하면 실질적인 감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부액의 감소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점은 있다.

팬데믹 이전부터 빠르게 활용되어 오던 디지털 방식이 대세이자 가장 중요한 모금 형태로 자리 잡았다. 영국의 전통적인 모금 방식은 행사, 길거리 및 방문을 활용하거나 수표를 보내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야외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과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온 디지털 통신 기술 발전으로 웹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기부의 편의성이 높아졌다(윌글, 20-21). 아울러 주목할 현상 중 하나는 젊은 세대가 - 여전히 기부자의 수는 가장 적지만 - 자선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한 점이다(Chiu, 2021.4.20.). 흥미로운 점은 영국 젊은 세대들은 기부에 가장 덜 적극적임에도 꾸준히, 특히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기관에 대한 젊은 층의 자원봉사 시간이 증가했고 기관에 대한 신뢰도 또한 다른 세대보다 높아졌다는 점이다(CAF, 2022: 25, 28). 경기 침체와 보건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Z세대의 자선과 구호 활동 관련 인식 제고, 즉 신뢰도 향상은 향후 영국의 기부 환경에 일견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세대 기준 가장 적은 기부자 비율과 기부액에도 불구하고 영국 젊은 세대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기부 참여율이 가장 저조한 Z세대가 영국 기부에 있어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영국 젊은 세대의 기관 신뢰도 관련 선행연구는 팬데믹 이전 Z세대와 M세대가 다른 세대 - X세대, 베이비붐 세대 등 - 에 비해 비록 기부액은 적지만 자원봉사, 달리기·걷기 같은 동료(P2P) 기부 및 물품 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라락과 해리슨-번(Lalak and Harrison-Byrme, 2019)의 연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세 연령대 - 16-34세, 35-54세 및 55세 이상 - 중 가장 젊은 그룹의 기관 신뢰도가 다른 비교군과 비교해 비교적 등락이 심하지 않으며, 후술하겠지만 기관 관련 스캔들에도 신뢰도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언급했으나, 주요 논의 대상은 노년층의 조사 기간에서 나타난 신뢰도 추락과 상승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팬데믹 이후 연구로, 디지털 활용에 능한 영국 MZ 세대는 개인적 관심사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습득한 지식 등이 기부 동기이며 그 수단으로 온라인을 선호한다고 결론짓는데, 팬데믹 시대 젊은 층의 기부 동기와 수단의 형태가 이 기간에 확고해졌음을 지적한다(Konstantinou and Jones, 2022). 특히 팬데믹 시대에 대한 젊은 층의 대응에 관한 연구는 주목할 수 있다. 스트로머 등(Strommer et. al., 2022)은 젊은 층은 기존 연구에서 보건 규칙을 가장 지키지 않는다는 일부 연구나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오히려 가족과 사회에 대한 이타적인 참여와 자원봉사에 적극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 젊은 층, 특히 Z세대의 기관 신뢰도 향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후술하겠지만 이 세대는 보건·경제 환경 변화에 가장 취약한 세대인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팬데믹 시대 영국 Z세대의 기관 신뢰도 분석을 위해 우선 분석의 틀로서 영국 젊은 세대, 특히 Z세대의 특성과 신뢰의 개념 및 기관을 신뢰하기 위한 조건을 정리하고, 영국 Z세대와 기관의 관계가 설정되는 과정을 살펴 팬데믹 시대를 겪으며 나타난 이들의 기관 신뢰도의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팬데믹 시대의 Z세대와 신뢰: 분석의 틀

1) 세대 구분과 특성

모든 사람이 같은 사고와 행동을 보이진 않는다. 그래도 비슷한 나잇대의 사람은 사고와 행동에 있어 유사한 점이 많다. 공동체 속에서 같은 정치, 경제 및 사회적 환경을 공유하는 집단은 유사한 정체성을 갖는다. 특히 시간적으로도 같이 성장한 연령 집단의 사고와 행동에는 더 큰 유사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즉, 사회 속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 혹은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나이는 개인뿐 아니라 같은 나잇대의 사고와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준거가 되므로, 보통 같은 시기에 태어나 유사한 경험을 한 집단을 세대라고 지칭한다(박민진 외, 2021: 123). 그런데 이 글의 연구 대상인 젊은 층 - 특히 Z세대 - 은 연구 대상으로서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 최근 젊은 층을 세대로 분류할 때는 일반적으로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와 Z세대(Generation Z)를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MZ세대로 부른다. 최대 20살 이상 차이가 나며 그 기준 또한 측정 기관마다 다른 이 두 세대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 데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표 1〉 기관별 세대 구분

구분	퓨 리서치 (Pew Research)	맥킨지 (McKinsey&Company)	딜로이트 (Deloitte)
Z세대	1996년 이후 출생	1995년-2010년 출생	1995년 이후 출생
밀레니얼 세대	1981-1996년 출생	1980년-1994년 출생	1994년-2003년 출생

하지만 이러한 이론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일반적으로 한 연령대로 묶곤 한다. 세계적으로도 동일 세대로서 같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45개국의 MZ세대의 특성을 분석해 종합한 딜로이트 보고서(2021)가 글로벌 영역에서 팬데믹을 거치면서 공고해졌다고 언급한 MZ세대의 공통적인 특성 중 주요한 몇 가지를 꼽아보겠다.

첫째, 팬데믹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들 젊은 세대는 보건 문제뿐 아니라 고용 불안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로 정신 건강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41%와 Z세대의 46%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둘째, 이 세대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에 민감한데, 특히 회사의 고위 경영진과 부유층의 탐욕과 사리사욕, 그리고 그들에게 우호적인 법률과 정책이 이러한 경제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영국이 속한 중유럽 젊은 층에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셋째, 글로벌 젊은 세대는 공통으로 이들이 옳다고 느끼는 신념을 실천하며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이를테면 경제적으로는 팬데믹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한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는 가치 중심적 소비를 선택하고, 정치적으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직자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는 비율도 높았다. 특히 Z세대는 선배 세대와 비교해 더욱 적극적으로 시위나 행진에 참여한다. 넷째,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경제적 활동 제한 조치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명백해지면서 지구 환경 개선에 대한 낙관론 - 특히 Z세대의 기대감 - 이 강해졌다. 따라서 이들 세대는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 제공이 구매의 주요 고려 요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 앞선 셋째 논의와 어느 정도 연장선에 있는 특성으로 - 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이와 같은 문제가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¹⁾ 이들의 문제의식을 실천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해준 도구로서 모바일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는 이들 세대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매개체이다. 딜로이트 보고서는 MZ세대를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소셜 미디어와 함께 자란 세대다. 이러한 통로를 통해 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멀리 떨어진 사람 및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었다. 이러한 힘이 이들 세대의 세계관과 가치, 행동을 형성하고 있다. 키보드와 스마트폰을 무기 삼아 세계를 연결하고 화합하여 창조적 파괴에 나서는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들의 움직임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덧글: 3).

이렇듯 미국과 인도에서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으로 일컬어지는 젊은 층, 특히 Z

1) 다만 한국의 젊은 세대는 사회적 차별이나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으나 다른 국가의 동일 세대와는 달리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위의 보고서는 제시하고 있다.

세대를 각각 'iGen'과 'Digizens'으로 부르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 세대에는 다른 세대와 구분할 수 있는 '주류이면서도 [한 발] 비켜 있는(mainstream but exiled)' 행동 같은 독특한 특징을 또한 갖고 있다. 즉, 젊다는 의미에서는 주류이지만, 전통적으로 젊은이들이 주도했던 패션,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흐름에는 조금 덜 관심을 주고, 오히려 가족, 친구, 직업 및 좋은 환경 속에서의 좋은 삶(wellbeing)에 더 큰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이렇듯 현실 문제에 관심을 둘 뿐 아니라 행동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Z세대를 '[사회적] 권력을 갖는 세대(empowered generation)'로도 부른다(KPMG, 2011). 이들이 다른 세대와 뚜렷이 다른 특성을 갖는 이유는 성장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불안정을 오롯이 겪어 왔기 때문이다. 영국을 포함한 서유럽의 경우에는 2007-8년의 경제 위기, 난민 문제, 기후 변화, 팬데믹과 최근의 유럽에서의 전쟁 등을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팬데믹 시기 동안 재정적 여건으로 인한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 - 자원봉사 활동, 환경·인권·사회 문제 관련 소셜 미디어 게재 및 자선 활동을 위한 모금 분야 -에서 이러한 이슈에 직면했을 때 밀레니얼 세대보다 조금이나마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딜로이트, 2021: 33 인포그래픽 참조).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이전 세대가 “삶의 기쁨(having a good time)”을 추구하는 것에 비해 학업과 학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더 나은 세계를 갈망”하는 “분별력 있는 [혹은 실용적인] 세대(generation sensible)” 한다(Davids, 2022.8.16.).

2) 신뢰의 조건

앞서 지적한 것처럼 Z세대, 특히 '분별력 있는' 영국 Z세대가 갖는 특징 중 하나로 비영리 섹터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신뢰의 의미는 무엇일까? 고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신뢰는 상대 혹은 단체가 약속대로 행동하고 처신할 것이라는 믿음(Deutschi, 1960)으로, 일반적으로 개인 사이 혹은 개인과 회사나 국가와 같은 조직 사이와 같은 다양한 관계에서 나타나 상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혹은 행동으로 귀결되게끔 작동하는 기제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신뢰의 개념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루어지므로 이 연구의 논의에 맞게 그 개념을 좁힐 필요가 있다.

김기석(2020: 17)은 그의 연구 주제인 시민과 비영리 섹터 - 정확하게는 구세군 - 사이의 신뢰를 검토하는 데 있어 한 선행 연구가 제시한 신뢰 개념 활용의 적절성을 제시한다. 강철희와 이상철(2013)이 제시한 신뢰의 3가지 유형 - '대인간 신뢰', '특정 집단에 대한 신뢰' 그리고 '보편적 신뢰' -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신뢰를 활용한다. '대인간 신뢰'는 이상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상대에 대한 믿음이지만, 이와 같은 합리적 판단을 이끌 정보가 부족할 때 신뢰의 정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달리 말해, 때때로 모르는 사람 혹은 집단을 위해 도움을 주는 이타적인 행위를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에 반해, '특정 집단에 대한 신뢰'의 의미는 한 개인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 내 다른 구성원과의 정체성 동일시(identification)를 통해 쉽게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확장할 수 있지만, 그 외 집단 혹은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쉽게 타자화 혹은 배제하곤 한다. 세 번째인 '보편적 신뢰'는 오랜 시간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가치와 긍정적인 세계관 등에 기반해 낯선 타자에게도 선의(good will)를 실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집단 정체성과 선의에 기반한 신뢰는 이 글의 주제인 이타주의적 존재로서 가치를 지닌 자선·구호 기관에 대한 한 집단, 즉 특정 세대가 갖는 신뢰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분석의 틀이 될 수 있다. 개인적이면서도 가족, 친구 또는 환경과 같은 '나' 그리고 '나' 주변의 공동체의 문제를 직면해 온 '분별력 있는 세대'는 이타적인 실천과 행동을 통해 변화를 모색해 온 집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대 특징이 곧 적극적인 자선 행위의 동기로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기관에 대한 기부자의 신뢰는 지속적인 모금이 이루어지는 데 필수적이지만 기부와 자원봉사 등의 행동으로 반영되기까지 다양한 요인, 즉 신뢰를 높이기 위한 선행 요인 혹은 전제 조건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Torres-Moaga et al, 2010).

첫째, 기관의 투명성은 가장 중요한 선행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기부자들은 그들이 낸 기부금이 정당하게 쓰였는지 알고 싶어 한다. 김경호와 김영기(2014)는 기부자와 기관 사이 의사소통의 질이 좋을수록 후자에 대한 전자의 신뢰가 높아진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의사소통의 질이 좋다는 것은 기부금 활용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향후 기부 행위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는 모든 기관이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접근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기부

자와 공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탁기관의 책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나의 기부가 현장에서 눈에 보이게 쓰이는 것”이 기부자에게 있어 투명성이라는 뜻이다(아름다운재단, 2017). 변화에 대한 욕망이 강한 젊은 기부자일수록 행동으로 인해 나타난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디지털 기술에 의한 신뢰도 향상이다. 팬데믹의 환경은 디지털 매체에 기반한 다양한 모금 방식 도입의 속도를 엄청나게 끌어올렸다. 이를테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디지털 광고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클라우드펀딩이나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모금 또한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최근 추세는 앞서 논의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 방안으로 기관 홈페이지나 소셜 미디어에 기부금을 통해 수혜대상자의 변화를 디지털 영상화한 서사를 직접 업로드 및 공유함으로써 기부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박미희 외, 2022). 사실 영국의 경우 약 59%가 팬데믹 직전까지 이러한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전략도, 이를 적용하기 위한 투자도 부족했다(Gilliland, 2019). 따라서 팬데믹을 거치면서 영국의 기관들이 디지털 원주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정립했는지 살펴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기관에 대한 기부자의 친숙함 혹은 친밀도가 신뢰도에 끼치는 영향이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이 높아질수록 신뢰도는 높아지듯이, 충분한 정보, 지식 및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한 자선기관에 대한 기부자의 이해는 신뢰도 상승으로 연결된다(Sargeant and Lee, 2002; Torres-Moaga et al, 2010). 또한, 기부자와 기관과의 정체성 일치와 기부를 통해 획득한 정서 및 감정적 친밀도는 향후 지속적이고 원활한 향후 기부를 위한 전제 요인이므로,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활동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김준희, 2012). 이는 달리 말해, 기부자와 기관의 친밀도 및 신뢰도 향상은 기부자보다는 기관의 적극적인 의지와 수행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기관에 대한 젊은 기부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위의 세 가지 선행 요인이 실제 모금이나 기부 그리고 자원봉사의 환경에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은 비록 혼합된 방식일지라도 팬데믹 이후에 젊은 기부자와 자선기관의 신뢰도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준거의 틀이 될 것이다.

3. 영국 자선 단체의 신뢰도 문제와 젊은 세대와의 관계

자선과 기부 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영국에서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또한 꾸준하게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1960년에 처음 ‘자선단체법(Charities Act)’을 제정한 이래 시대적 변화와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부합하도록 여러 차례(1993년, 2006년, 2011년 및 2022년)에 걸쳐 개정했다. 특히 ‘자선단체법’을 처음 제정했을 때부터 독립적이고 일원화된 민간 차원의 규제를 위해 ‘자선단체 위원회(Charity Commission)’를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 특히 탈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국 정부는 ‘자선기관과 신탁기관의 근무자 보호를 위한 안전 지침(Safeguarding and protecting people for charities and trustees, 2017, 이하 안전 지침)’을 마련해 자선·구호 활동 중 이들 기관과 접촉하는 자원봉사자와 직원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이러한 자선·구호 비영리 섹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민이 이들 기관에 가진 신뢰도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영국 정부에서 시행해 온 비영리 섹터에 대한 신뢰도 조사(Public trust in charities, 2022)에 의하면, 영국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 평균은 6.2(0-10점의 11점 척도로, 10에 가까울수록 신뢰함)로 의사(7.2) 다음으로 두 번째였다. 경찰(5.8), 은행(5.6)과 비교해도 높으며 특히 언론(3.9), 국회의원(3.4) 및 영국 정부(3.2)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 중 자선·구호 기관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신뢰도 수치는 2005년(6.3)과 비교해도 큰 변화가 없었다(〈표 2〉 참조).

〈표 2〉 자선·구호 기관에 대한 영국인들의 신뢰도(0-10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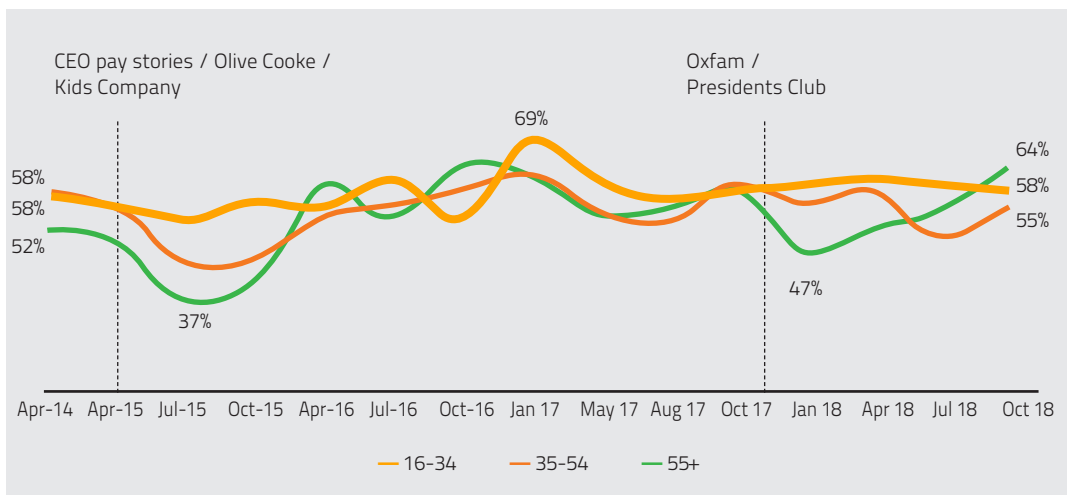
연도	2005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1	2022
평균	6.3	6.6	6.7	6.7	6.7	5.7	5.5	6.2	6.4	6.2

* 출처: 비영리 섹터에 대한 신뢰도 조사(Public Trust in Charities) (2022), 22쪽.

〈표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관에 대한 영국인들의 신뢰도가 팬데믹 기간 중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겨우 2005년도 수준을 회복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해, 팬데믹 기간 중 다시 범국가적으로 왕성해진 기부와 자선, 봉사 등을 통해서 겨우 약 15년 전의 신뢰 수준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세대별로 신뢰도는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표 3〉 참조).

이러한 불신의 원인은 모금 과정과 기관의 투명성 및 신뢰도 하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사고 등이 2015년에 발생한 - 전화 수신자가 알츠하이머병 투병자이거나 이와 같은 취약 계층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기부를 중용함 - 이후 이어져 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영국 기반의 7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표적 기관인 이른바 ‘옥스팜 스캔들’의 여파는 대중 신뢰도 추락의 결정타였다(Brindle, 2018.2.18.). 아이티 강진 발생 이후 현장에서 활동하던 옥스팜 직원 4명이 해고된 사건인데, 더 큰 문제는 그 이전부터 성매매 의혹이 내부 고발을 통해 제기되었음에도 조직 차원에서 무마했을뿐더러 경영진이 이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아이티 책임자로 임명한 것도 드러났다. 그 결과 옥스팜에 기부해 왔던 대기업이 기부를 취소했고 스캔들 보도 이후 10일 만에 약 7천 명의 개인 기부자도 기부를 철회했다. 영국 비영리 섹터를 총괄하는 ‘자선단체 위원회’는 옥스팜을 국정 감사했다(주선영, 2018.4.5.). 영국 자선위원회가 2017년에 안전 지침을 만든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표 3〉 연령대별 기관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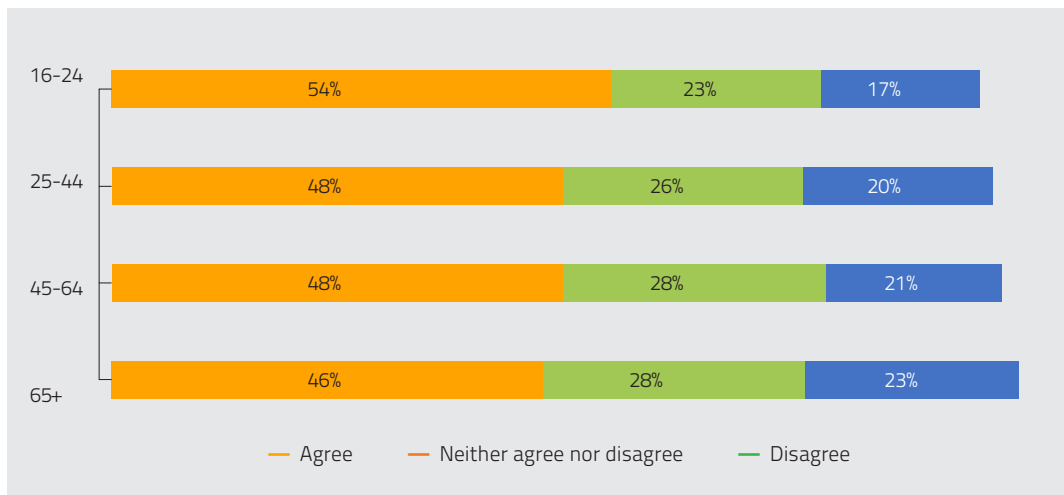


* 출처 : Charity Awareness Monitor, 2014-2019

영국 국민이 기관에 기대하는 것은 간단하다. 첫째, “기부·모금한 돈이 높은 비율로 자선 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 둘째, “기관이 기부자들에게 약속한 결과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창출할 결과는 ‘자선(charity)’의 정신과 일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기관은 위의 [세 가지] 사항을 준수하여 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Public trust in charities, 2022: 22). 취약 계층에 대한 교묘한 전화 기부 유도나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비영리기관 옥스팜 사례에서 나타난 자정능력 부재는 팬데믹 이전 수년 동안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 자선·구호 기관에 대한 영국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제도·법률적 정비와 이들 기관에 대한 사회적 감시 또한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옥스팜 스캔들’의 성매매 사건이 언론에 의해 자극적으로 다루어진 것 역시 사실이다. 하지만 55세 이상 기부자들은 주로 자신들이 기관에 대해 지니고 있던 위의 4가지의 기대와 믿음이 기관의 비윤리성에 의해 배신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신뢰도가 특히 폭락했다(Lalák and Harrison-Byrne, 2019). 하지만 영국 기관의 이어지는 추문과 사고에도 Z세대 포함 젊은 층의 기관 신뢰도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고, 2019년에 들어서면 젊은 층, 특히 Z세대의 기관 신뢰도는 다른 세대보다 높게 측정되었다(〈표 4〉 참조).

〈표 4〉 성별 및 나이별 기관 신뢰 지수 비교, 2019



* 출처: CAF UK Giving (2019), 19쪽.

〈표 3〉과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젊은 세대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비교적 일관되고 다른 세대에 비해 안정적이면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기관과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없다. 이와는 별도로 기관들이 젊은 층과 새로운 관계 설정 및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 등을 모색해 친밀도를 높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라메지(Ramage, 2013)은 일부 모범적인 기관과 청소년 접목 사례를 소개하며 기관 차원에서 어떻게 젊은 층과의 관계를 설정했는지를 제시한다. 첫째, 직접적인 모금보다는 사회적 이슈에 민감한 젊은 층이 기관의 활동에 참여할 명분을 제공했다. 즉, 기관이 모금 그 자체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특정한 이슈와 맞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상보다는 그 원인부터 이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만 젊은 층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들은 특히 또래 그룹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관들의 젊은 층을 흡수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이 학교를 찾아가 교사를 통해 활동했던 것이었으나, 점차 젊은 층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전략을 바꾸었다. 무엇보다 높은 학비와 생활비로 고통받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금전적인 기부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환경 변화 역시 고려해야 했다. 젊은 층의 참여 방식은 재정적 기부보다는 자원봉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실제로 16세에서 24세 사이의 33%가 2019년, 지난 6개월 동안 자원봉사를 했다고 답했는데, 이것은 2018년 조사와 비교해 27%가 높아진 수치이며, 다른 세대와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자원봉사에 할애할 수 있었다(ThirdSector 2019).

둘째, 젊은 층의 활동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 즉 투명성 제고이다. Z세대는 수혜자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나 현장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 때 매우 강력하게 반응하는 연령층이기 때문이다. 디지털과 소셜 미디어의 활용은 청년층이 빠르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Ramage, 2013). 셋째, 디지털 전환을 꿈꿀 수 있다.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특히 모금의 디지털화는 필요했다. 이를테면 간소화된 애플리케이션의 활용은 자원봉사자와 필요한 기관의 연결성을 높였고, 적십자나 세이브더칠드런과 같은 대형 기관 중심이기는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으며, 이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결제를 통해 기금의 활용에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젊은 층의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환경 변화였다(Gilliland, 2019). 따라서 젊은 층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 유지, 참여에 대한 명분, 결과에 대한 확신 및 디지털 기기라는 수단, 이러한 세 요인이 충분하게 결합이 되었을 때 비로소 모금에서의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팬데믹 이전까지 영국 Z세대를 포함한 젊은 층은 다른 세대와 달리 자원봉사를 바탕으로 한 실천적인 참여를 통해 기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섭렵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직접적인 활동과 결과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증명되는 과정,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는 기술이 서서히 비영리 섹터에 도입되는 과정을 통해 비영리 섹터가 젊은 층의 신뢰를 다른 연령 그룹과 비교해 어느 정도 회복할 발판이 마련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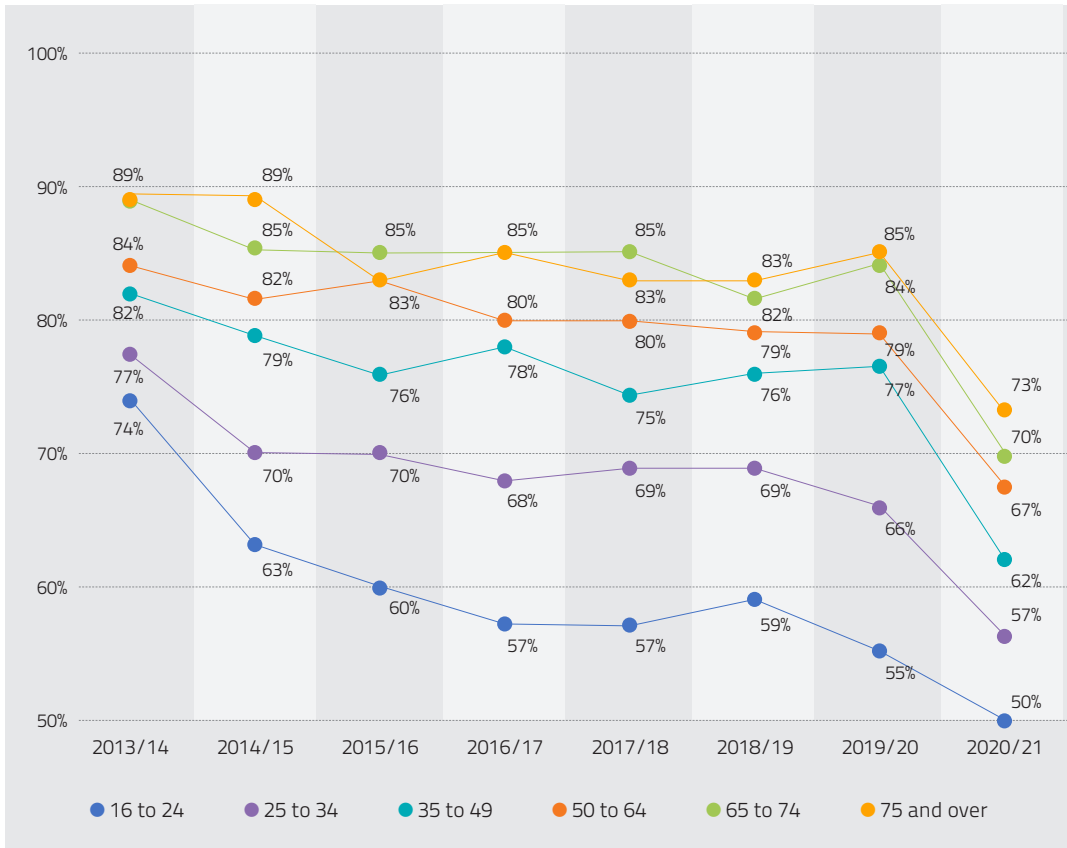
4. 포스트 Covid-19 시기 영국 Z세대의 자선·구호 기관 신뢰도

팬데믹이 영국 기부 관련 환경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인 것은 분명하다. 이 글의 서두에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표면적인 현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부와 모금 방식의 변화이다. 길거리 모금, 방문 및 모금 행사 등이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이유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2019년에는 현금 기부가 51%를 차지했었으나 2020년 5~6월에는 9%까지 떨어졌다. 봉쇄와 거리두기가 완화된 2021년 8월이 되어도 18% 정도에 그치고 있다. 온라인 방식의 기부 확대가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은 Gift Aid²⁾의 확산에도 어느 정도 이바지한 것이다. 2018년과 2019년에는 Gift Aid 사용이 각각 51%와 53%에 지나지 않았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55%와 61%로 증가했다. 디지털 기부로의 전환이 Gift Aid 작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CAF, 2021). 아울러 자원봉사자와 도움이 필요한 기관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서비스가 더 많은 사람을 자원봉사로 활동할 수 있게 도왔으며, 자선·구호 기관 또한 그들의 웹사이트의 기능을 강화하고 비대면 회의나 가상 행사 등을 늘렸다(Chiu, 2021.4.20.).

2) Gift Aid는 영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기부 촉진 제도로, 기부할 때 개인신상명세와 수탁기관명을 Gift Aid 신고서에 작성하면, 그 기관은 기부금의 25%의 금액을 정부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40% 이상 세율 납세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낸 금액 일부를 환급 받을 수도 있다.

또 다른 변화는 기부자 수의 감소이다. 팬데믹 기간 중 세대에 따른 기부자 수의 극적인 감소를 알 수 있는데,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팬데믹 이전인 2018년~2019년과 비교할 때, 2021년~2022년까지 약 10% 정도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표 5〉 참조). 다만 기부금 총액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 -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감소 - 은 소수 기부자에 의한 기부액의 증가 때문이다(Ferrell-Schweppenstedde, 2021). 한편 기부금은 팬데믹 이전부터 가장 많이 모금되던 동물 보호 관련 기관으로 더 많이 전달되었으나(28%), 어린이·청년(23%), 의료 연구(21%) 및 병원과 호스피스 관련 기관과 시설(18%)로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줄었다(CAF, 2022: 15-17).

〈표 5〉 2013/14년부터 2020/21년까지 자선 단체에 기부한 영국 인구의 백분율(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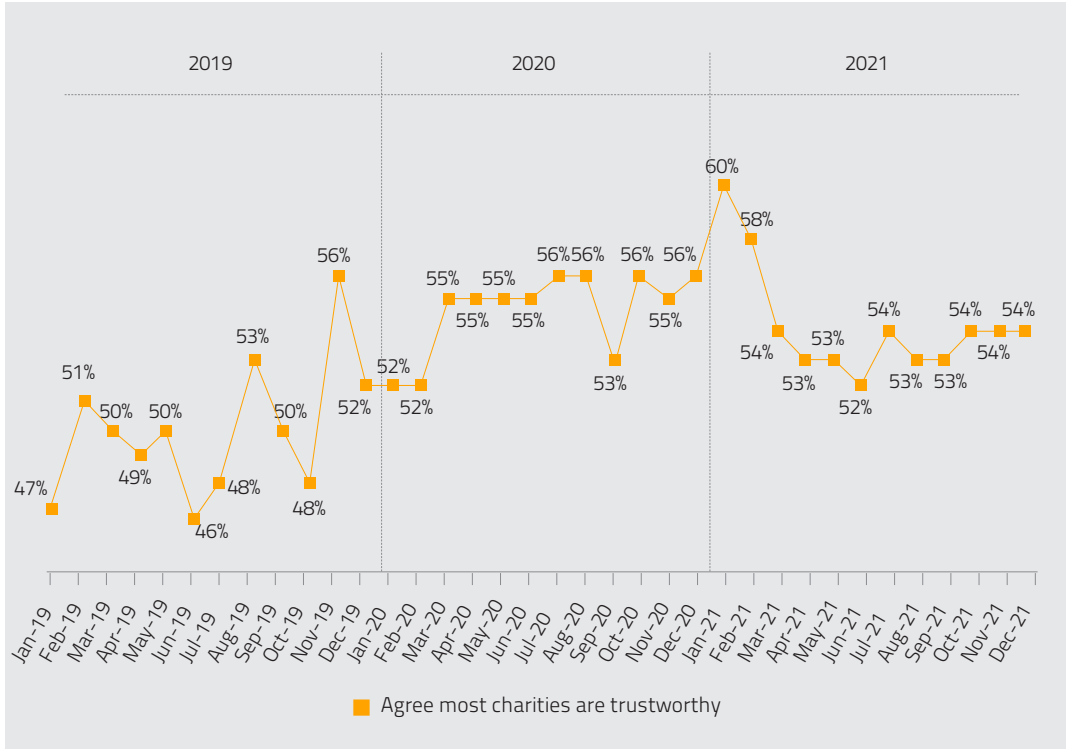


* 출처: Statista (2022).

이와 같은 전반적인 기부 형태의 변화 속에서 젊은 세대의 기부 역시 전체적인 추세를 따르기는 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었다. 나이별 큰 차이점 중 하나는 Z세대의 기부는 동물 복지보다 이들의 관심사인 건강(mental and health) 관련 기관에 더욱 기부를 집중하는 형태를 보인다는 점이다(윗글: 16-18). 그리고 이들은 65세 이상의 베이비 붐 세대보다 윤리적인 상품을 구매하는 데 더 적극적이지만(31% vs. 22%), 기관에 물품을 기부하는 데에는 덜 열성적이다(25% vs. 58%)(윗글: 9). 그렇다면 <표 5>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부를 덜 하는 영국 Z세대의 팬데믹 시대 높은 기관 신뢰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팬데믹으로 인해 부족한 자원봉사 영역은 영국 젊은 층의 평소 신념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 살아 있는 현상이었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거리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채리티 가게(charity shops)에서 자원 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CAF, 2022: 25). 직접적인 기관 참여는 Z세대가 품고 있었던 가치와 신념을 현실 세계에서 발휘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젊은 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은 기부자의 수와 기부액은 다른 세대와 비교해 낮은 원인이기도 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팬데믹 기간 중 더욱 강화되었다. 2020년 이후 더욱 침체한 경제 상황 속에서 영국인의 27%는 친구 혹은 가족이 실제로 공과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13%는 공과금 부담으로 자선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줄일 것을 고민하고 있고, 4%는 아예 그동안 해 왔던 기부를 중단했다(CAF, 2022; Donor Pulse, 2022: 16-23). 앞서 언급했듯이 높은 생활비와 학자금 등으로 압박 받는 젊은 층이 느끼는 경제 문제는 은퇴 이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에 비해 훨씬 크다. Z세대가 기부보다는 자원봉사 현장에 실질적인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현실이기도 했다.

〈표 6〉 기관 신뢰도 추이, 2018-2021



자료: CAF (2022), 28쪽.

〈표 7〉 Z세대의 기관 신뢰도 변화, 2018-2021(%)*

연령대\연대	2019	2020	2021
16-24	53	62	57
65+	49	53	53

*출처: CAF (2022), CAF (2021).

하지만 젊은 세대의 기관 신뢰도는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졌던 팬데믹 첫해와 비교해 다시 낮아졌다. CAF(2022: 28) 보고서에서 제시한 2021년과 2022년 사이의 기관 신뢰도는 약간 하

락한 것과 비교해 Z세대의 신뢰도 내림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65세 이상과 약 10% 가까이 차이가 났던 기관 신뢰도가 2021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비슷하게 좁혀진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역 기반의 중소형 기관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척되지 않았다. 이를테면 기부·모금의 디지털화는 젊은 층의 참여를 늘리는 중요한 수단인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기관의 62%가 온라인으로 전환하지 못했다(CAF, 2021). 강한 사회적 책임감과 연대 의식을 배양해 온 영국의 ‘분별력 있는 세대’는 팬데믹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가족과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때로는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던 2020년 상반기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모바일을 통한 기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Chiu, 2021). 실제로 2020년 초기 16세에서 24세의 자원봉사 참여 증가율은 40%에 달했다(Roche, 2020). 이러한 행동이 이들이 가족과 사회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방식이기 했다. 2020년의 높은 신뢰도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지역 기반 중소형 기관의 늦은 디지털화는 이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더라도 할 수 없도록 했다(Strömmer, 2022 참조). Z세대와 기관을 매개하는 기술의 적용이 알려진 것만큼 빠르지는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클라우드펀딩이나 블록체인 기술은 일반적으로 기관 신뢰도를 높이는 수단이지만 - 경제적 이유 때문에라도 -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소액을 기부하는 이 세대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둘째,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젊은 세대의 과부하를 꼽을 수 있다. Carers Trust가 2020년 상반기에 시행한 설문조사는 팬데믹 발발 이후 돌봄 영역에서 활동한 18세부터 25세의 젊은 봉사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점을 일찍 경고했다.

이들 59%가 정신 건강이 나빠졌음을 느끼고 있으며, 74%는 이전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 78%는 팬데믹 종식 이후 미래를 걱정하고, 69%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고립감을 겪고 있으며, 19%는 주당 돌봄 시간이 30시간 이상 증가했다. 10시간 이상 증가한 비율도 63.6%이다 (Carers Trust, 2020).

Young Mind(2021)의 조사 결과 역시 비슷하다. Z세대를 포함한 13세에서 25세 사이의 응답자의 67%가 팬데믹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교육과 취업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 기반의 중소형 기관이 재정 및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 이들의 정신·신체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이타주의적인 마음으로 헌신해 왔으나, 팬데믹 시대가 지속되면서 이제는 이들 역시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2021년에 나타난 Z세대의 기관 신뢰도 감소는 이와 같은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나가며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 변화의 문제점을 세계적으로 이슈화시킨 아이콘이다. 물론 국내에서는 이 아이에 대한 인식이 꼭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그의 사례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젊은 세대가 내는 목소리는 우리 인류 사회에서는 기성세대의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달리 말해, 젊은 세대가 사회에 바라는 이타주의적인 순수함이 지난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의 Z세대는 이와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류의 장래가 마냥 어둡지만은 않다.

영국의 Z세대 역시 마찬가지이다. ‘분별력 있는 세대’로 불리는 영국 Z세대는 팬데믹 이전부터 가족과 사회의 변화를 열망하는 젊은이들이었다. 기성 정치인이나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뚜렷한 주관을 바탕으로 가족과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는 의지가 강한 세대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어지는 사건·사고에도 기관의 존립 이유이자 목적인 선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았다. 기부보다는 실천적인 봉사과 참여를 통해 기관과의 친숙함을 축적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세대와 비교해 높은 기관 신뢰도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 또한, 팬데믹은 이들 세대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온라인 소액 기부와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는 이들 세대가 갖는 사회적 책무성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기관에 대한 투명성을 확인하고 친숙도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봉사 시간 확대, 비대면으로 인한 교육 질 저하 및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기반 중소 기관들은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신뢰도가 다시 하락하게 만든 배경이기도 했다. 최근 영국 비영리 섹터는 Z세대의 참여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제시되고 있는데(CivilSociety, 2022 참조), 이러한 변화는 향후 젊은 층의 기관 신뢰도 상승과 더불어 더 나은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러한 영국의 사례는 미래의 기부자와 참여자로서 품어야 할 한국 Z세대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Z세대로서의 공통점과 한국의 세대 특수성 분석을 통해 이들의 참여와 기관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수립에 영국 Z세대와 기관의 관계는 많은 함의를 제공한다.

참고문헌

- 강철희&이상철(2013). “한국인의 보편적 신뢰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시민의 사회참여행동과 사회적 불평등 인식의 영향력 검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제15권 4호, 1-28쪽.
- 김경호&김영기(2014). “노인요양시설의 사업성취도와 의사소통의 질이 기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신뢰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제16권 1호, 29-53쪽.
- 김기석(2020). 비영리자선단체에 대한 시민의 신뢰 영향 요인 - 구세군 기관을 중심으로 - 명지대학교 사회복지학 학과간 협동과정 박사학위 논문.
- 김민진 외(2021). “미래세대의 행복과 영향 요인 연구: MZ세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회, 제4권 4호, 121-147쪽.
- 김준희(2012). “개인기부자들의 관계의 질과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8호, 129-139쪽.
- 딜로이트(2021). “딜로이트 글로벌 2021 MZ세대 서베이: 책임과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 <https://www2.deloitte.com/kr/ko/pages/consumer/articles/2021/20210706.html> (2022.10.23.)
- 박미희, 노연희, 박란희 외(2022). 『확장되는 세계, 일상이 되는 기부』, 서울: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주선영, 『더 나은 미래』 2018.4.5. 일자 공익뉴스: [해외 비영리 포커스] 76년 역사 ‘옥스팜 스캔들’이 주는 교훈. <https://futurechosun.com/archives/32852> (검색일 2022. 10. 20)
- 전형경, 이영주, 장윤주(2017). 『국내 비영리조직 투명성에 관한 인식 조사: 기부자, 일반인, 언론, 실무자의 관점 비교』, 서울: 아름다운재단 연구교육팀
- Brindle, David, 『the Guardian』 2018.2.13. 일자 News: Oxfam scandal is a body blow for the whole UK charity sector. <https://www.theguardian.com/voluntary-sector-network/2018/feb/13/oxfam-scandal-body-blow-uk-charity-sector-sport-relief>
- CAF(2022). “UK Giving Report 2022”, <https://www.cafonline.org/about-us/publications/2022-publications/uk-giving-report> (검색일: 2022.10.20)
- CAF(2021). “How has the pandemic impacted our behaviours in giving to charity?”, <https://www.cafonline.org/about-us/blog-home/how-has-the-pandemic-impacted-our-behaviours-in->

giving-to-charity (검색일: 2022.10.30)

Carers Trust(2020), “Our survey on the impact of Coronavirus on young carers and young adult carers” , (검 색 일: 2022.10.31)<https://carers.org/what-we-do/our-survey-on-the-impact-of-coronavirus-on-young-carers-and-young-adult-carers->

Chiu, Christine, 『Charity Digital』 2015.7.10.일 자 News: How has donor behaviour changed since COVID-19?: <https://charitydigital.org.uk/topics/topics/how-has-donor-behaviour-changed-since-covid-19-8727> (검색일: 2022.10.15)

Civil Society(2022), “Free guide launched to help charities recruit young trustees” , <https://www.civilsociety.co.uk/news/free-guide-launched-to-help-charities-recruit-young-trustees.html> (검색일: 2022.11.2)

Davids, Joe, 『Mail Online』 2022.8.16일자 Health: “Gen Z-ero fun: Young Brits drink less alcohol than previous generations because ‘they’ re worried about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rather than having a good time” ,

Dean, Jon(2020), “Student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charity on social media: the authenticity of offline networks in online giving,” Voluntary Sector Review 11(1), pp.41-57.

Econsultancy(2019), “How digital technology is impacting the charity sector” , <https://econsultancy.com/digital-technology-impacting-charity-sector/> (검색일: 2022.10.18)

Ferrell-Schweppenstedde, Daniel(2021), “How has the pandemic impacted our behaviours in giving to charity?” , 『CAF』 : <https://www.cafonline.org/about-us/blog-home/how-has-the-pandemic-impacted-our-behaviours-in-giving-to-charity> (검색일: 2022.10.31)

Gorczyca, Matthew and Rosanne L. Hartman(2017), “The New Face of Philanthropy: The Role of Intrinsic Motivation in Millennials’ Attitudes and Intent to Donate to Charitable Organizations” , Journal of Nonprofit & Public Sector Marketing, 29(4) pp.415-433.

House of Commons(2020),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tee, The Covid-19 crisis and charities: The First Report of Session 2018-21” , <https://committees.parliament.uk/publications/938/documents/7200/default/> (검색일: 2022.9.15)

- KPMG(2021), “Reaching Gen Z in the time of Covid” ,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21/11/kpmg-gen-z-article.html> (검색일 2022.10.18)
- Mojay-Sinclare(2022), Donor Pulse: Summer Edition 2022: Insights from Enthuse Intelligence, London, Enthuse: https://enthuse.com/wp-content/uploads/2022/07/DP8-Summer-2022_06-compressed.pdf (검색일: 2022.9.10)
- OECD Data(2022), “Inflation(CPI)” , <https://data.oecd.org/price/inflation-cpi.htm> (검색일: 2022.10.4).
- Populus(2020), Trust in Charities 2020—overview of findings, Charity Commission, London, HM Government assets publishing servic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97204/Public_Trust_in_Charities_2020_overview_of_findings.pdf (검색일: 2022.10.2)
- Prospect(2021), “Overview of the UK charity sector” , <https://www.prospects.ac.uk/jobs-and-work-experience/job-sectors/charity-and-voluntary-work/overview-of-the-uk-charity-sector> (검색일 2022.10.14.)
- Roche M(2020), “Are young people replacing older people as the key volunteering group?” , 『nfpSynergy』 : <https://nfpsynergy.net/blog/are-young-people-replacing-older-peoplekey-volunteering-group> (검색일: 2022.11.1)
- Rovner, Mark et al(2017), The Next Generation of UK Giving: The Charitable Giving Habits of Generation Zers, Millennials, Generation Xers, Baby Boomers and Matures, London, Balckbaud Institute: <https://wwwfriise.cdn.triggerfish.cloud/uploads/2018/09/the-next-generation-of-uk-giving.pdf> (2022.9.10.)
- Sargeant, A. and S. Lee(2002), “Improving Public Trust in the Voluntary Sector: An Empirical Analysis” ,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7(1), pp.68-83.
- Meade, Aimee, 『The Guardian』 2015.7.10일자 News: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the charity fundraising crisis. <https://www.theguardian.com/voluntary-sector-network/2015/jul/10/everything-you-need-to-know-charity-fundraising-crisis> (검색일: 2022.9.9)

Statista(2022),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in England who gave to charity from 2013/14 to 2020/21, by age group” ,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92936/giving-to-charity-in-england-by-age/>

Strömmer, Sofia T. and Divya Sivaramakrishnan and Sarah C. Shaw(2022), “Young people’s experiences of COVID-19 messaging at the start of the UK lockdown: lessons for positive engagement and information sharing,” BMC Public Health, 352, pp.1-19.

ThirdSector(2019), “Young people want to give – but not necessarily money” , <https://www.thirdsector.co.uk/young-people-want-give-not-necessarily-money/fundraising/article/1584784> (검색일: 2022.10.20)

Torres-Moraga, Eduard and A. Z. Vasques-Parrag and C. Barra(2021), “Antecedents of donor trust in an emerging charity sector: the role fo reputation, familiarity, opportunism and communication” , Transylvanian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26, pp.158-177.

2022년
기획연구

Part. 3

NPO의 블록체인 활용 및 실행방안: 가상자산 기부를 중심으로



책임연구자 **강형구** 부교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파이낸스 경영학과

공동연구자 **신은정** 조교수, 백석대학교 첨단 IT학부 핀테크 전공

공동연구자 **장윤주** 간사,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





책임연구원

강 형 구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파이낸스 경영학과 부교수

학력

듀크대학교 류쿠아 경영대학 박사

주요경력

이화여자대학교, 리만브라더스

연구실적

- Olga Hawn, Hyoung-Goo Kang , (2018), The Effect of Market and Nonmarket Competition on Firm and Industr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Sinziana Dorobantu , Ruth V. Aguilera , Jiao Luo , Frances J. Milliken (ed.) Sustainability, Stakeholder Governanc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dvances in Strategic Management, Volume 38) Emerald Publishing Limited, pp.313 - 337
 - Kang, H. G., Woo, W., Burton, R. M., & Mitchell, W. (2018). Constructing M&A valuation: how do merger evaluation methods differ as uncertainty and controversy vary?. Journal of Organization Design, 7(1), 2.
-



공동연구원

신은정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백석대학교 첨단 IT학부 핀테크 전공 조교수

학력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재무금융 박사
Duke University MBA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사

주요경력

씨티은행
솔루스플러스

연구실적

- 신은정, & 강형구. (2021). 디파이가 자산운용 미치는 영향: ESG'투자를 중심으로. 자산운용연구, 9(2), 62-82.
 - Shin, E. J., Kang, H. G., & Bae, K. (2020). A study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NPOs with blockchain technology. Sustainability, 12(15), 6158.
 - 김석환, 신은정, 배성영, & 강형구. (2018). 비트코인 수용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8(3), 187-226.
-



공동연구원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 간사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정책학과 박사과정(수료)

연구실적

- 장윤주. (2022). 비영리조직 최고관리자 경험에 관한 연구. 시민사회와 NGO, 20(1), 335-368.
 - 장윤주, 장혜원, 박다윤. (2022). 블록체인 기반의 기부사례 및 활용 가능성 탐색: 가상화폐와 NFT를 중심으로. 아름다운재단.
 - 김성주, 장윤주, 이예림. (2022). 한국의 기부방식 변화에 대한 연구. 아름다운재단.
 - 전현경, 이영주, 장윤주. (2017). 국내 비영리조직 투명성에 관한 인식 조사. 아름다운재단.
 - Sung-Ju Kim, Yoon-Joo Jang. (2022). The estimates of philanthropic behavior and attitude in South Korea: Methodolog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hilanthropy and Marketing, 27(4).
-

요약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기부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가상화폐, NFT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증가되면서 가상자산 기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상자산 기부를 고려하는 기부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기부에 적용한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업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상자산 기부를 고려하는 기부단체들이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기부단체들은 블록체인 기반의 클라우드 기부 플랫폼을 이용하고, 가상화폐로 기부를 받는 것이 증가하였다. 기부자들은 급상승한 가상화폐 가치로 인한 양도세를 줄이고, 현금을 송금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기부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기부에 활용하였다. 또한 NFT 시장이 성장하면서 NFT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거나 NFT를 기부 증명이나 기부 보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 기부단체가 가상자산 기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체의 목적에 맞는 지 확인하고 가상자산 기부 운영을 위한 내부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상자산 모금 및 운영을 위한 가상자산 지갑 개설, 기부금 수탁, 환전, 회계 처리를 사전 논의 및 내·외부 절차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부 환경 하에서 기부 단체들이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기부 재원을 이해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는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가상자산 시장, 규제 및 운영 방침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 단체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변화에 대응하면서 가상자산 기부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키워드: #블록체인, #가상화폐, #가상자산 기부, #NFT, #사례 연구

서론

한국은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발전으로 2000년대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옹호 기능을 하는 다양한 비영리조직과 재단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국내 공익법인은 2014년 29,849 개에서 2016년 34,743개, 2020년 41,554개로 증가하였으며,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기부 총액은 8조 3천 1백억 원에 이른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공익법인을 포함한 비영리조직들의 적극적인 모금 마케팅으로 개인과 기업의 기부 참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 3.9조 원 이던 총 기부 금액은 2020년 14.4조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998년 개인 기부금은 기업 기부를 앞질러 그 비율이 65%를 차지한다(노연희 외, 2022).

기부금이 증가함에 따라 기부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기부 방식 변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인 기부 방식인 거리모금, ARS, 지로 등은 감소 추이를 보이는 반면 크라우드펀딩, 팬덤기부, P2P 등 새롭게 떠오르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김성주, 장운주, 이예림, 2021).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하향 추이를 보이던 전통적인 기부 방식으로도 기부 행위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시민들이 국가적 위기에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내는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금단체들도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지난 10년 동안 급성장했던 대면모금(Face to Face) 방식은 철회될 수 밖에 없었고, 기부자들은 약정을 통한 정기기부보다 SNS를 활용하여 관심 있는 이슈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양상으로 기부 행동이 변화되었다. 모금단체들은 비대면, 온라인, SNS 그리고 광고를 접목한 방식으로 빠르게 모금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으로 이분화되었다.

이러한 기부 환경의 변화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 가상화폐, 그리고 NFT(대체불가능토큰, Non-Fungible Token)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비영리조직의 모금 환경에도 적용된다. 가상화폐를 현금화하거나 직접 기부를 받는 사례가 생겨났으며, 블록체인 기반의 모금 플랫폼도 오픈이 되었다. 기존의 온라인 기부 플랫폼과 블록체인 기반 모금 플랫폼에 동시에 모금함을 개설해 기부를 받은 한 단체에 따르면, 인지도가 아직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반 모금함의 모금이 더 빨리 종료되었

다고 한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호응이 좋았는데, 이는 기부단체를 신뢰하지 않아서 기부하지 않는다는 보고와 일정 정도 부합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강점이 있는 기술로 최근 많은 산업 분야에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처럼 비영리조직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기부자와 NPO의 투명성을 높여주는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강형구 외, 2018). 또한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다양한 세대와 소통할 수 있고 기부문화에 대해 친근해질 수 있는 가상세계,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도 가능하다. 블록체인, 가상자산 및 메타버스¹⁾활용에 관한 이해를 돕는 본 연구는 NPO 생태계 및 각 이해관계자에게 아래 표에 기술된 것과 같이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는 블록체인, 가상화폐 그리고 NFT의 활용사례를 탐색하고 국내 비영리조직이 이를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1] 이해관계자별 연구의 필요성

이해 관계자	연구의 필요성
NPO 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명한 생태계를 만들어 평판 리스크 감소, 기부문화의 확산, 다양한 NPO 참가자의 확대 NPO 프로젝트별 운영에 대한 평가 용이 혁신적 자금 조달 방법을 통한 기부의 증가로 인한 생태계 확장 NPO의 국제 프로젝트 운영 및 자금 조달이 용이해짐
기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의 익명성은 유지하지만 세제 혜택 등 다른 혜택을 유지하여 기부를 장려 기부한 이후 운영 결과와 펀드 사용에 대한 확인이 가능 가상자산 및 가상 세계를 활용하여 쉽게 기부 기부 증명의 블록체인에 기록 및 증명
NPO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리인 문제 해결로 인한 비용 감소 및 평판 위험 감소 조직 내 건강한 거버넌스 확립 이해관계자에게 실제와 가상 채널을 통한 서비스 및 정보 제공 새로운 기부 채널 및 자원 확보
NPO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프로젝트 참가 성과 및 경력 관리가 가능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통해 참여가 독려됨

1) 블록체인, 가상자산, 메타버스의 기본 개념과 영리 단체에서 활용에 대한 내용은 Appendix에 추가하였다.

I. 연구 방법론

NPO의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의 활용 및 실행을 위해 본 연구진은 사례 연구와 인터뷰를 사용하여 조사 및 분석을 하였다.

1. 사례 연구

본 연구는 특성상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현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질적 연구 및 정책적 시사점 개발은 특히 아래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여 체계적, 과학적, 학술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Eisenhardt, 1989). 위 프레임워크를 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질적 연구 방법 프레임워크

연구 단계	연구 활동	이유
연구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NPO 및 블록체인 관련 주요 이슈 탐색 후 연구의 우선 순위를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율적인 연구 가능 사례 분석을 통해 수립할 이론에 대한 근거를 제시
사례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례 연구 대상 블록체인 관련 사례를 (무작위 추출이 아닌) 이론에 기반하여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론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관련 없는 변수를 통제 외적 타당성 확보; 이론적으로 유용한 사례를 수집
연구 방법 및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방법으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데이터를 함께 수집 여러 연구원을 활용하여 객관성 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견된 증거를 통해 근거를 강화 도출된 증거 간의 공통성 도출 다양한 관점 및 타당성 있는 근거 확보
연구 분야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함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분석 속도를 높이고 연구 주제에 맞게 데이터 수집을 조정 연구 테마를 발견하고 사례별 독특한 특징을 이론 수립에 이용

데이터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내 분석 및 사례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에 익숙해지고 예비 이론 수립이 가능 • 연구 주제와 데이터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
가설적인 시사점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례 간의 논리를 이해하고 “why”에 대한 해답을 찾음 • 위 과정을 반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타당성, 측정 가능성에 초점; 이론을 보다 분명히 하고, 확장 및 확정을 위한 내적 타당성 확보
기존 문헌과의 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대조되는 기존 연구 비교 • 유사한 기존 연구를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적 타당성 확보 및 이론적 수준의 향상 •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 이론적 수준을 높임
이론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적 시사점과 중장기 발전 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적 성숙도가 높아질 때까지 위 과정 반복

대부분의 사례는 연구, 리포트 및 기사를 토대로 찾아 각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재확인하였다. 유튜브를 포함한 미디어에서 발표한 내용도 포함하여 최신 사례를 수집하였다. 또한 기관에서 발행한 공식적인 보고서와 각 인플루언서들이 제공하는 비공식적 블로그의 내용도 참조하고 이를 재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2. 비즈니스적 접근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국내외 출간된 연구 및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조사 후 가상자산 기부와 관련하여 국내외 전문가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블록체인 크라우드 기부 플랫폼, 가상자산 기부를 준비 중인 NPO 담당자들 및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탁 서비스 담당자를 인터뷰하였다. 주요 인터뷰 질문은 가상자산 기부 트렌드, 가상자산 기부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방법 및 절차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1차 인터뷰 이후 주요 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 주요 기관 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주요 이슈별로 현황 및 실행 방법을 확인하였다.

II. 사례 연구

2018년 당 연구진이 기부문화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연구 이후 2022년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부에 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부생태계에서 블록체인 활용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8년 당시 연구되었던 프로젝트들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지만 새로운 프로젝트의 등장, 방법의 다양화 등 가상자산 기부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였다. 특히 글로벌 대형 NPO들이 가상자산 기부를 받기 시작한 것은 큰 변화 중에 하나이고 중소형 NPO들도 블록체인 크라우드 펀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상자산 기부를 받기 시작한 NPO의 숫자가 많이 증가하였다. 또 다른 변화는 NFT의 활용이 증가한 것이다. 2018년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ERC-721 표준을 발표하면서 NFT가 발행되기 시작하였고 NPO에서도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홍보 및 행사 운영을 위해 메타버스를 사용하고 있는 NPO들의 사례가 생겨난 것도 큰 변화 중의 하나이다.

이 장에서는 블록체인 크라우드 기부와 NFT를 포함한 가상자산의 기부, NPO가 NFT를 리워드 및 기부 증명으로 활용하는 사례, 그리고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는 실제 운영 사례를 정리하였다. 주요 사례들을 표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그 중 대표적인 몇몇 사례는 자세히 소개한다. 메타버스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가상세계에서 가상자산과의 결합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 향후 NPO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할 때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의 하나이므로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1. 블록체인 크라우드 기부 플랫폼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해킹의 우려 없이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보관하며, 데이터 블록들을 체인으로 연결하여 P2P 네트워크 참여자의 모든 데이터를 함께 업데이트하는 기술이다(양정훈, 2018). 블록체인의 특징은 기부 과정의 투명성, 기부 정보의 보존이 중요한 기부 단체의 필요와 맞아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부 플랫폼이 생겨났다. 대표적인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부 플랫폼을 [표 3]에 요약, 정리하였다.

[표 3] 블록체인 크라우드 기부 플랫폼

프로젝트	주요 내용
체리 (CHER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이포넷(E4Net)에서 시작된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프로젝트 • 사랑의열매, 월드비전, 희망친구 기아대책,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여러 NPO 기관과 협력 • 모바일 앱을 통해 다양한 기부단체와 개인에게 직접 지원, 토큰 충전으로 기부 가능
KT그룹 희망나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희망나눔재단이 운영 중인 기브스퀘어는 봉사를 통해 적절한 포인트를 글로벌 나눔 캠페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기부 플랫폼 •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기부자의 포인트 기부 현황뿐 아니라 집행 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 기부 의 투명성 향상 •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 낙후 지역의 ICT, 의료,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진행
비트기브 (BitG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설립된 비영리 자선단체로 2016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브트랙(GiveTrack) 플랫폼을 출시 • 기부자는 기브트랙 내에서 기부금 사용 내역과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KT희망나눔재단이 운영 중인 기브스퀘어는 봉사를 통해 적절한 포인트를 글로벌 나눔 캠페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기부 플랫폼
기빙블록 (The Giving Blo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SOL)를 포함하여 약 80개의 가상자산을 기부 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 • 세계공동모금회(United Way Worldwide), 미국암학회(American Cancer Society), 코드투인스파이어(Code to Inspire) 등 환경, 동물, 인권 등 25개 분야의 1,000개 이상의 자선단체 파트너 존재 • 가상자산 수탁 및 환전을 제미니(Gemini)와 협업으로 제공하여 NPO들이 원스톱으로 가상자산 기부를 받고 운영할 수 있게 함.
에이드체인 (Aidch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이드코인(AID)을 사용하여 비영리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통합 기부 생태계 • 기부자는 에이드체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 추적 가능 •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세계야생동물기금(World Wildlife Fund)과 같은 주요 글로벌 자선단체와 협력에이드코인(AID)을 사용하여 비영리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통합 기부 생태계

(1) 비트기브(BitGive)

비트기브는 2013년 설립된 비영리 자선단체로, 2016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브트랙 플랫폼을 출시했다(염현주, 2022). 기브트랙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제한된 금융 서비스, 거래 및 서비스 수수료, 해킹 및 사기 가능성으로 인한 투명성 부족, 긴 대기 시간과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 기브트랙은 언제 어디서나 참여자가 기부금 사용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을 사용하여 더 낮은 수수료로 기부 프로젝트의 진행이 가능하다.

2015년 기준 평균적으로 기부 프로젝트에서 전체 자금의 10.96%가 기부금이 은행을 통해 이체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전체 자금의 6.36%는 수수료로 지출되었다(Shin, E. J. et al, 2020). 반면 비트기브의 기부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네트워크가 받는 수수료의 1% 미만을 차지하므로 국제 송금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은행을 통한 기부는 5~7일, 신용 카드 결제는 24시간이 소요되지만, 가상자산 결제는 암호로 보호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30분 이내 빠르고 투명하게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기부자는 기브트랙 플랫폼에서 도움이 필요한 마을 목록을 보고 기부할 마을을 선택하고 기브트랙이 소유한 가상자산 주소로 가상자산을 보내면 기부가 이루어진다(GiveTrack, n.d). 이후 기부자는 기브트랙 내에서 기부금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등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에서 실시간 거래 기록을 추적하는 기능은 조작 및 오류의 위험을 줄이고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기부를 원하는 프로젝트는 비트기브에 가상자산 주소가 연결되어 있어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기부를 받는 과정이 간편하다. 비트기브의 사용자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23개의 각국 통화와 라이트코인(LTC, Litecoin), 이더리움(ETH), 대시코인(Dash) 등 10가지 종류의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기부할 수 있다.

비트기브의 기브트랙은 2014년부터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섹션 501(c)(3) 지정²⁾을 받아 가상자산을 통한 기부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립하였고, 이는 가상자산을 통한 기부의 확립 및 활성화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기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2) 섹션 501(c)(3)에 설명된 조직을 일반적으로 자선 조직이라고 한다. 공공 안전 조직에 대한 테스트를 제외하고 섹션 501(c)(3)에 설명된 조직은 코드 섹션 170에 따라 세금 공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2) 기빙블록 (The Giving Block)

기빙블록은 2018년 비영리단체가 가상자산 모금을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다. 자선단체, 대학 및 종교단체가 가상자산을 받아 목적에 맞게 송금, 환전, 기부영수증 발급 등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가상자산 커뮤니티 내에서 기부자와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지원한다. 단지 기부 플랫폼뿐 아니라 가상자산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가상자산 기부 관련 통계, 리포트를 발간하여 가상자산 기부를 받기 원하는 비영리단체가 가상화폐뿐 아니라 NFT를 통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운영을 도와주고 있다. 2021년 기빙블록을 통해 모금에 성공한 가상화폐는 약 6,964만 달러로 2020년에 비해 약 1,558% 성장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빙블록을 통해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기부단체를 검색 또는 선택하여 그 기부단체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바로 기부하는 방법이다. 기부단체를 선택하면 기부단체의 개별 홍보 페이지와 전자지갑 위젯을 이용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가상자산 및 금액을 넣고 가상자산을 송금하면 된다. 기부자가 기부영수증을 받고 싶으면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제공하고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도 기부할 수 있다. 익명으로 기부하지만 기부단체에 남기고 싶은 메시지도 남길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임팩트 인덱스 펀드(Impact Index Funds)를 이용하는 방법이다(Giving Block, n.d.). 기부자가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고 기부하면 기빙블록에서 해당하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금을 동일하게 나눠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선택하고 기부하면 이 영역에 포함되는 29개의 기부단체에 균등하게 지원금이 나눠지게 된다. 세 번째는 기부 약정(pledge)을 하는 방법이다. 기부 약정에 멤버로 가입하고 향후 수익의 일정 부분 또는 기부를 약정하는 것이다. 홈페이지에는 스포츠 스타, 기업인, 가상자산 투자가, 기업, NFT 프로젝트 및 익명의 개인들의 약정과 트위터 계정, 기부 상태를 볼 수 있다.

기빙블록은 제미니(Gemini)라는 가상자산 거래소,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업하여 가상자산으로 받은 기부금을 보관, 송금, 환전을 해주고 있다. 제미니를 통해 가상자산 지갑을 발급받고

고객확인(Know your customer, KYC)³⁾절차를 완료하고 나면 가상자산 기부를 시작할 수 있다. 기부단체가 원하는 가상화폐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고, 기부단체의 지갑으로 옮길 수 있다. 또는 장외 시장(over-the-counter, OTC)을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하여 기부단체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기도 한다. 장외시장 거래이므로 일정 조건이 맞아야 환전을 할 수 있고, 국내 기부 단체들이 송금을 받는 경우는 국내 송금 규정을 확인 후 진행할 수 있다.

기빙블록은 NPO들이 쉽게 가상자산 기부 캠페인을 시작하고 개별 홈페이지 없이도 클라우드 기부 플랫폼상에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글로벌 가상자산 기부 커뮤니티들의 접근성이 높고 가상자산 기부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가상자산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3) 체리(CHERRY)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은 이포넷에서 2018년 시작된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프로젝트이다(체리, n.d.). 체리는 2018년 12월 최소기능제품(MVP) 개발 이후, 이포넷이 두나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노블록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9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 과제(KISA,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선정되었다. 체리 서비스는 기부금이 모금되고 전달되는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해 투명한 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스마트 계약⁴⁾을 통해서만 기부금이 자동 전달되기 때문에 기부금 유용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체리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사용자 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기부단체와 개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체리 포인트를 충전하여 필요할 때 자신이 선택한 단체나 개인에 기부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부 플랫폼이다. 체리는 체리포인트라는 가상자산을 통해 기부를 진행한다. 체리포인트는 원화와 1:1 비율로 고정되어 1체리는 1원으로 환산된다. 체리포인트는 가상화폐공개(ICO)를 진행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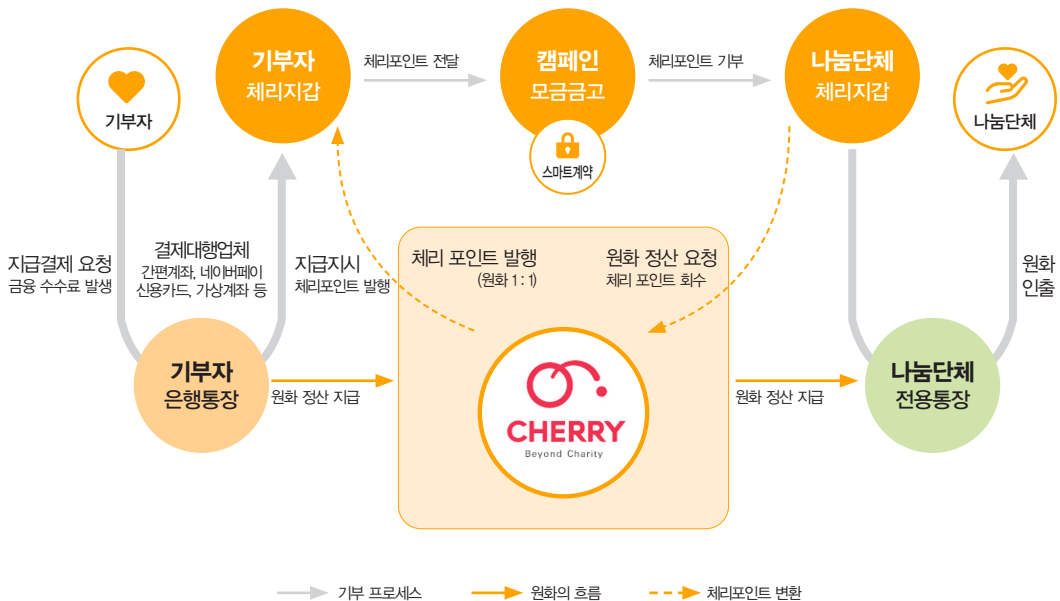
3) 고객알기제도의 줄임말로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본인여부 및 거래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4) 분산 원장 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에: 블록체인)에서 거래의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당사자 간에 자동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계약.

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구매할 수 없으며, 오직 체리 앱 내에서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다. 체리에서는 체리포인트뿐만 아니라 영향력 포인트가 있는데, 일종의 인센티브로 체리 생태계에서 자율 거버넌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영향력 포인트는 체리포인트와 다르게 구매할 수 없으며, 양도할 수도 없다. 기부할 때만 얻을 수 있고 영향력 포인트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체리 플랫폼 내에서 투표권을 많이 가지게 되어 체리 생태계에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체리에 기부하면 체리포인트로 변환되어 블록체인에 기록하기 때문에 앱을 통해 기부한 단체, 혹은 기부자의 관심 기반의 캠페인과 단체의 추천, 기부자가 참여한 모금함이나 캠페인의 주요 활동을 볼 수 있다. 기부의 진척도를 보여주고 상세 계획으로 어떤 분야에 돈이 지불되는지 상세하게 적혀있고, 나눔 발자국으로 현재까지 기부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여주어 기부자 및 참여자에게 신뢰성을 높였다.

[그림 1]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 체리 개념도



로드맵 : 수혜자 배분 및 사용 단계까지 블록체인을 확대 적용하여, 기부금의 end-to-end 추적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예정입니다.

출처: 체리 플랫폼 자료, 체리 기부 플랫폼 상품 소개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은 P2P 네트워크의 분산형 디지털 원장⁵⁾이며, 분산형 디지털 원장은 데이터의 무결성, 위·변조 방지를 증명하는 데 효과적이다.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위·변조 방지의 특징은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사회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복지 시스템, 기부금 관리, 기부 조직 운영 등 서비스와 행정 분야에서 신뢰성과 보안성을 높이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가상자산을 활용한 기부

가상자산을 이용한 기부는 가상자산 시장 가격 상승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였다. 글로벌 자산운용 업체 피델리티(Fidelity Investments Inc.)의 자선단체 피델리티 자선기금(Fidelity Charitable)은 2015년부터 가상자산을 기부금으로 받고 있다. 2021년 가상자산으로 3억 3,100만 달러(약 1,700억원)를 모금하였으며, 이는 2020년 가상자산 기부액 2,800만 달러(약 340억원) 대비 11배를 웃도는 규모이다(Fidelity Charitable, 2022). 2021년 10월 피델리티 자선기금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상자산 소유자의 45%가 1,000달러(약 120만원) 이상을 기부하였다. 이는 주식 투자자 중 1,000달러 이상 기부한 비율인 33%를 웃도는 것이다(Fidelity Charitable, 2021).

기빙블록은 2022년 2월 지난해 가상화폐 기부 현황을 조사한 2021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The Giving Block, 2022). 보고서에 따르면 기빙블록이 지난 2021년에 모금에 성공한 가상화폐의 총 가치는 6,964만 달러(약 807억 3,000만 원)로 이는 전년 대비 1,558% 증가한 금액이며, 기부자들의 평균 납입 액수로 살펴보면 1만 455달러(약 1,260만 원)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기부자들의 기부금이 현금 납부자의 평균 기부액인 128달러(약 15만 4,000원) 대비 82배 많은 것이다. 기부금으로 기부된 가상자산의 종류를 살펴보면 이더리움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비트코인과 USD 코인은 각각 36%와 7%로 집계됐다. 기빙블록의 기부자는 익명의 기부자부터 업계 리더, NFT 아티스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본 절에서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 기부 활용 사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가

5) 분산네트워크 참여자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한 거래 기록을 분산 관리하는 장부

상자산은 가상화폐 및 NFT를 포함한다. 가상자산의 기부는 가상자산 자체의 기부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여 기부하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해외의 경우는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이미 적용되고 있어서 가상화폐 자체를 기부하는 사례가 많이 보이는 반면 한국은 아직 몇 가지 이슈로 가상화폐 및 가상자산을 직접 기부하는 것보다 기부 직전에 현금화하여 기부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본 장에서는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여 기부한 경우, 가상화폐 자체를 기부한 경우, NFT를 판매한 후 가상화폐로 기부한 경우를 살펴보겠다. NFT 자체를 기부한 사례도 있지만 정확하게 운영에 대해 확인되지 않아 본 보고서에서는 소개만 간단히 한다.

(1) 가상자산을 법정화폐⁶⁾로 현금화하여 기부

국내에서 가상자산 기부는 가상자산 자체를 기부하기보다는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여 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는 기부단체가 가상자산 자체를 기부 받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장윤주 외(2022)는 기부단체의 행정 부담과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성,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을 그 이유로 설명한다.

먼저, 현금과 현물 이외 다른 자산을 기부 받은 경험이 없어 이로 인한 행정 부담이 수반된다. 많은 조직들이 현금 이외 다른 자산을 기부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계정이나 지급 개설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동산, 주식 기부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기부 역시 거래 시점 이후 자산가치의 변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환전, 수수료 등의 문제가 있으며, 매도 후 현금화하기까지 유동화의 문제가 발생한다.

두번째로는 가치 변동성이다. 거래 시점에 따라 가치가 변동되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을 대표로 가상화폐가 일종의 투기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으로 인해 가상자산 수령 자체가 모금단체의 이미지에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기부자에게는 가상화폐를 매도해 현금으로 기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모

6) 국가가 정한 법률에 의해 그 가치가 보장되는 화폐

금단체 입장에서는 가장 용이한 수령 방법일 것이다.

이 외 또다른 이유가 있다. 법인은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원화 시장⁷⁾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21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 이후, 거래소 회원에 대한 자금세탁 감시 규정이 생겼다. 시행초기 단계에 보수적인 운영으로 법인의 경우 은행계좌와 연동이 안 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인 계정 개설이 안 되거나 되더라도 거래소의 원화 시장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후 기부를 받은 경우는 기부를 받는 NPO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현금 기부를 받는 것과 동일하며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면서 생기는 수수료, 환전 비율에 따른 최종 원화 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확정할 필요는 있다. 가상자산을 기부하는 기관의 마케팅 목적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으로 기부하고 기부 즉시 현금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가상화폐 기부에서 설명하겠다. 기부 전 현금화되는 주요 사례는 [표 4]에 요약하였다.

[표4] 가상자산을 판매하여 판매수익금을 현금으로 기부한 사례

프로젝트	주요 내용
T&C재단의 NFT 아트 경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 포도뮤지엄과 한국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전시 '너와 내가 만든 세상'에 나온 작품 13점을 NFT 아트로 제작 및 경매 재단 수익금은 굿네이버스에 전액 기부
페이퍼 칠드런 (Paper Childr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이버더칠드런 코리아의 국내 최초 NFT 기부 프로젝트로 2022년 3월 4일 오픈 수익금 천만 원 기부
푸르메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NFT 경매 수익금인 590더리움(약 1억 6천만 원)을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

7) 원화를 기본 통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시장.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원화로 사거나 팔 수 있는 시장.

A.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하루만 지나도 시세가 크게 요동치는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성, 가상화폐의 보관 처리는 앞으로 기부단체들이 고민해야 할 큰 숙제로 남아있다. 2021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NFT 경매 수익금인 59이더리움(약 1억 6천만 원)을 푸르메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병원 관계자는 “내부 회의에서 결국 손실을 방지하려면 현금 기부가 낫다고 판단했다” 하였고, 푸르메재단 넥슨 어린이재활병원 측은 가상화폐를 환전하여 현금으로 약 1억 6000만 원을 기부 받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 자체를 기부 받는 것은 앞선 기부단체의 행정 부담과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성, 가상자산의 인식으로 인해 활발하게 도입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여 기부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가상자산 자체를 기부하더라도 바로 현금화를 원칙으로 세운 기부단체가 많은 만큼 가상자산의 도입은 아직 초입단계이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인 체인애널리시스(Chainanalysis)가 지난해 발표한 ‘2021 가상자산 지형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의 가상자산 채택 지수는 전 세계 154국 가운데 40위였다. 전년 17위에서 13단계 하락했다. 가상자산 채택 지수는 인구 1인당 구매력 대비 블록체인상에서 가상자산을 얼마나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국가별로 산출한다. 가상자산 활용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베트남이었다. 이어 인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케냐 순이었다. 미국은 8위, 중국은 13위에 올랐다. 한국은 가상자산 투자 열기에 비해 실제 가상자산을 사업에 활용하는 정도는 낮다. 가상자산 기부에서도 한국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국내는 양도세 도입 유예, 법인 계정 운영 한계, 가상자산 변동성 등의 이유로 아직 기부시장에서 가상자산의 도입은 시작 단계이지만 사용이 확대되면 다양한 방식의 가상자산 기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가상자산의 간접 기부 형태인 현금화를 통한 기부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 가상자산 자체를 기부

가상자산은 P2P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가 매우 적으며, 송금 속도가 빠르다. 또한 블록체인의 P2P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가 발생하기에 은행이나 국가와 같은 중앙기관의 통제나 의존 없이 참여자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국제 송금은 전 세계 1만 1,000여개의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을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정세가 불안한 국가 혹은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송금을 통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세가 불안한 일부 국가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는 모금단체들은 가상자산을 통해 해외 자금을 마련한다(임현우, 2022).

또한 몇몇 국가의 경우 가상자산의 거래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고 기부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환전하고 기부하는 경우 법정화폐로 교환할 때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현금을 기부하게 된다. 하지만 가상자산을 바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는 기부하는 가상자산 가치의 전액을 기부로 인정받게 되어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기부를 받는 단체도 같은 코인에 대해 더 많은 기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자와 기부를 받는 단체 모두 가상자산으로 기부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예를 들면, 기부자가 가상자산을 팔아 달러로 기부하여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는 가상자산 이익(예: USD 100)에 대한 양도소득세(예: USD 10)를 납부하고 그 중 일부 금액을 달러로 기부하게 되고 그 금액(예: USD 90)만큼 세금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가상자산을 바로 기부하는 경우는 기부한 가상자산 평가액 전액(예: USD 100)을 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가상자산을 이용한 직접 기부가 가능해지면 가상자산 기부자들은 더 편하고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경우, 개인에 대한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부과가 유예된 상태이다. 개인 기부자는 아직 가상자산을 기부하나, 현금을 기부하나 경제적 차이가 없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유예가 되지 않았으므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직접 기부의 유인이 있다. 기부단체의 주요 기부자층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법인 기부가 많은 단체의 경우 가상자산 기부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NPO들이 가상자산을 기부 받고 변동성 위험, 가상자산 보관 위험 등의 이유로 즉시 현금화하여 처리한다. 2017년 12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스트’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포항 지진 이재민 성금으로 1,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키펀을 기부 받았고, 희망브리지는 받는 즉시 원화로 환전하였다. 희망브리지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즉시 원화를 환전한 이유에 대해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언급했다. “기부금에 손실을 끼쳐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시세 차익을 남겨 공공성을 훼손해도 안 된다. 이 때문에 희망브리지는 지갑 주소로 보내온 가상화폐를 즉각 환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전달하며, 가상자산을 기부 받는 어려움을 밝혔다(이소연 외, 2021).

최근 해외에서는 NFT를 판매하여 판매 수익을 가상화폐로 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가상화폐로 기부 받거나 NFT를 판매하여 가상화폐를 기부 받는 것은 NPO의 입장에서 필요한 요소와 운영이 동일하다. 하지만 NPO에서 활용을 고려하여 가상화폐를 직접 받는 사례와 NFT를 판매하여 가상화폐로 받은 주요 사례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겠다.

[표 5] 가상화폐 자체를 기부

프로젝트	주요 내용
컴백얼라이브 (Come Back Al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출범한 우크라이나 국군 지원 NPO • 2021년 3월 11일 기준 컴백얼라이브는 50개국 2,000만 달러(약 27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접수하여 우크라이나 국군 약 100개 부대를 지원 • 모금 금액을 무기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을 구하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것을 돕기 위한 기술, 훈련 및 장비를 제공하는 데 기부금 사용 제한
피델리티 자선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부터 가상자산으로 기부금을 수령 • 2021년 가상자산으로 1억 5,000만 달러(약 1,700억 원)를 모금
세이브더칠드런 홀드호프 캠페인 (HOLDHOPE Campaig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VID-19 이후 어린이들의 경제적 불평등 악화와 재앙적인 기후변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상자산 기부 캠페인 • 기빙블록과 연계하여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등 여러 가상자산을 기부금으로 수령 • 2021년 5백만 달러(약 70억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기금으로 수령하였으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금 모금으로 캠페인 확대
우크라이나 크립토 도네이션 (Ukraine Crypto Don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3월 11일 기준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을 지원하는 NPO • 러시아 침공 이후 120,000건 이상의 가상화폐 기부를 통해 6,380만 달러(약 8백 40억 원)를 모금

<p>유니세프 암호화폐 (Unicef Cryptocurrency Fun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10월 유니세프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 토폰드 출범 • 암호화폐 토폰드를 통해 가상자산을 기금으로 보관 및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은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지원
<p>위메이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는 고려대에 자사 가상화폐 위믹스(WEMIX)를 10억원 상당 기부
<p>포더리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더리움(PAWTH) 가상화폐를 통해 동물 보호소와 복지 지원금 모금 • 포더리움이 발행하는 PAWTH 토큰은 거래될 때마다 거래 수수료 4%가 부과
<p>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12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스트'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포항 지진 이재민 성금으로 1,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키패를 기부받고 바로 원화로 환전
<p>월드비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9월부터 홈페이지에 디지털 자산 후원 페이지 오픈 • 한국 블록체인 기업 퍼블리시와 협력하여 가상자산을 후원금으로 받고 NFT로 후원 증서를 발행 • 현재는 이더리움으로만 후원에 참여 가능

A. 유니세프 암호화폐

2019년 10월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 토폰드를 출범시켰다. 유니세프의 암호화폐 토폰드는 유엔기구(UN) 내에서 최초로 가상자산을 받는 펀드로 2019년 10월 9일 이더리움 개발자 컨퍼런스 데브콘5(Devcon5)에서 출시를 밝혔다. 암호화폐 토폰드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기금으로 보관 및 사용할 수 있으며, 암호화폐 토폰드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된다(송화연, 2019).

암호화폐 토폰드는 이더리움 재단(Ethereum Foundation)이 펀드의 첫 번째 기부자로 나서며, 기금은 유니세프 혁신 기금(UNICEF Innovation Fund)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 프리스크립토(Prescripto), 아티스 랩(Atix Labs), 유토픽사(Utopixar)에 나누어 지급되었다. 이들 업체는 각각

블록체인을 이용해 사업 기획안을 관리하고, 투자자와 수혜자를 연결하며, 커뮤니티 토큰을 이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하는 곳이다. 이후 2020년 유니세프 크립토편드는 2020년 8개 아동 보호 관련 프로젝트에 125 이더리움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유니세프 크립토편드는 7개국의 8개 기업 아피니데이터(Afinidata), 아바얀트라(Avyantra), 치레하(Cireha), 이데아시스(Ideasis), 오에스 시티(OS City), 스탯위그(StaTwig), 솜렝(Somleng), 유토픽(Utopic)에 투자해 6개월 동안 프로젝트 시제품 개발, 프로토타입 테스트, 기술 규모 확장을 돕겠다고 밝혔으며, 8개 기업은 앞서 유니세프 혁신 펀드 10만 달러에 이어 이번 가상화폐 펀드의 지원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Unicef, 2020.6.).

[표 6] 크립토편드 투자 기업

기업명	국가	사업
아피니데이터	과테말라	• 부모 맞춤형 유아 교육 활동 제공하는 시 기반 앱 개발
아바얀트라	인도	• 신생아 패혈증 조기 진단 시 의료진들이 필요한 데이터 활용 앱의 기능을 확대
치레하	아르헨티나	• 언어장애를 겪는 어린이들이 상징물을 활용해 의사 소통할 수 있는 앱 3개국으로 확대
이데아시스	터키	• 불안함과 공포감 극복 해소를 위한 VR 프로그램을 가정에서도 사용하기 쉽도록 WebVR로 전환. 추후 코로나19 관련 스트레스 치료 위한 시나리오 개발 중
오에스 시티	멕시코	• 정부 기반의 공공거래장부를 개발, 아동교육 관련 학위 과정을 위한 1,000개의 블록체인 ID를 발급
솜렝	캄보디아	•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해 코로나19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등 저비용 대화형 음성 대응 플랫폼 확장
스탯위그	인도	• 인도 정부와 협력하여 쌀 지원 공급망을 추적·개선하고, 코로나19로 증폭된 빈곤층의 식량 확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앱을 시범 운영
유토픽	칠레	• 교육용 게임을 VR에서 WebVR로 전환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교육종사자들이 각 가정 어린이들의 읽기 능력 평가 및 모니터링 활동 지원

크립토편드가 지원한 기업들은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의 코로나19 피해 완화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한다. 정부와 지역사회 파트너와 협력해 코로나19 주요 메시지를 각 지역에 전송하고, 빈곤 지역에 지급한 쌀의 공급 효과를 관리하며, 원격 학습을 통해 어린이들의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로 인한 불안감 치료 등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해결하는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유니세프 혁신 기금의 프로그램을 수료한 40여 개 스타트업 기업 중 선발된 이번 8개 기업은 오픈 소스 기술, 솔루션 품질 등의 평가와 영향력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8개 기업은 자금 지원 외에도 비즈니스 성장 멘토링, 제품 및 기술 지원, 오픈소스·UX·UI 개발, 전문가 및 파트너와의 접근성, 솔루션 소개 기회 등을 지원받게 된다. 크리스 파비안 유니세프 벤처사업 고문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디지털 세계가 도래했습니다. 유니세프는 현재와 미래의 어린이를 돕기 위해 모든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라며 “전 세계 7개국에 위치한 8개 기업에 자금을 송금하는 데 20분이 채 걸리지 않고 비용도 20달러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가치가 아주 짧은 순간에 이동했으며, 이전보다 저렴한 0.1% 미만의 수수료가 들었습니다. 후원자와 기부자 입장에서선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투명한 자금 흐름도 반가운 점입니다.”라고 밝혔다.

B. 우크라이나 기부

2022년 3월 11일 기준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을 지원하는 NGO는 러시아 침공 이후 120,000건 이상의 가상화폐 기부를 통해 6,380만 달러(약 8백 8십억 원)를 모금했다. 2022년 2월 26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가상화폐 기부에 관한 글을 작성하였으며, 2월 26일부터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트론(TRON), 폴카닷(DOT), 도지코인(DOGE) 및 솔라나 주소를 통해 5,440만 달러(약 7백 5십억 원) 상당의 기부를 받았다. 이외에도 폴카닷(Polkadot) 설립자 개빈 우드(Gavin Wood)의 580만 달러(약 78억 원) 기부, 줄리언 어산지(Julian Assange)와 디지털 아티스트 박(Pak)이 만든 NFT 판매 수익금에서 나온 186만 달러(약 25억 원) 규모의 단일 거래, 약 20만 달러(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크립토펅크 NFT도 우크라이나 정부의 이더리움 계정으로의 송금 등 기관의 기부 행렬 역시 끊이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정부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군대를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NGO인 컴백어라이브도 수백만 달러의 가상자산을 기부 받았다. 컴백어라이브는 2014년 출범한 우크라이나 국군을 지원하는 가장 큰 비영리 조직으로 현재까지 50개국에서 2,000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접수하여 우크라이나 국군 약 100개 부대를 지원했다.

컴백어라이브는 모금 금액을 무기 구입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을 구하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것을 돕기 위한 기술, 훈련 및 장비를 제공하는 데까지만 기부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컴백어라이브는 2014년부터 약 1,000개의 열화상 카메라와 250개 이상의 UAV 이외에도 포병의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아머(Armor)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1,500대의 태블릿을 제공함으로써 육군의 기술력을 높였다. 기부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기부자들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전시 상황으로 은행 시스템이 제한된 상태에서 가상화폐를 통한 기부는 유용한 지원 수단이 된다.

2021년 12월 CNBC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가상화폐 기부금이 약 600%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부자 가운데 특히 MZ세대가 많았다고 전달했다. 팻 더피(Pat Duffy) 기빙블록 공동 창업자 역시 가상화폐 기부자 가운데 상당수가 MZ세대인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욕구가 사회 환원까지 이어졌다고 전했다(한국경제TV, 2021).

다만 미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수익 구간에 따라 최고 37%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며, 수익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을 경우 세금 면제 혹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피델리티 자선기금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상화폐 기부자의 54%가 기부 동기로 세금 혜택을 언급했다(안상현, 2021). 따라서 일부 기부자 가운데 절세를 목적으로 기부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2023년부터 한국 역시 250만 원이 넘는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세제 혜택을 위한 기부 전망이 있었으나, 과세 시행시기가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되었다(법제처, 2021).

(3) NFT 판매대금을 가상화폐로 기부

NFT는 예술계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대중화되었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 체인에널리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NFT 생성에 사용된 이더리움 계약 규모는 409억 달러(약 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추산한 지난해 세계 미술 시장 규모(501억 달러)의 80%에 육박하는 수치이다(문일요, 2022). 기부를 위한 NFT의 활용은 초기 판매금액뿐만 아니라 재판매시에 발생하는 수수료도 기부를 위한 활용의 최초 유인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발행 이후에도 시즌별 시리즈 발행을 통해 기부 재원을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NFT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한 것에 비해, 모금단체가 NFT를 기부 받는 데 아직 소극적이라 NFT의 판매 수익금을 기부 받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NFT를 판매하여 판매 대금 또는 일부 수익금을 받는 사례는 [표 7]에 약술하였다.

[표 7] NFT 판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기부

프로젝트	주요 내용
우먼포아프간우먼 (WAW, Women for Afghan Wom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간 최대 여성 인권단체 WAW는 가상자산과 NFT를 통해 모금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한 직후 아프간 내 달러 송금을 봉쇄해 규제되지 않은 영역인 가상자산으로 모금을 진행
알렉스의 레모네이드 재단 (ALSF · Alex's Lemonade Stand Found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과 투병 중인 환아들의 그림을 NFT 아트로 제작
미국정신건강&블레이즈 캐츠 (MENTAL HEALTH AMERICA & BLAZED C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레이즈 캐츠는 무료 정신 건강 검진과 정신 질환에 대한 리소스 및 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미국정신건강에 기부하는 NFT 프로젝트 • 블레이즈 캐츠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수익의 25%와 2차 로열티의 100%를 자선단체에 기부 • 현재까지 블레이즈 캐츠는 미국정신건강에 32만 달러 (약 4억 4천만 원) 이상 기부
넥스트어스 (Next Ear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넥스트어스는 가상 토지를 거래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 플랫폼 상의 모든 거래의 10%는 오션 클린업, 아마존 워치, 키스더그라운드, 씨 터틀스와 같은 자선단체에 기부
오피어스재단 (Open Earth Found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3월 10일 탄소저감 NFT 예술(CarbonDrop NFT Art) 경매 및 모금 행사 진행 • 오피어스재단은 탄소저감 NFT 예술을 통해 660만 달러(약 92억 원)를 모금하였으며, 모금 금액은 지구 환경을 위한 오픈소스 제작에 활용될 예정

<p>유니세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1월 20일 전 세계 학교에 인터넷을 연결해 교육 격차를 줄이는 프로젝트 모금을 위해 NFT 컬렉션 '패치워크 킹덤(Patchwork Kingdoms)'을 판매 발행 • NFT 컬렉션은 총 1000개, 1개당 0.175이더리움으로 유니세프가 모금한 총금액은 175이더리움(약 54만 7천 달러) • NFT 판매로 마련된 기금은 유니세프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아동 교육 지원 이니셔티브 '기가(Giga)'에 투입, NFT는 발행 후 유통되는 2차 시장(secondary market) 거래 판매액의 20%를 기금으로 전달되도록 설계
<p>WATER.ORG, VAYNERNFT, STELLA ARTOIS & ART BLOCK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ter.org를 지원하는 Stella Artois의 CSR 이니셔티브를 위해 VaynerNFT는 NFT 자선 경매 진행 • Stella Artois는 원래 NFT를 수집가에게 경매하고 수익금의 100%를 자선단체에 기부함으로써 Water.org에 지원 • Water.org는 전 세계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회에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는 자선단체로 경매를 통해 193천 달러(약 2억 6천만 원)를 모금 및 재판매의 2차 로열티도 Water.org에 기부
<p>아엑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FT 거래소 아엑스가 NFT의 특징을 활용해 지속적인 기부 재원을 마련하는 순환 기부 시스템을 개발 • 일회성 기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가와 기부자, NGO, 기업이 순환하며 기부 재원을 지속 조달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기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p>NFT포굿 (NFT4Goo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5월 1일 아시아계 혐오 반대 캠페인 'AAPI-88'을 진행 • 아시아계 미국인 스포츠 스타와 인플루언서를 애니메이션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NFT로 만들어 판매 • 캠페인 기간에 NFT 판매 수익을 포함해 총 8만 달러 이상을 모금
<p>누라헬스 (Noora Heal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5월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세요(Save Thousands of Lives)'라는 슬로건을 담은 NFT 영상을 제작 및 판매 • NFT 거래소 오픈시(OpenSea)를 통해 450만 달러(약 62억 원)에 달하는 기금 적립 • 인도와 남아시아 지역의 신생아 지원 사업에 사용
<p>세이브티그라이 (Save Tigra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티오피아 기근으로 고통을 겪는 티그라이 지역민을 지원 • 지역 여성들이 만든 공정무역 공예품을 NFT 아트로 만들고, 판매 수익을 구호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식 • 2020년 11월 연방군과 지역 반군 간 무력 충돌로 내전이 발발하면서 해당 프로젝트는 무기한 연장
<p>워너비인터내셔널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너비인터내셔널의 NFT 통합 서비스 플랫폼 'NvirWorld'를 통해 경매가 진행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기부한 작품 'Dokdo Korea'에 대중이 직접 투표로 선정한 '한국을 빛낸 영웅' 315명과 캠페인 참여자 500명의 성명 진행
<p>한국예술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예술조합 크리스마스 '음악예술자선경매'를 주최 • 각 예술작품을 클레이튼 기반의 NFT 작품으로 발행 및 경매 진행

A. 오픈 어스 재단

오픈 어스 재단은 혁신과 연구를 통해 글로벌 순 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을 위한 솔루션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재단은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 데이터를 위한 개방적이고 분산된 디지털 인프라인 기후 인터넷(Climate Internet)을 구축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맹세하는 사람들의 파리 협정 준수 상황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픈 어스 재단은 위성이미지를 통해 강 유역 범람지역의 초목 상태를 파악하거나 농업 용수, 지하수, 강의 수질정보를 분석하는 등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의 목적을 위해 오픈 데이터 포털을 운영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Open Eearth, n.d.).

오픈 어스 재단은 2022년 기후 변화를 주제로 한 NFT 작품(#Carbon Drop NFT Art) 경매 및 모금 행사 진행을 했다(Open Earth, 2022). 렌더토큰(Render Token)의 지원을 받아 니프티 게이 트웨이(Nifty Gateway)가 주최한 이 모금 행사는 개방형 디지털 인프라 개발을 위한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전 세계에서 투명하게 기금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NFT는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에 많은 환경단체들이 가상 자산을 통한 기부금 조성을 기피하였다. 작업 증명(Proof-of-Work, PoW)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모든 거래는 기후 변화의 원인인 온실 가스 배출과 관련된 상당한 양의 전기를 소비한다. 하지만 이더리움 지분증명(Proof-of-Stake, PoS) 프로토콜을 통한 발행은 네트워크의 탄소 발자국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실제 경매에 나온 예술작품은 약 60개의 탄소 상쇄권(Carbon Offset)⁸⁾을 받았고 이는 약 500톤의 탄소배출감소에 상응하는 것이다. 제공된 탄소상쇄권은 페루의 산림 보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마드레 데 디오스(Madre de Dios)를 지원했다. 오픈 어스 재단은 이 경매를 통해 660만 달러를 모금하였으며, 모금액은 지구 환경을 위한 오픈소스 제작에 활용될 예정이다(Fvckrender et al., n.d.).

8) 탄소상쇄권(carbon offset)은 나무를 심거나 보호하는 사업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경우 탄소배출량을 상쇄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이 탄소관리기업이나 산림관리기업 등을 통해 수수료를 내면, 특정 숲의 탄소흡수량을 해당 기업 명의로 돌려 그만큼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상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B. 우먼포아프간우먼

NFT를 이용한 가상화폐 기부금 전달은 해외 자금줄이 막힌 국가에 새로운 돌파구로 작동한다. NFT는 중앙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세가 불안한 일부 국가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는 모금 단체들은 해외 자금을 가상자산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2021년 8월 미군 철수 이후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인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경기 침체와 여성 억압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탈레반의 정권 장악 이후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활동하는 구호단체들은 미국 정부의 달러 송금 제재를 피해 NFT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Womenforwomen, n.d.).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단체 '우먼포아프간우먼'은 아프가니스탄과 뉴욕에서 권리를 박탈당한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전념하는 시민사회단체이다. 우먼포아프간우먼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NFT 회사인 Bookblocks.io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Bookblocks.io는 2021년 10월 5일에 NFT를 발행하여 우먼포아프간우먼에 제공하였다(Roy Billington, 2021).

Bookblock.io에 따르면 우먼포아프간우먼이 기획한 NFT의 모델은 여성 인권의 선구자인 루이자 메이 올cott(Louisa May Alcott, 1832~1888)이었다. “그녀는 많은 유명한 글을 통해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며, 열렬한 페미니스트, 차별 폐지론자, 여성 참정권 지지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과 소녀들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평등을 찾도록 돕는 데 전념하는 우리의 자선 활동에 완벽한 영감을 준 것 같습니다.” NFT는 두 개의 다른 나비 날개를 가진 루이자 메이 올cott의 초상화를 기초로 만들어졌다. 우먼포아프간우먼은 2021년 11월 NFT 모금으로 95만 달러(약 11억 원)의 기금을 모금하였으며, 판매 초기 수익금과 함께 이후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 5%도 우먼포아프간우먼에 기금으로 전달된다. 우먼포아프간우먼은 2021년 10월 첫 NFT 판매 이후 지속적으로 모금 캠페인을 이어나가고 있다(문일요, 2022).

C. 유니세프 75주년 NFT 판매

유니세프 75주년을 기념해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이자 예술가인 나디에 브레머와 함께 패치워크 킹덤스(Patchwork Kingdoms)로 불리는 NFT 컬렉션을 제작했다. 이번 컬렉션은 UN이 출시한 데이터 기반의 NFT 작품 첫 사례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으며 이더리움 재단과 스노크래쉬, CfC 세이트모리츠, 메타굿이 지원하였다. 21개국 28만 개의 학교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이번 컬렉션의 각 작품은 ‘학교’를 상징한다. 연결된 학교를 상징하는 ‘위’ 세계와 연결되지 않은 학교를 상징하는 ‘아래’ 세계가 있는 가운데 ‘아래’ 세계의 열은 색 사각형은 연결 부족을 의미하며 ‘위’ 세계의 활기찬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번 NFT 컬렉션은 학교 연결에 대한 기가(Giga) 라이브 지도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어린이 권리 증진에 기여하는 인터넷 기술의 필요성과 이미 연결돼 실현되는 곳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유니세프는 밝혔다. 제작자 나디에 브레머 역시 “우리가 한 번쯤 경험했을 어린 시절의 경이로운 느낌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기가 라이브 지도를 아트워크화하며 기가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로 인터뷰하며 프로젝트의 취지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Unicef, 2021).

초기 제시된 NFT 작품 가격은 하나당 0.175이더리움으로 유니세프는 2021년 11월 23일 사전 구매 등록인 ‘화이트리스트’를 진행하여 7,000개 넘는 계정 구매 신청을 확인하여 사실상 완판을 예고했다. 유니세프는 작품 제작에 참여한 예술가인 나디에 브레머에게 부여하는 1개를 제외한 999개를 추첨을 통해 판매하였다. 유니세프는 75주년 NFT 판매를 통해 총 74만 달러(8억 8,400만원)를 모금했다고 밝혔으며, 이 중 1,000개 NFT는 55만 달러 (약 6억 5천만 원)에 판매됐으며 4건의 한정판 및 사전 판매 NFT는 14만 달러 (약 1억 6천만 원)에 판매됐다고 전했다(Coinness, 2021). 또한 이번 유니세프 75주년 NFT 작품 구매자들은 기가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스냅샷(특정 시점에 특정 코인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갖게 된다. 이에 2차 경매 플랫폼으로부터 20% 로열티를 받아 5만 달러를 추가로 확보했다(문일요, 2022).

유니세프는 75주년 NFT 판매 수익금을 기가(Giga) - 학교와 지역사회의 인터넷 연결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유니세프와 세계전기통신연합이 추진하고 있음 - 와 유니세프 이노베이션 사무소의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한다고 밝혔으며, 현재 기가의 목표는 100만 개 이상의 맵핑을 통해 3

천 개 이상의 학교를 연결해 7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라 전했다.

헨리에타 포어(Henrietta Fore)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프로젝트 발표 당시 “유니세프는 75년간 어린이의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기회라면 함께할 것입니다.”라며 “전 세계는 점점 연결되고 있는데, 여전히 어린이 13억 명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어린이들의 공평한 온라인 학습 기회를 위해 유니세프 이노베이션 사무소와 함께 전 세계 정보 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인터뷰하였다. 또한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유니세프의 첫 번째 글로벌 NFT 컬렉션 출시를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젊은 세대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라고 밝히며 유니세프의 지속적인 NFT 발행의 의지를 밝혔다.

자금 유치의 관점에서 발행 기관은 NFT 시장을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초기 자금 조성 이후에도 2차시장에서의 지속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를 통해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NFT의 경우 NFT 예술품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목적과 의미를 기부자들에게 더욱 잘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NFT의 판매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NFT 자체를 기부 받는 경우도 있다. 월드비전의 경우 손흥민 NFT를 기부 받아 가상자산을 기부하는 후원자 중 추첨을 통해 증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가상화폐로 기부를 받는 것보다 NFT로 기부를 받는 경우는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NFT 현물기부에 대한 가치 산정이다. 시장성이 낮은 NFT 시장은 예술품과 같이 그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NFT의 보관, 판매 등의 과정을 NPO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해킹, 분식 등의 위험이 있고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법적으로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NFT관련 주요 동향과 소비자 이슈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NFT는 아직 법률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의 문제, 지식재산권 보장의 문제, 원작자의 경제적 피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현행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NFT는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기보다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초자산에 대한 일종의 등기권리증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어 과연 NFT가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이에 따라 NFT의 거래 방식은 저작권 라이선싱과 법적 환경이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실제로 거래되는 대상(object)이 라이선싱의 경우 각종 ‘권한(rights)’ 그리고, NFT 거래의 경우 특정 ‘소유권(ownership)의 일부’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NFT 판매자는 ‘사용권 및 거래권’만 판매한 것으로, NFT 구매자의 경우 ‘소유권’을 양수 받은 것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정영훈, 2022).

가치 산정의 문제, 보관 및 관리 문제, 인식과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고려하면 NFT를 직접 기부 받기 위해 법률, 회계, 세무 전문가들과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NFT는 새로운 기부 활로를 만들고 프로젝트의 의미 전달 및 기금 모금의 효과와 함께 기부자에 대한 사후적 커뮤니티 관리에 유용한 수단이긴 하나 아직까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분야이다.

3. 기부 참여 증명 및 리워드

NFT는 특정 자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소유자에게 부여하며, 고유성과 희귀성을 갖춘 디지털 방식으로 이러한 소유권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으로 큰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NFT는 소유권 표현 이상으로 아티스트, 음악가, 작가와 같은 크리에이터에게 작품의 복사본을 구입할 때마다 지불하는 로열티를 통합하여 NFT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로열티는 다양한 조건으로 설정이 가능하여 작품이 2차시장에서 거래될 때마다, 제작자는 거래에서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NFT의 특징으로 인해 다양한 단체에서 NFT 작품을 판매하는 방식 이외에 자체 NFT를 발행하여 기부 참여 리워드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알고랜드, 2021). NPO는 NFT 발행을 통해 프로젝트의 내용을 담을 수 있고,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되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또한 계약 조건에 따라 첫 판매 이후 2차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원저작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어 추가적인 기금 마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부 참여 리워드 사례는 [표 8]에 요약하였다.

[표 8] 기부 참여 NFT 리워드 사례

프로젝트	주요 내용
메이시스의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시스(Macy's)는 2021년 11월 95번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주제로 NFT를 발행해 판매 수익금을 자선단체 메이커어워시재단(Make A Wish)에 기부 • NFT 토큰 누구나 무료 발행, 다만 메이시스는 2차시장의 모든 재판매에서 10%의 수수료를 보장
업비트 우크라이나 기부 리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회원 902명 총 1억 6천만 원 상당의 1,5918 비트코인과 22,7495 이더리움을 우크라이나에 기부 • 두나무는 2022년 3월 디지털 자산 기부 캠페인에 참여한 업비트 회원들에게 기부 증명 NFT를 지급
사단법인 프렌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9월 저개발 국가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위한 기부 캠페인 • 캠페인을 통해 1004개의 NFT를 발행하고 디지털 자산지갑에서 NFT 확인 가능

A. 메이커어워시재단 NFT 무료 발행

미국 최대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Macy's)는 2021년 11월 95번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주제로 NFT를 발행해 2차시장에서 유통시 발생하는 판매 수익금을 자선단체 메이커어워시재단(Make-A-Wish)에 기부한다 밝혔다. 2021년 11월 25일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풍선 디자인의 이번 컬렉션은 95번째 퍼레이드와 동시에 9,510개의 NFT 한정판 컬렉션을 공개한다. 메이시스 백화점은 NFT 컬렉션을 폴리곤 블록체인 기반의 NFT 마켓을 통해 발행하였다(Bill Haddad, 2021).

NFT 토큰은 누구나 무료로 발행 가능하다. 다만 메이시스 백화점은 2차시장의 모든 재판매에서 10%의 수수료를 보장하기 위해 각 토큰의 스마트 계약을 구성하였으며 수익금은 메이커어워시재단에 기부되어 영구적인 기금 조성이 가능하다. 즉, NFT 발행에 참여하면 무료로 NFT를 발행받아 소유하거나 재판매 활동에 참여하면 잠재적인 수익과 기부를 할 수 있는 구조이다. NFT는 클래식(Classic), 레어(Rare), 울트라 레어(Ultra Rare)를 포함해 다양한 등급별로 제공된다. 이 중 울트라 레어 카테고리의 경우 특별 경매에서 벌어들인 수익금 100%를 메이커어워시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Stacy Elliott, 2022).

NFT는 폴리곤 블록체인 위에 구축된 Sweet NFT 마켓 플레이스에서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메이시스는 이미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작되어 30일까지 10개의 에픽 메이시스 퍼레이드 NFT(Epic Macy's Parade NFT) 특별 자산 경매도 진행한다. 판매 수익금은 메이커워시 재단에 기부되는 구조로 무료로 제공되는 NFT와 더불어 경매를 이용한 기부 활동에도 NFT를 활용하고 있다(Macy's, n.d.).

메이시스 측은 “이러한 방식으로 NFT 기술을 사용, 메이시스는 전통적인 방법이 일반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자선 기부의 경로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이커워시미국의 자넬 홀라스 마케팅 부사장은 “사람들은 기부를 인증하는 배지처럼 자선 활동을 하는 대가로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한다”며 “NFT는 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B. 두나무, 우크라이나 기부 증명 NFT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여러 구호의 손길이 우크라이나로 향했다. 전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망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과 NFT 기부를 통해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자청했다. 한국 역시 도움을 함께하고 있다. 전쟁 발발 한 달 이내 국내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회원 902명은 총 1억 6천만 원 상당인 1,5918 비트코인과 22,7495 이더리움을 우크라이나에 기부했다(이형두, 2022).

이에 두나무는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는 디지털 자산 기부 캠페인에 참여한 업비트 회원들에게 기부 증명 NFT를 지급한다 밝혔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는 디지털 자산 기부 캠페인은 지난 3월 4일부터 20일까지 업비트에서 진행하였으며, 총 902명의 업비트 회원들이 1억 6천만 원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기부했다. 이와 관련, 두나무는 4,800만 원 상당의 출금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기부 증명 NFT 발급을 약속한 바 있다. 두나무는 기부에 참여한 업비트 회원 중 수령에 동의한 800여 명에게 기부 증명 NFT를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부 증명 NFT는 발달장애 아티스트 박병준 작가의 작품 〈평화의 파랑새〉로 진행해 더욱 의미 있다. 〈평화의 파랑새〉는 소녀가 날린 파랑새가 다른 파랑새를 만나고, 여러 마리의 파랑새가 모여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의미를 담은 작품으로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

았다. 발달장애 예술가의 작품을 기부 증명 NFT로 지급함에 따라,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재능이 안정적인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 증명 NFT는 기부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기부 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과거 MZ세대를 중심으로 ‘굿굿즈(Good Goods; ‘착한 상품’을 뜻하는 굿굿즈는 판매 수익의 일부가 좋은 일에 쓰이는 상품)’ 열풍에 이어 MZ세대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개성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NFT가 가진 희소성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굿굿즈로 화제를 모은 대표적인 단체가 유니세프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every child 반지’를 정기 후원 리워드로 선보이며 20~30대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옷핀을 구부려 놓은 듯한 독특한 디자인이 인기 요인으로 작용했다. 셀럽들의 동참도 영향을 미쳤다. 슈퍼주니어 최시원이 이 반지를 낀 사진이 퍼지면서 유니세프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한국본부는 ‘북극곰 살리기 캠페인’에 참여하는 정기 후원자에게 북극곰 팔찌와 파우치를 보내준다. 또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한 후원자들에게는 스테인리스 빨대를 지급했었다(문일요, 2019).

NFT 리워드 역시 같은 이유로 MZ세대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NFT를 통한 기부 참여 리워드는 해외 단체뿐 아니라 국내 단체들 역시 활동도가 높아지는 분야이다. 자금 유치의 관점에서 발행 기관은 NFT 시장을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초기 자금 조성 이후에도 2차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를 통해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NPO의 경우 영리 기업에 비해 재정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구축이 중요한 과제이다.

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NFT 기반 리워드를 제공하는 것이다. 영리기업처럼 큰 행사를 진행할 수는 없지만 온·오프라인 상의 혜택 등을 통해 NFT를 소유한 소유자들에게만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관 및 단체들이 NFT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핵심 고객층을 중심으로 하되 커뮤니티를 통해 그 연결성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NFT와 관련된 굿즈 등을 제공하고 정품 확인 및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MZ 소비자의 감정과 욕구를 반영한 콘텐츠와 혜택(리워드)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굿굿즈(Good Goods)의 리워드만 받아낸 뒤 다음 달 바로 후원을 취소하는 부작용과 함께

NFT는 자산으로 거래 및 활용되기 때문에 여러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NFT관련 주요 동향과 소비자 이슈에 따르면, NFT의 원작자에 대한 피해를 전달하고 있다. 보고서는 원작자의 동의 없는 NFT 발행으로 원작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NFT 발행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원작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콘텐츠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NFT 발행에 활용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국내 한 픽셀아트 작가의 작품이 해외 NFT 거래소에서 재편집·활용되어서 NFT 발행 후 수익 원대에 판매된 사례가 발견되는 등 원작자 동의 없는 2차 창작물은 물론 원작물 자체를 타인이 NFT로 발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NFT를 발행한 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정영훈, 2022).

4. 기부를 위한 메타버스 활용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추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이다. 가상현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원격지에 떨어져 있는 사물이나 현상을 마치 내 눈 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친환경, 안전, 저비용, 다양성 담보, 평등과 공정, 문화향유권의 장점을 가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먼저 친환경, 안전, 저비용은 가상공간에서 이벤트를 개최하면 저비용으로 전염병이나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관람이 가능하고 이동거리를 줄임으로써 탄소배출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다양성 담보는 현실 세계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나 지역, 언어라는 물리적 제한 때문에 진정으로 다양한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지만 메타버스에서는 물리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한 확장이 가능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 활동할 수 있다. 평등과 공정은 사용자들의 투표에 의해 가상세계의 규범을 결정하도록 하여 특권층이나 재산 보유자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사회 구현이 가능하며, 문화향유권은 박물관의 공간상의 제약이나 훼손 방지 등의 이유로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수많은 문화유산들을 공간 제약 없이 무한대로 관람할 수 있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한라산 등반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까지도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가진 메타버스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NPO에서 비대면 채널 활용은 초기단계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NPO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변화에 관한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8.2%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을 줄이거나 중단했다’고 답했으며, 이 중 25.9%는 서비스 제공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답하였다(김성주, 이영주, 정민정, 2021).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증가가 NPO의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로, 현재 다양한 영리 기업들이 비대면 증가에 발맞추고 있는 것이 비해 NPO 분야에서 비대면의 전환이 늦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기부를 위한 메타버스의 활용 사례는 LG전자, 유한김벌리 등 영리 기업에서의 이벤트성 활동 외에 2021년 11월 진행된 그린피스의 메타버스 ‘제페토’에 레인보우 워리어 호 맵 개설이 있다. 이들 모두 이벤트성 활동으로 기부를 위한 메타버스의 활용은 아직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이러한 이벤트성에서 벗어나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며 공진화하고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기부 플랫폼들이 개설되고 있다.

베타버스(Betterverse)는 기부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현재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에 있다. 베타버스는 자선단체를 선택하여, 나무 심기, 탄소 절감에서 생물 다양성을 위한 활동까지 다양한 분야에 기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부 이후 NFT를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했다. 메타버스 서비스는 아직 진행 전으로 2023년부터 메타버스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베타버스의 메타버스 서비스가 런칭되면 기부 참여자는 가상자산의 기부, 기부를 통한 보상,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한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기부 활동에서의 메타버스 활용이 활발하지는 않다. 다만 많은 단체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이 활성화된다면 베타버스가 진행하는 것과 같이 커뮤니티 역할과 함께 NFT 거래,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다.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진 기부 및 비영리 활동은 [표 9]에 정리하였다.

[표 9] 메타버스 활용 사례

프로젝트	주요 내용
그린피스 레인보우 워리어호 (GreenPeace Rainbow Warri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리어호는 1978년부터 남극해와 북극해, 아마존강 등에서 환경 파괴 행위를 밀착 감시하고 기후 변화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와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린피스의 대표적인 환경 감시선 • 제페토상의 '그린피스 환경 감시선'은 실제 레인보우 워리어호를 가상세계에 옮겨놓은 것으로 돛을 펼치고 항해하는 모습과 헬리콥터 착륙장, 구명보트 거치대 등 선박 외형은 물론, 선장실과 조타실, 회의실, 복도, 조리실, 식당 등 선박 내부까지 실제 레인보우 워리어호의 구조 그대로 설계
LG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G전자는 '모여봐요 동물의 숲', '포트나이트' 등 게임 메타버스 플랫폼에 LG 생활가전 체험존을 운영 • LG전자는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들과 함께 비영리 단체인 한국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Korea)에 약 21만 달러(한화 2억 5천만 원)를 기부
월드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통해 난민촌을 직접 체험해보는 세계시민교육을 진행
롯데 컬처웍스의 해피앤딩 (Happy An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피앤딩 영화제작교실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 진로교육의 일환 • 총 16주의 커리큘럼을 통해 영화 기획부터 완성, 편집, 제작, 상영까지의 전 과정을 교육받고 실습 진행 • 2022년까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사회공헌 파트너십을 맺고, 6년간 수도권권의 19개교 507명의 학생이 참여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활용
유한킴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른 숲을 테마로 한 가상세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제페토 맵'을 오픈 • 맵에 있는 거대한 나무 '숲'의 꼭대기에 올라가 인증사진을 찍고 제페토 내에 업로드하면, 인증한 수만큼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유한킴벌리가 제품 1만 개를 기부
트리노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리노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연말 행사 '쉐어 투게더'를 진행하여 부산·경남지역 학대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

5. 소결

여러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PO의 블록체인, 가상자산 및 메타버스의 활용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클라우드 기부 플랫폼은 분산 원장을 이용하여 기부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NPO의 기부의 투명성과 부합하여 꾸준히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기부 플랫폼상에서 다양한 가상자산의 기부를 받을 수 있고 기부와 관련된 여러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국제적인 대형 NPO부터 특화된 소규모의 NPO까지 다양한 기관이 활용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부는 가상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 증가한 소득을 이용한 가치 실현 및 기부 세금 혜택으로 인해 지난 2년간 빠르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대형 국제 기부금 단체들도 가상자산 기부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홈페이지에 가상자산 기부 메뉴를 만들고 SNS에서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커뮤니티에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여 수익이 확정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기부하는 것보다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바로 기부하는 것이 실질적 세금 혜택이 높아 가상화폐를 직접 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금을 송금할 수 없는 지역으로의 가상자산 기부도 증가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크라이나 지원 기부를 들 수 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가상자산을 모금하고 가상자산으로 송금하였다. 하지만 국내 NPO의 경우 가상자산의 변동성, 행정 부담 및 법인 가상화폐 현금화의 한계로 아직은 가상화폐를 원화로 현금화하여 받는 경우가 많다. 가상화폐로 받더라도 바로 현금화하여 바로 기부금 가치를 원화로 확정하고 기부의 세무적·회계적 가치 평가를 확정 짓는다.

NFT 시장이 성장하면서 NFT 발행 아티스트·단체가 NFT의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는 사례도 증가하였다. NFT는 발행 즉시 판매 수익금을 기부할 수도 있지만 2차 판매가 일어나면서 일정 비율이 NPO에 지급되도록 프로그래밍하면 NPO들에게 추가적인 기부 원천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FT를 판매한 수익금을 기부 받는 형태도 있지만 기부단체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NFT를 아티스트와 사전 합의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각 기부단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NFT를 통해 표현하고 그 상징성과 의미를 알리는 효과도 있어 NFT의 활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익금으로 가상화폐를 기부 받는 것 외에 NFT 자체를 기부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가상자산 변동성 및 규제와 관련하여 고려할 점이 있어 상대적으로 활용 사례가 많지 않았다.

굿굿즈 열풍과 NFT의 희소성으로 NFT를 기부 참여 리워드로 활용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비가역성을 고려하면 이를 기부증명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NFT를 발행하여 기부증명서로 사용하는 NPO들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NFT를 받고 기부를 취소하는 굿굿즈의 문제뿐 아니라 NFT 자체가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NFT가 컬렉션으로 활용되는 것 이상으로 여러 기능이 추가되면 ‘법적으로’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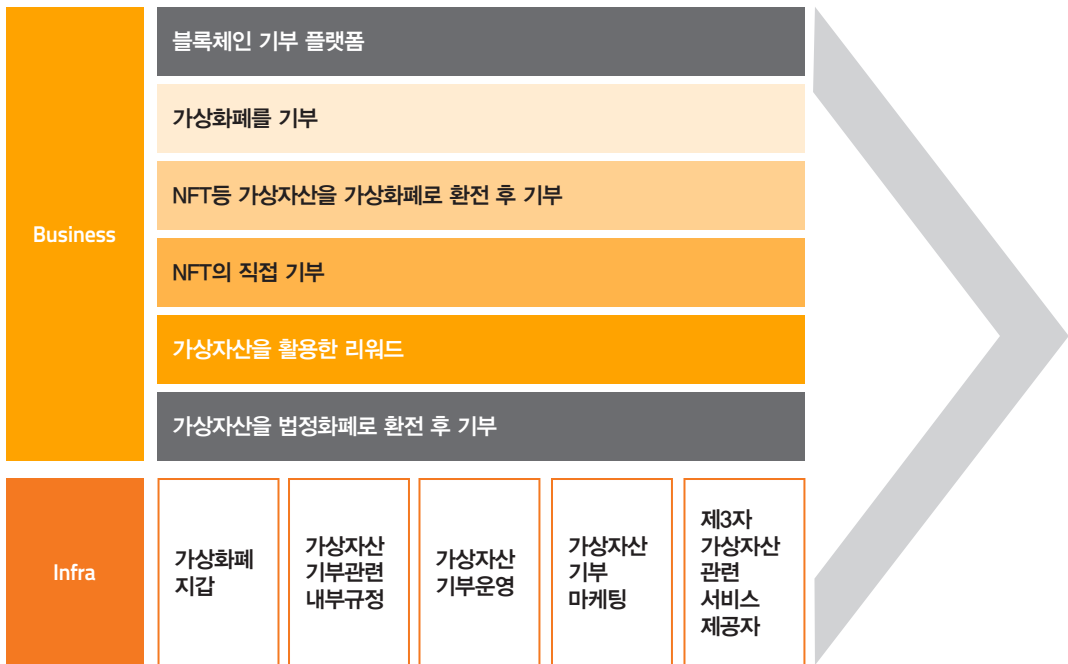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채널의 확대로 인해 메타버스 시장이 성장하였고 디지털 가상환경이라는 면에서 가상자산 기부, NFT 등의 활용이 쉬워 NPO가 메타버스와 가상자산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아직 대부분의 단체는 메타버스 플랫폼 상에서 행사를 진행하거나 이벤트성 활용을 하고 있지만 향후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을 모금하는 데 활용되는 중요한 채널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Ⅲ. 가상자산을 모금에 활용하기 위한 실행 요건

이전 장에서 현재 NPO들의 블록체인, 가상자산 및 메타버스 활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국내에서도 이미 몇몇 NPO들은 가상자산 기부를 시작하거나 준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NPO 담당자들은 가상자산 기부를 시작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실제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2022년 3월에 개최한 ‘비영리를 위한 가상화폐와 NFT 활용 사례’ 온라인 세미나 이후 가상자산 기부에 대해 많은 질문이 들어왔다(장윤주, 2022).

질의가 많이 들어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기반 기부 실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번 장에서 알아본다.

[그림 2] 가상자산 기부 밸류체인



이전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을 기부에 활용하는 유형은 아래와 같다.

- 가.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
- 나. 가상화폐의 기부
- 다. NFT 등 가상화폐를 제외한 가상자산을 가상화폐로 환전 후 기부
- 라. NFT 등 가상화폐를 제외한 가상자산 자체를 기부
- 마. 가상자산을 발행하여 리워드로 활용
- 바.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환전 후 기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상화폐 지갑, 가상자산 관련 규정, 기부 운영, 기부 마케팅 및 제3자 서비스 제공자 등의 인프라가 필요하며 이를 [그림 2]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첫번째 유형인 블록체인을 이용한 기부 플랫폼은 정보의 비가역성, 투명성 등을 이유로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진행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기부 플랫폼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NPO에서 직접 운영한다기보다 대부분의 경우 클라우드 기부 플랫폼에서 진행이 되어 대부분의 개별 NPO가 추진하고 있는 가상화폐, NFT 기부와 사업적 진행 영역이 달라 이 장에서는 따로 소개하지 않겠다. 이 장에서는 가상화폐나 NFT를 기부 받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필요한 준비 내역들을 살펴본다. 또한 가상화폐를 기부 직전 원화로 환전하여 기부하는 경우도 NPO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기부 받는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이 장에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기부를 받은 NPO의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을 가상화폐로 환전 후 기부 받는 것과 가상화폐를 기부 받는 것은 같은 것이므로 가상화폐 기부로 통칭할 수 있다. 물론 기부 프로모션을 하는 입장에서는 타겟하는 고객이나 마케팅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나 실제 NPO 운영 및 인프라를 고려하는 관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가상화폐 기부’ 하나로 합쳐서 설명하겠다.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환전 후 기부하는 것도 NPO의 입장에서는 법정화폐로 기부를 받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인프라와 운영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프라 및 운영 방법의 차이는 따로 이 보고서에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새로운 기부자 그룹으로 마케팅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므로 타겟하는 기부자층에 대한 마케팅은 달라져야 한다.

가상화폐를 NPO가 기부 받기 위해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 인프라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고 다른 사업 유형은 가상화폐 기부를 위한 인프라와 달라져야 하는 점,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겠다.

1. 가상화폐의 기부

가상화폐 자체를 기부 받거나 NFT 등의 가상자산을 판매 후 가상화폐로 기부를 받는 경우이다. 가상화폐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가상자산을 통한 기부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술 및 인터넷, SNS 문화의 발전으로 기부의 채널이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기부에 대한 관심과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NPO에서 가상화폐로 기부를 받기 위해 내·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1) 내부 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정의해야 하는 것은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다(Gelatt, 1962).

오랑우탄 아웃리치(Orangutan Outreach)는 성공적으로 가상자산 기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중 하나이다. 2020년 NFT 프로젝트인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Bored Ape Yacht Club)에서 169 이더리움(당시 약 4억 6천만 원 상당 가치)를 받은 이후 2021년에는 2020년의 모금액보다 더 많은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모금했다.

오랑우탄 아웃리치가 가상자산 기부를 받는 것 중 가장 어려운 점은 내부 합의의 과정이었다. 2020년 처음 가상자산 기부를 받기 전에 내부의 이사회 멤버들이 강하게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에 대한 우려와 가상자산 기부를 받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내부 교육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가상자산 기부의 이해를 높이고 내부 합의에 도

달하여 가상자산 기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The Giving Block, n.c.d).

가상자산 기부를 받는 첫 단계는 현재의 상황과 해결해야 할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 목표가 조직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조직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교육을 통해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 특히 가상화폐의 기부는 테라·루나 사태, 해킹 등 사건·사고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윤리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NPO에서 도입을 주저하기도 한다. 가상 자산의 부정적 부분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까지 두루 이해한 후 이것이 NPO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기존의 금융 거래 방식과 다른 가상화폐 운영 방식을 이해하고 운영 시 위험 요소를 인식해야 한다.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기부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 교육, 논의를 동반한 내부 합의의 달성이 필요하다.

(2) 내부 규정 점검

가상자산 기부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부 합의가 되었다면 이제 NPO 내부 준비를 해야 한다. NPO에서 가상자산 기부를 도입할 경우 현재 NPO 내부 규정에서 신설, 수정, 삭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A. 비현금성 기부 규정

가상화폐 기부는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등의 기부와 같은 비현금성 기부로 볼 수 있다. 조직에서 비현금성 기부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가상화폐의 평가, 회계 처리, 기부영수증 발행 시 기부금액 적용 등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시장가격의 변화가 있는 주식, 채권을 기부 받은 경험이 있는 단체의 경우 가상자산 기부의 가치 평가 처리 부분은 쉽게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단체는 주식 포함 현물을 기부 받은 경험이 없어 가상화폐로 기부 받는 것을 더 어렵게 생각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가상화폐 기부에 대한 부분만 다루고 있다.

B. 가상자산 기부금 관리 규정

가상자산은 전자지갑이라고 불리는 계정을 사용하여 거래한다. 지갑이라고 명명하여 물리적으로 가상자산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래를 위한 개인키를 보관하여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공개키는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번호라고 생각하고 비밀키는 은행계좌 비밀번호라고 생각하면 된다. 계좌 비밀번호를 알면 자금을 인출하거나 쉽게 이체할 수 있는 것처럼 개인키가 유출되면 가상자산을 탈취당할 수 있다. 전자지갑은 은행계좌처럼 실명 확인이 되지 않아 개인키만 있으면 누구나 가상자산을 이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운영으로 인해 탈취당한 자산은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가상자산 기부금을 거래할 수 있는 비밀키를 담은 전자지갑의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기부 받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필요시 법정화폐로 어떻게 환전할 것인지 미리 내부 규정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보다 종류가 많다. 2022년 9월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179종에 달한다. 상장되어 있지 않은 가상화폐는 더 많다. 기부를 받는 가상화폐의 종류를 많이 허용하면 관리와 현금화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가상화폐의 종류를 너무 적게 하면 잠재적인 가상화폐 기부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거나 다른 가상화폐로의 환전 비용을 발생시켜 기부 참여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미리 어느 가상화폐를 받을지에 대한 내부적인 조사와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참고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기부 가능 가상화폐를 선정할 때 미국의 가상자산 신용평가 회사(기관)인 '와이즈 레이팅스'의 디지털 화폐 평가 등급을 사용한다. 평가 등급은 가상자산의 기술력(Technology), 수용성(Adoption), 위험성(Risk), 모멘텀(Momentum)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모금회는 디지털자산의 안정성,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B 등급 이상의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장윤주, 2022).

가상자산 또한 현금 또는 비현금성 기부와 같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법정 신고 절차가 요구된다. 이때 가상자산의 가치 평가 방법, 기부금 영수증상 금액 결정,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비용을 기부로 포함할지 아닐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을 기부 받자마자 현금화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한 가지고 있거나 또는 필요 시에 환전해서 사용할 것인지 등의 의사 결정과 이에 따른 세부 규정이 필요할 수 있다. 환전 시기, 환전 방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법정화폐 환산 가치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상자산 기부금 회계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가 함께 안전하고 투명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C. 익명 기부에 대한 규정

대부분의 NPO는 익명 기부에 대한 내부 절차를 가지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거액의 익명 기부를 심사하고 기부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2021년부터 익명 기부도 향후 실명 기부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익명 기부를 받을 당시에는 위험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현금 기부는 계좌나 카드 등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기부되지만 가상자산 기부는 지갑을 통해 송금되는 형태이고 이 지갑은 실명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이용되거나 범죄와 관련될 가능성 등으로 인해 기부 단체의 이미지에 손상을 줄 경우를 고려하여 익명 기부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실제로 2020년 다크사이드라는 해킹 단체가 기업들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갈취하여 두 자선 단체에 익명으로 1만 달러씩을 송금하고 이를 다크넷에 게시하는 일이 있었다.

실제로 가상자산 기부에 있어서 익명 기부의 비율은 꽤 높다. 정확한 통계치는 알 수 없지만 실제 사례를 통해 가상자산 기부자들의 정보를 살펴보자.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상자산 기부 프로젝트 HODLHope(hodlhope.org)는 약 7백만 달러(약 9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모금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3백 8십만 달러(약 54억 원)는 익명으로 기부된 금액이다. 최고 10만 달러에서부터 몇 센트에 해당하는 다양한 종류의 가상화폐를 기부했다. 이들은 익명으로 기부하여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기부영수증 발급을 받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남겨 선한 영향력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3은 HODLHope의 홈페이지에 있는 익명 기부자 리스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내역에는 기부자들이 남긴 메시지와 가상화폐 종류, 기부 금액 및 대략적인 달러 환산금액이 적혀 있다. 자신들이 기부하고 싶은 대상, 감사의 표현 등을 자유롭게 남긴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익명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고자 하는 가상자산 기부자들을 위해 익명 기부에 대한 규정의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3] HODLHope 익명 기부자 기부 내역 일부 발췌

Top Donors	
Anonymous	donations for \$3,845,694
I would prefer to hand over the money myself, but I trust that it is in g...	100046.7614 USDC (\$99,785)
For the Ukraine Crisis Fund. From: Meta K, Mookie, Blue, B8B, Christine...	28.5 ETH (\$93,373)
for Ukraine	4005866.8025520965 GUSD (\$42,478)
Converted 30 ILV to 7.38 ETH to date it	7.38 ETH (\$34,385)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do	4 ETH (\$10,373)
for Ukraine from Victor Shaburov	10004 USDC (\$10,001)

참조: <https://hodlhope.org/home>

(3) 운영

이제 실제 가상자산 기부를 받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살펴보자. 규정 및 행정적인 절차가 계속 변화하고 있어 실제 실행 전에 규제 관련 내용은 한번 더 담당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와 확인하는 것이 좋다.

A. 가상자산 지갑

기부를 받기 위해 은행계좌가 필요한 것과 같이 가상자산 기부를 받기 위해 단체는 가상자산 지갑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지갑은 서비스 제공 회사가 많기 때문에 실명 확인 등의 절차 없이 이메일 주소 확인만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소유주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거나 확인되기 어려우므로 법인에서 업무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가상자산의 거래, 환전 등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안에 법인 실명이 확인된 가상자산 지갑(계정)을 여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가상자산 지갑 개설은 우선 가상자산 거래소에 하는 것을 기초로 설명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법인 계정 개설 안되거나 된다 하더라도 원화를 기초로 한 가상자산 거래, 원화 입출금, 연결 은행 계좌 등록에 제한을 두고 있다. 2021년 12월 2일부터 고객확인제도가 시행되면서 특금법에 따라 서류 제출과 심사 요건을 강화했거나 강화하고 있다. 2022년 10월 현재 법인 계정 개설에 대한 국내 원화 시장 거래소 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A 거래소: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권고하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준수를 위해 내부 심사 정책을 보완 중이어서 2022년 10월 기준 법인 계정의 서류 심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이다. 가이드 라인이 완료되면 법인 계정을 개설할 수는 있으나 원화 입출금, 연결 은행 계좌 등록, 가상자산을 원화로 거래하는 시장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B 거래소: 2021년 11월 이후 법인의 신규가입 및 거래는 불가하다. 2021년 11월 이전 가입된 법인 회원은 거래를 위해 고객확인 절차를 진행하면 자산 출금을 할 수 있다.

C 거래소: 홈페이지에는 법인회원 가입에 대해 법인 대표자 혹은 대리인의 은행 계좌를 법인 계정에 연결할 때 회원 가입이 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 원화 인출 및 가입 절차 확인 요청을 보냈으나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D 거래소: 법인의 은행 계좌와 연동이 되지 않아 현재는 법인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다.

E 거래소: 직접 고객센터로 필요 서류를 들고 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 계정을 열 수 있다. 가상자산의 인출은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가능하나 원화 인출은 불가능하다. 거래소의 정책이 계

속 바뀌고 있어 고객센터와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하고 진행하기를 권한다.

〈참고〉 E 거래소 법인 계정 개설 시 필요 서류

(※ 모든 서류는 방문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되어야만 정상 접수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 주주명부
 - 최대 지분을 보유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실제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 생년월일 등이 명시 및 발행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실제 소유자는 최종 자연인으로 확인되어야 함(법인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 법인과 E 거래소 회원 가입 신청 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직전년도 재무제표
- 법인인감 지참: 법인인감 지참 불가 시 E 거래소 고객센터로 문의
- OTP 수신용 휴대전화 번호의 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 휴대전화 번호 전부 노출
 - 법인 명의를 아닌 경우 명의인의 재직증명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OTP 수신용 휴대전화번호 명의자용) 필요
-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가능)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대표자용)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명함
 - 대리인 재직 증명서

법인 계정을 열어주는 거래소에서 계정을 열면 가상화폐를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하거나 가상화폐를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원화로 교환할 수 있는 거래소는 없다. 가상화폐 기부를 받기 위해서는 NPO는 법인 계정을 열어주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계정을 열거나 법인이 지갑서비스를 통해 직접 가상자산 지갑을 열어야 한다. 개별 법인이 지갑서비스를 이용해 직접 가상화폐를 받는다면 해킹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해 콜드월렛⁹⁾에 보관하거나 수탁서비스를 사용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사실 특금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법인회원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자금세탁 관련 잠재적 위험 증가로 인해 은행은 원화를 입출금할 수 있는 실명 계좌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가상자산을 원화로 환전 후 입출금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2022년 4월 S은행이 자금세탁 위험이 없는 일부 법인을 대상으로 가상계좌를 발급해 주었다(문정은, 2022). 이는 시범적으로 심사 후 가상계좌를 발급해 준 것으로 아직 전반적으로 법인계좌 개설이 가능한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업계는 금융위에 지속적으로 법인도 가상자산을 원화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법인 계정에 대한 부분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김하늬, 2022).

이러한 한계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국내 NPO는 가상화폐를 기부 받는 경우 기부자가 가상화폐를 원화로 환전한 후 받는 방법으로 가상화폐 기부 생태계에 접근하고 있다.

B. 가상화폐 기부금 관리

현재 법인이 가상화폐 기부금을 받는 경우 원화 인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가상화폐로 받은 기부금을 가상화폐로 보관, 관리, 환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9) 인터넷에 연결 되지 않은 오프라인 상태로 가상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지갑

(a) 가상자산 기부금 보관 관리

가상자산 지갑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상자산 지갑의 개인키 관리는 중요하다. 가상자산 기부를 받기 위해 온라인 지갑을 열어서 사용한다면 해킹 등으로 인한 가상자산 탈취 위험이 높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은 가상자산을 온라인 지갑에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상태의 지갑인 콜드월렛에 담아 보관한다. 하지만 오프라인상에서도 콜드월렛이 분실 파손될 위험이 있어 여전히 가상자산 보관에 위험은 존재한다.

특히 투자금, 기부금 등을 가상자산으로 받는 법인이나 큰 금액의 거래를 하는 경우,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사용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국내외에 이러한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는 코인베이스(Coinbase), 제미니(Gemini), 비트고(Bitgo) 등의 핀테크 기업뿐 아니라 피델리티, 본토벨(Vontobel), US뱅크와 같은 금융기관 또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금융기관과 블록체인 회사가 함께 가상자산 수탁 사업에 진출한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하이퍼리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탁 서비스 제공 기관은 가상자산의 보관뿐 아니라 장외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OTC 서비스, 수탁자산 운용 서비스, 세무 회계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NPO는 현재 가상자산 지갑이 거래소에 개설되었는지 여부, 거래 규모, 내부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직접 자산을 관리하거나 NPO의 목적에 맞는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수탁한 자산의 보관, 인출, 투자 운용과 관련하여 여러 명의 담당자가 승인을 하는 절차를 만들고 한 명에 의해 자금이 인출되지 못하도록 다중 서명 운영 절차 등을 수립해야 한다.

C. 가상자산 기부금 환전 관리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 법인은 원화시장에서 거래 후 인출이 불가능하다. 원화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는 가상화폐를 인출하여 장외시장(over the counter, OTC)에서 거래를 통해 원화로 교환할 수

있다. 장외시장은 거래소가 아니라 대형, 전문, 고액 투자자가 P2P¹⁰⁾로 거래하는 시장으로 많은 제약 사항이 있다. 장외시장은 일정 금액 이상의 큰 거래가 이루어지고 상황에 따라 원하는 시점에 거래하지 못할 수 있다. 거래소에서는 소액이라도 대부분의 경우 거래가 바로 체결되지만 장외거래는 반대 거래를 원하는 수요를 찾아 일정금액 이상을 거래해야 하므로 언제나 교환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장외시장 거래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많아 원화로 환전 거래는 가능하다. 수탁 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전문적인 장외거래 서비스 기관들이 가상자산의 거래를 원하는 법인이나 대형 거래를 하는 개인 투자자를 연결하여 가상자산을 원화로 환전해 주고 있다.

NPO는 가상자산 기부금 규모, 기부 방식 등을 고려하여 기부금을 환전하는 원칙을 수립하고 투명한 환전 관리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OTC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가상화폐만을 기부금으로 받는다든지,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이 모이면 환전을 한다든지, 특정 날짜에 환전을 한다든지, 가상화폐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에 환전을 한다든지 등의 내부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환전에 대한 관리 부서 및 관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D. 가상자산 기부 및 회계 처리

국내에서는 가상화폐를 기부 받은 경우 즉각 매도한 사례만 있다. 이 사례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은 즉시 매도를 통해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발급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현금 기부금 처리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시차로 인해 변동된 금액 처리에 관해 기부자와 모금 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천만 원 기부를 약정하고 가상화폐 1천만 원 상당을 모금 단체로 이체했는데, 원화로 환전하는 순간 10만 원이 하락했다면 현금으로 10만 원을 더 기부하고 1천만 원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입금된 금액인 9,990만 원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거나 모금 단체와 기부자가 합의해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격차가 매우 크다면, 그리고 기부 받은 가상화폐를 모금 단체가 일정 기간동안 보유하게 된다면 그 가치를 어떻게 환산해야 할까?

10) P2P 거래는 제 3 자 또는 중개자없이 사용자간에 직접 암호 화폐를 사고 파는 행위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가상자산 평가 기준이 마련되었다. 평가 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또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근거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보유한 가상자산의 자산가치 변동에 따라 연말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상속세와는 별개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을 환전, 이체하는 경우 거래에 따른 제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비용을 기부자 측에서 부담할지 NPO가 부담할지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에 반영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사전에 모금기관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개별 기부를 받는 경우는 기부자와의 합의와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장윤주, 2022).

위의 간단한 설명을 참고하고 기부자의 상황, 기부 가상화폐의 종류 등에 따라 가상자산 기부금 영수증 및 가상자산 기부금의 회계적 처리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가상자산 기부 실행 전에 세무당국 및 담당 회계사의 확인 후 처리해야 한다.¹¹⁾

〈참고〉 가상자산 평가 관련 규정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1. 2. 17.>

11) 기부 처리와 과세에 관한 질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질)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하거나, 새로운 이슈는 질의에 회신을 받아 근거로 삼을 수 있다.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Main.jsp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제목개정 2021. 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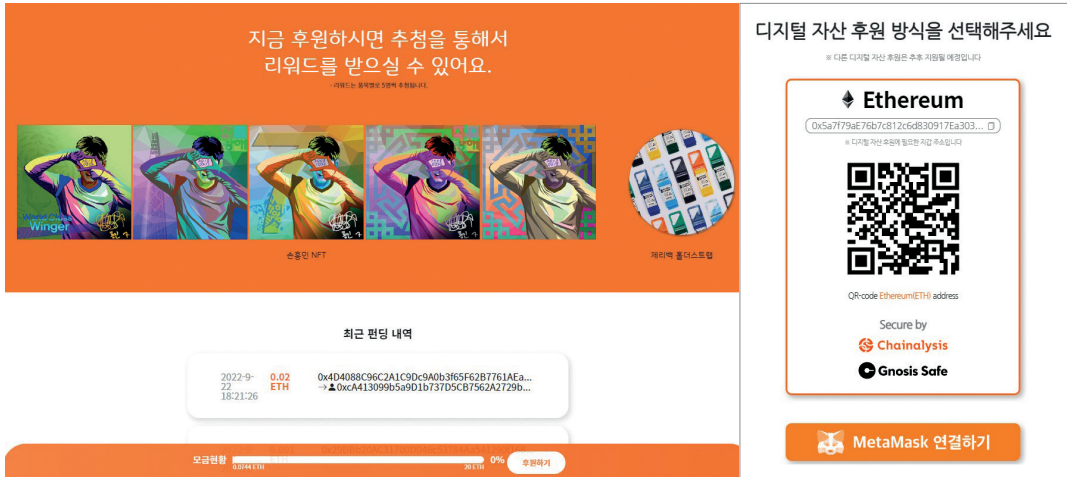
(4) 기부 프로젝트 운영- 모금 활동

가상화폐 기부를 받기로 했다면 이제 모금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가상화폐 모금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Givig Block, n.d.a).

첫번째, 가상화폐 기부를 위한 페이지를 홈페이지에 만든다.

기부 위젯을 사용하여 암호화 유형과 금액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기부 위젯을 만들거나 이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제휴하여 NPO의 웹사이트에 삽입할 수 있다. 기부 위젯에는 기부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필수 정보를 입력하게 한다. 기부 페이지는 기부자가 NPO의 목적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게 간결한 메시지, 이미지 또는 비디오를 넣고 FAQ와 바로 연동이 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사용자들이 쉽게 가상자산 기부를 할 수 있게 만든다. 아래 그림은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 기부를 받기 시작한 월드비전의 가상자산 기부 웹사이트로 기부를 받는 가상자산 지갑 주소 및 메타마스크 지갑과 연동할 수 있게 만든 페이지이다.

[그림 4] 월드비전 디지털 자산 후원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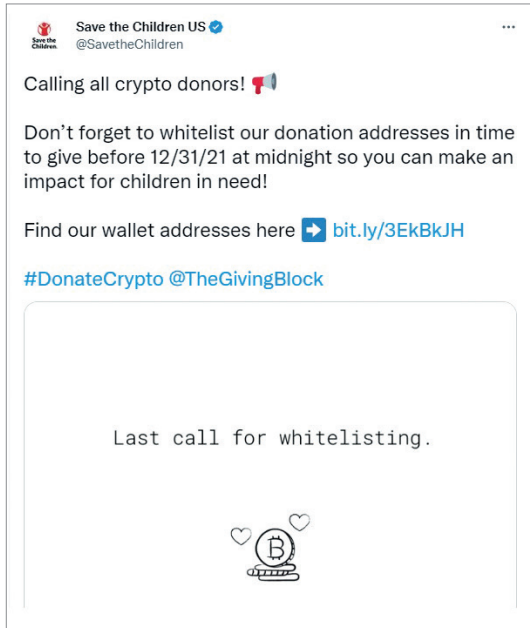


〈출처〉 World Vision Homepage (<https://crypto.worldvision.or.kr>)

둘째, 디스코드, 트위터 등 SNS에 글을 게시한다.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SNS, 기존 뉴스레터, 미디어 등을 통해 가상자산 기부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 사실을 알린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용자나 커뮤니티가 많은 디스코드(Discord)와 트위터는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이외에 사용자가 많은 SNS로도 가상자산 기부 프로젝트,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계속 공유한다. 특히 가상자산은 국내외 기부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고,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영어로 많은 정보와 소식이 전달되므로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운영을 하는 것이 가상자산 커뮤니티나 사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하다.

[그림 5] 미국 세이브더칠드런의 트위터 포스트



참조 : <https://twitter.com/savethechildren/status/1474062502329733128>

셋째, 현재 기부자들에게 가상자산 기부를 받는 원칙에 대해 알린다.

기존에 있는 기부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거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기부자들이 NPO의 새로운 시도 의도와 목표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가상자산 기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줄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커뮤니티에 대한 활동뿐 아니라 SNS, 뉴스레터, 언론 및 다양한 행사를 통해 기존 기부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넷째, 성공적인 가상화폐 모금 사례를 연구한다.

가상화폐 시장의 기부자들은 기존의 기부자와 다른 면이 있다. 기부자 통계를 보면 상대적으로 젊고 소득수준이 높다. 또한 가상자산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디스코드, 트위터 등 온

라인 채널뿐 아니라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¹²⁾을 형성하고 오프라인 미팅도 적극적으로 개최·참여하고 있다. 즉, 가상화폐 커뮤니티만의 독특한 문화와 채널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에 가상화폐 모금을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고 그들의 캠페인에서 사용한 홍보 방법, 채널 등을 보면 가상자산 커뮤니티에 대한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참고할 수 있다. 앞의 사례에 명시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참고하고 지속적으로 다른 기부채널들의 활동을 확인하여 성공사례를 파악하자.

다섯째, 해당 해의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모금 캠페인 또는 목표를 설정한다.

가상자산 모금 시에는 모금 목표액을 설정하고 이를 기부자들에게 미션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 또한 기부를 통해 지원하는 대상과 목적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기부자들이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탄탄한 스토리텔링이 들어간 캠페인 페이지를 설계한다. 이를 위해 명확한 지원 대상 및 숫자를 기반으로 자금 모금 캠페인의 목표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모금 기간을 짧게 가져가 긴박감을 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기부자들의 기부 활동 및 메시지를 리더보드에 표시하여 기부자들의 활동을 알리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매칭기부를 함께 진행하여 후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기부자가 해킹 또는 사기를 당하지 않고 NPO의 지갑에 정확히 기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에 명확한 명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메뉴를 보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모금 활동을 위한 세팅을 하고 나면 가상자산 모금 준비는 일단 완료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SNS에 글을 올리고 새로운 팔로어들에게 단체 및 프로젝트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다. SNS를 통해 일반 기부자 및 가상자산 커뮤니티에 알리는 활동을 지속하면 일반 기부자뿐 아니라 가상자산 커뮤니티의 기부자들과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Giving Block, n.d.b).

12) 별도의 중앙화된 관리 주체의 개입 없이(탈중앙화) 블록체인 상에서 스마트 계약을 통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구성원 모두가 자율적으로 공동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조직

(5) 제3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선택

이제까지 살펴본 과정을 NPO에서 직접 준비하고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실명 확인이 되지 않아 개인키 등 중요 정보가 유출, 분실된 경우 가상자산이 탈취되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 거래 및 출금이 제한되어 있어 가상자산의 원화 환전을 위해서는 장외시장에서 거래해야 하는데, 거래 및 사후 관리에 전문성과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NPO는 가상자산 거래 시 위험하거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운영은 외부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외부 서비스 제공자를 선발하는 기준과 외부 서비스 제공자의 감사 및 관리 등에 대한 내부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A. 가상자산위젯 제공자

가상자산위젯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이를 변조한 해킹 사례들이 있다. 가상자산 지갑 번호를 다르게 표시하여 가상자산 송금이 다른 지갑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상자산 위젯은 단순해 보이지만 보안성이 중요하다. 기부영수증 발급이나 기부자의 가상자산 지갑과의 연동을 통한 실시간 기부 등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위젯을 안전하게 만든 기업의 위젯을 검토하고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B.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가상자산의 지갑과 그 안에 담긴 가상자산을 보관해 주는 서비스이다. 특히 탈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가상자산 지갑이 해킹되는 경우 가상자산을 되돌려 받기가 어렵다.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가상자산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C. OTC 거래 서비스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거래 중개 회사와 일하는 것이 좋다. 금액, 가상화폐의 종류에 따라 시장 상황과 가상화폐의 특징을 고려하여 거래를 실행해 준다. 또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회계적으로 공정가의 산출을 위한 시장 정보의 제공, 이에 맞춘 거래의 실행을 위해 전문적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D. 클라우드 펀딩 서비스

대부분의 국내 NPO는 가상자산 시장이나 가상자산을 기부하려는 기부자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다. 그리고 가상자산 기부자의 입장에서도 단체별로 찾아가 가상자산 기부를 하는 것도 어렵다. 기존에 가상자산 기부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클라우드 펀딩 서비스의 활용도 마케팅적으로 이용할 지 고려해야 한다. 가상자산 기부자들이 해당 NPO가 가상자산 기부를 받고 있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알 수 있고 NPO 또한 효율적으로 가상자산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기존 클라우드 펀딩 서비스의 경험, 기부자 수, 프로젝트 및 모금 활동,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하여 외부 서비스의 활용 가능 여부를 알아봐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제3자 가상자산 기부 관련 서비스를 알아보았다. 일부의 서비스만 채택할 수 있고 전체를 채택할 수 있다. 서비스 플랫폼에 따라 윈스톱으로 제공해 주는 곳도 있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도 국내외에 많이 생겨나고 있다. 서비스 선택 시 여러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보고 제공해 주는 서비스와 조건을 비교한다면 내부 운영 또는 제3자 서비스 이용, 제3자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할 때 어떤 부분을 이용할지 내부적인 합의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상자산의 기부: NFT의 직접 기부

NFT를 직접 기부 받는 경우 필요한 인프라는 가상화폐를 기부 받는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가상 자산 지갑으로 NFT를 받을 수 있고 NFT의 마켓플레이스 또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NFT를 구매자의 전자지갑으로 이동하고 해당 금액의 가상화폐를 받음으로써 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술품, 중고상품 등의 현물기부와 유사하게 시장 가치의 산정이 어렵고(정현경, 2020), 제한된 판매 채널과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이다. 또한 NFT는 저작권에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기부를 받기 전 사전 합의와 기부 이후에 보관, 판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1) 가치 측정의 모호함

현물기부의 가액 산정 기준은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정당한 매매·평가 가격이다. 즉, 자산 등을 공정하게 측정된 가액으로 합리적 판단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가 거래할 수 있는 교환 가격으로 공정가액이라고 부른다.

판매가 되지 않은 NFT의 경우 현재 가격을 알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기부영수증에 기부금액 산정, 회계상의 공정가치를 정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2) 판매 채널과 유동성

NFT를 판매하는 플랫폼은 많다. 또한 트위터, 디스코드를 통한 P2P거래도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예술품을 파는 것처럼 NFT를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판매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부분에서 NFT를 NPO가 받는다면 가상화폐나 법정화폐로 현금화가 필요할 때 처분이 어려울 수 있다.

(3) 저작권에 대한 사전 합의

NFT는 발행, 소유 이력 및 디지털 파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보장은 아니다. NFT를 기부 받은 경우, 발행된 NFT가 저작권을 위반하여 발행되었을 수 있고 받은 NFT의 이미지 등이 도용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원 제작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NFT를 활용한 이벤트 등에 사용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NFT를 기부 받을 때는 향후 활용을 위해 저작권 관련 부분들을 사전 합의하고 문서화 또는 블록체인상의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NFT는 재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기부되게 하는 등 NFT 자체에 추가적인 기부가 일어날 수 있는 기능을 넣을 수 있어 기존의 현물 기부보다 미래의 추가적 기부를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시장이 초기단계여서 거래나 가치 산정이 어렵고 저작권 이슈 등을 사전 합의 및 확인 후 진행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어 가상화폐 기부보다는 사전에 전문가들과 개별 요소를 확인하고 NFT 기부를 받을 때마다 건별로 재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NFT를 기부 증명 및 리워드로 활용

앞 장에서 가상자산을 기부 증명 및 기부의 리워드로 발급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기부 증명으로 발행한 NFT는 기부자들에게 기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는 의미에서 가상자산 기부 문화를 확대하는 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NFT 발행 시에는 메타 데이터에 디지털 파일 링크, 화폐 발행자, 소유자, 저작권 및 재판매 시 수익 배분 조건 등 다양한 정보를 넣을 수 있어 기부 증명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이 NFT 기부 증명의 장점이다.

또한 NFT를 발행하는 것은 간단하다. 사용이 검증된 디지털 파일만 있다면 코딩을 하지 않고도 쉽게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다.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디지털 파일을 가지고 직접 업로드하고 발행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 하지만 NPO에서 리워드 및 기부 증명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회사 및 전산 담당자와 함께 NFT에 필요한 메타 데이터를 넣어서 발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법률상으로도 수집용 NFT의 발행은 금융 관련 법 등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NFT가 교환 가능하지 않고, 유일하며, 결제 및 투자 수단이기보다 실물 수집을 위하여 사용되므로 FATF의 정의에 따른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홍승희, 2021). 즉 가상화폐에 적용되는 자금세탁 관련 법규가 NFT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도 일반적인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며 수천만 개 이상의 NFT를 발행해 화폐나 투자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NFT는 사용 목적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가상화폐와 같이 투자 및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NFT의 보유자가 발행 회사와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고 사업 수익이나 배당의 형태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어 금융투자업자 자격이 있어야지 NFT를 발행할 수 있다. NFT가 법상 정의된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가 적용되므로 NPO가 NFT를 발행할 때 추가적인 기능을 넣는 경우는 법적 이슈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현수진, 2022).

이외에 NFT 관련 법적인 이슈로는 NFT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자산에 대한 거래 금액의 부당성 입증에 어려워 자금세탁에 사용될 유인이 높은 측면이 있다. 또한 NFT에는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만 포함되고 디지털 자산 자체는 오프체인에 저장된다. 그러므로 발행자는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원본 파일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NFT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거나 오프체인 디지털 자산이 손상되면 NPO의 평판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사전에 면밀한 준비와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이광욱 외, 2022).

4. 소결

이전 장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가상화폐를 기부에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고 가상화폐와 NFT를 활용한 가상자산 기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빙블록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0-12월에 가상자산 기부가 집중되는데, 이것을 보면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가상자산 기부의 주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국내는 개인의 경우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세는 2025년까지 유예된 상태이다. 2025년 이후 가상자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을 바로 기부하려는 필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NPO가 가상자산을 기부 받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NPO가 가상자산으로 기부를 받고 사업을 실행하는 데에는 운영상 한계가 있다. 우선 내부적으로 가상자산 기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NPO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가상자산 기부가 맞는 방법인지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 졌다면 법인의 가상자산 지갑을 열고 거래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가상자산 원화시장에서 법인은 거래할 수 없어서 장외시장거래 등을 고려하고 운영상 이슈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도 현물기부, 익명 기부에 대한 내부 원칙을 확인하고 가상자산 기부에 맞게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 조직에서 가상자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내부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필요 시에는 제3자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가상자산 규제는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의 환경변화, 규제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가상자산 커뮤니티의 잠재 기부자들에게 모금 활동을 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커뮤니티가 많이 활동하는 SNS에서 홍보하고 잠재적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이벤트와 프로젝트 운영이 필요하다.

새로운 세대와 커뮤니티로 기부문화의 확산, 미래의 기부 원천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기부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과 문화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NPO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변화에 대응하면서 가상자산 기부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

- 김형구, & 배경훈, & 신은정. (2018). NPO의 투명성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블록체인 활용 사례 연구 및 적용방안. 기획연구2018.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김성주, 이영주, 정민정. (2021) 코로나19가 비영리단체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인식조사. 아름다운재단.
- 김성주, 장윤주, 이예림. (2021). 기부방식 변화에 대한 연구.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노연희, 이민영, 장윤주, 이영주. (2022). 기빙코리아2022.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양정훈. (2018.06). 채용에서 교육, 조직문화까지 신뢰도 높은 조직 만드는 블록체인. 동아비즈니스리뷰, -250. 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1/article_no/8662
- 장윤주, 장혜원, 박다운. (2022). 블록체인기반의 기부사례 및 활용 가능성 탐색: 가상화폐와 NFT를 중심으로. 아름다운재단.
- 정영훈. (2022.06.03). 소비자정책동향 제122호: NFT(대체불가능토큰) 관련 주요 동향과 소비자 이슈. 한국소비자원
- Eisenhardt, K. M. (1989). Building theories from case study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4), 532-550.
- Fidelity Charitable. (2021). Cryptocurrency and philanthropy. <https://www.fidelitycharitable.org/insights/cryptocurrency-and-philanthropy.html>.
- Fidelity Charitable. (2022). Giving Report. <https://www.fidelitycharitable.org/insights/2022-giving-report.html>
- Gelatt, H. B. (1962). Decision-making: A conceptual frame of reference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9(3), 240.
- Giving Block. (2022). The Giving Block 2021 annual report. <https://thegivingblock.com/annual-report/>
- Giving Block. (n.d.a.) Beginners Guide to Crypto Fundraising. <https://thegivingblock.com/blog/>
- Giving Block. (n.d.b.) How to Launch a Successful Crypto Fundraising Campaign Guide. <https://thegivingblock.com/blog/>

Shin, E. J., Kang, H. G., & Bae, K. (2020). A study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NPOs with blockchain technology. *Sustainability*, 12(15), 6158.

<웹사이트>

법제처. (2022.07.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법제처. <https://url.kr/12o5up>

유니세프. (2019.10.10). 유니세프, 크립토펜드 시작. <https://www.unicef.or.kr/what-we-do/news/107531>

장윤주. (2022.04.11). 가상화폐를 기부받을 수 있나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16569/>

정현경. (2020.12.29). [현물기부 QnA]현물기부 가치/물품가액 산정기준. 기부문화연구소.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14094/>

체리희망나눔플랫폼. <https://givecherry.org/>

Fidelity Charitable. (2021.10.28). Growing popularity of cryptocurrency could fuel charitable giving. Fidelity Charitable. <https://www.fidelitycharitable.org/about-us/news/growing-popularity-of-cryptocurrency-could-fuel-charitable-giving.html>

Fidelity Charitable. (2021.10). Cryptocurrency and philanthropy. <https://www.fidelitycharitable.org/insights/cryptocurrency-and-philanthropy.html>

Fidelity Charitable. (2022). 2022 Giving Report. <https://www.fidelitycharitable.org/insights/2022-giving-report.html>

Give Square.(n.d.) <https://www.givesq.org/frt/main.do>

Give Track.(n.d.) <https://www.givetrack.org/>

Hold Hope.(n.d.) <https://hodlhope.org>

Macy' s.(n.d.). <https://macys.com/NFT>

Fvckrender, beeples, GMUNK, Reisinger Andrés, Sara Ludy, Refik Anadol, Kyle Gordon, & Mieke Marple. (n.d.). The Carbon Drop. NFT Gateway. <https://www.niftygateway.com/collections/carbondrop>

Open Earth, (n.d.). <https://www.openearth.nl/>

Open Earth, (2022). The #CarbonDrop: A Climate Statement. <https://www.openearth.org/blog/carbon-drop-a-climate-statement>

The Giving Block, (n.d.a) About The Giving Block. <https://thegivingblock.com/about/#bios>

The Giving Block, (n.d.b). Impact Index Fund. <https://thegivingblock.com/impact-index-funds/>

The Giving Block, (n.d.c). Orangutan Outreach Case Study. <https://thegivingblock.com/testimonials/#menu-for-nonprofits>

Unicef, (2020.06.19). UNICEF Cryptocurrency Fund announces its largest investment of startups in developing and emerging economies. <https://www.unicef.org/press-releases/unicef-cryptocurrency-fund-announces-its-largest-investment-startups-developing-and>

Unicef, (2021). UNICEF to launch UN' s Largest-ever NFT Collection to mark 75th anniversary. <https://www.unicef.org/press-releases/unicef-launch-uns-largest-ever-nft-collection-mark-75th-anniversary>

Womenforwomen(n.d.). <https://www.womenforwomen.org/>

<기사>

김보라. (2022.05.11). [NFT에 빠진 유통업계] “96조 시장 잡아라” . 뉴데일리 경제.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2/05/11/2022051100054.html>

김하늬. (2022.07.19). 당국, "법인·기관투자자 코인거래소 계좌 허용...가상자산업 혁신안".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1914320768782>

문일요. (2019.01.30). 기부하고 희귀 아이템 선물 받고...’굿굿즈’모르면 아재래요. 더 나은미래. <https://futurechosun.com/archives/38729>

문일요. (2022.01.18). NFT, 모금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더 나은미래. <https://futurechosun.com/archives/61450>

- 문정은. (2022.04.07). 법인 가상자산 거래 숨통 틈나... 신한은행, 첫 법인계좌 내줘. Digital Today.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333>
- 송화연. (2019.10.09). 이더리움재단-유니세프, 아동보호 위한 크립토폰드 결성. 파이낸셜 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1910091313270110>
- 안상현. (2021.12.23). 폭증하는 가상화폐 기부...투명해서 끌리고 세금 아껴 더 끌린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1/12/23/KFIMOCX4YJBNVJTA5RR23LH6RQ/>
- 알고랜드. (2021.06.21). 블록체인 로열티: NFT가 어떻게 리워드 크리에이터로 프로그래밍될 수 있는가. Algorand. <https://url.kr/lm32ae>
- 염현주. (2022.03.07). “비트코인부터 도지코인까지” 우크라이나에 680억 원 규모 암호화폐 기부 행렬 이어져. STARTUP TODAY. <https://www.startup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44318>
- 이광욱, 이주용, 이근우, 최용호, 주민석, 조세경. (2022.03.18). NFT 관련 법적 쟁점 법률신문.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7257>
- 이소연, 유채연. (2021.04.27). ‘기부’ 문 두드리는 가상화폐...가격변동성 커 모금단체들도 고심.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427/106624333/1>
- 이형두. (2022.05.16). 두 나무, 기부 참여 회원에게 NFT 지급. ETnews. <https://www.etnews.com/20220516000224>
- 임현우. (2022.03.07). 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200개국 송금·결제 잇는 금융망...러시아 퇴출 당해. 한국경제신문.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2030435791>
- 한국경제TV. (2021.12.27). 가상화폐 기부천사 급증...美 가상화폐 기부금 전년비 약 600%↑. 한국경제TV.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12270103>
- 홍승희. (2021.11.05). 금융위 “NFT 가상자산 아니다”.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105000446>
- 현수진. (2022. 03.16). NFT를 민팅하려는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규제 필수 점검사항. 디지털데일리. http://m.ddaily.co.kr/m/m_article/?no=233439
- Bill Haddad. (2021.11.19). Macy’ s Launches NFT Series Of 9,510 NFTs for Macy’ s Thanksgiving Day Parade. YahooFinance. <https://url.kr/wkizx5>

- Coinness. (2021.01.24). 유니세프, 설립 75주년 NFT 판매로 74만 달러 모금. Coinness. <https://www.fintech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11>
- DeepikaGarg. (2019.09.09). Crypto Fund Announced by UNICEF To Back Open Source Technology. CiaNews. <https://cia.news/en/crypto-fund-announced-by-unicef-to-back-open-source-technology>
- Jakeminlim. (2021.11.15). PFP(Profile Picture) NFT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는 이유. Xangle Research. <https://xangle.io/project/CELO/insight/research/619235c23b5952fc83d6723e>
- Kasey Panetta. (2018.10.15). Gartner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19. Gartner. <https://www.gartner.com/smarterwithgartner/gartner-top-10-strategic-technology-trends-for-2019>
- Nina Bambysheva. (2021.06.01). NBA, MLB, NFL, AND NHL Partner Fanatics Launches NFT Company. Forbes. <https://www.forbes.com/sites/ninabambysheva/2021/06/01/nba-mlb-nfl-and-nhl-partner-fanatics-launches-nft-marketplace/?sh=386e1b3d537b>
- Roy Billington. (2021.11.27). Women for Afghan Women and Bookblocks.io to Partner for Charity NFT. Newswires. https://www.einnews.com/pr_news/552427290/women-for-afghan-women-and-bookblocks-io-to-partner-for-charity-nft
- Stacy Elliott. (2021.11.24). Macy' s Launches Ethereum NFT Collection Based on Thanksgiving DayParade. Decrypt. <https://decrypt.co/86715/macys-ethereum-nft-collection-thanksgiving-day-parade>

Appendix. 용어 설명 및 영리 기업 활용사례

1. 블록체인

(1) 특징

블록체인(Blockchain)은 단어 그대로 거래 기록을 블록이라는 단위로 저장하고, 각 블록과 다른 데이터 블록을 연결하여 체인을 형성하는 기술이다.¹³⁾ 블록체인은 중앙집중형 서버에 기록을 보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탈중앙화 원칙에 따라 P2P(Peer-to-Peer)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생성, 관리, 저장한다. P2P 네트워크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참여자에게 공유되어 분산형 디지털 원장으로 불리며, 참여자가 공동으로 데이터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분산형 디지털 원장은 참여자들이 데이터 처리 과정을 공유하므로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이터 처리 방법이다.

데이터 저장소의 분산을 통해 기존에 저장된 정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데이터의 조작을 방지한다. 대부분의 기존 시스템은 중앙집중형 서버 시스템으로 중앙 관리자가 인터넷 인프라를 통해 관리하기 때문에 해킹 및 데이터 위·변조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P2P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고유한 암호화된 서명을 제공하며, 동일한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모든 참여자가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환경에서 분산 저장소를 해킹하여 데이터를 위·변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¹⁴⁾ 그리고 이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가 불변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정보의 불변 특성은 P2P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기록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하며, 이는 중앙 관리자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유인이 된다.

13) 업비트, (2021.12.14). 비트코인 채굴 원리. <https://m.upbitcare.com/academy/education/blockchain/60>

14) Amazon. (n.d). 블록체인 기술이란 무엇인가요?. <https://aws.amazon.com/ko/what-is/blockchain/>

블록체인의 분산형 디지털 원장 시스템은 공개키(Public Key)와 개인키(Private Key)를 통해 거래 상대방을 인식하여 간단한 전자 서명을 통해 거래를 완료할 수 있으며, 거래 참여자를 낮은 비용으로 구분하고 관리할 수 있다.¹⁵⁾ 그리고 이러한 분산형 디지털 원장 시스템은 시스템의 중개자 없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기에 신용위험을 줄일 수 있어 조직의 관리를 통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P2P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기존 중앙집중형 서버의 과도한 트래픽(traffic)으로 인한 병목 문제를 해소하여 거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 관리자의 의존도를 제거하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신뢰 구축에 가치를 더할 수 있다.

(2) 영리기업에서 활용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 불변성, 효율성, 경제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그 사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조직 운영의 측면에서 유통업계에서 활용이 돋보인다. 기존까지 국제 운송업계의 정보 시스템은 종이 원장 문서를 사용했으며, 운송에 관련된 기업들은 이메일과 팩스, 택배 등을 통해 문서를 공유했다. 그리고 종이 원장 문서의 정보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통해 전자 데이터로 변환되어 정보가 기록되었다. EDI는 60년 이상 된 기술로, 실시간 정보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화를 떨어트렸다. 이러한 유통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IBM과 해운 그룹 머스크(Maersk) 그룹은 블록체인 물류 플랫폼 트레이드렌즈(Tradelens)를 선보였다. 트레이드렌즈는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공급망 내 모든 운송에 대한 핵심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무역 업무의 효율화를 추구하였다. 트레이드렌즈는 캐나다, 프랑스, 터키 등 10개국 이상의 국가가 가입하였고, 현재 글로벌 물동량의 60%에 해당하는 CMA CGM과 MSC, ZIM 등 많은 선사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트레이드렌즈를 접속하는 항만 및 해상 터미널은 2021년 중국 10곳을 추가하여 600

15) 김한수, 권혁준. (2018.12.14).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KIRI. https://www.kiri.or.kr/pdf/%EC%A0%84%EB%AC%B8%EC%9E%90%EB%A3%8C/KIRI_20181214_18737.pdf

개소 이상으로 사용처가 확장되고 있다.¹⁶⁾

해운 물류 외에도 월마트(Wal-Mart Inc) 역시 IBM 식품 이력관리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푸드트러스트(Food Trust)에 참여하여 유통 음식의 안전, 제조 이력, 상품 추적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월마트는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500개 이상의 식품 품목을 추적하고 있으며, FDA 조사관에게 잠재적인 오염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1시간 이내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¹⁷⁾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은 한국의 백신 접종 증명 서비스인 '쿠브(Coov)'에 적용되어 COVID-19 관련 전염 통제와 감시, 면역 여부 확인이나 백신 여권 감시, 확진자 접촉 경로 추적 등에 활용되었다. 블록체인 기술은 유통 산업, 식품 산업부터 백신 및 헬스케어 분야 등 제품 추적 및 소비자 신뢰도가 중요한 산업군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¹⁸⁾

2022년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Fortune Business Insights)는 '블록체인 시장 분석 연구 보고 2021~2028' 보고서를 통해 2028년 전세계 블록체인 시장 규모가 1041억 9000만달러(약 125조원)에 달해 연평균 성장률이 55.8%에 달하는 가파른 성장을 예견했다. 또한 보고서에서 COVID-19 이후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통한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조직이 많아지면서 안전하고 투명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어 블록체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자산 보호 및 신원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였다.

16) Lucas Mearian. (2018.08.20). "블록체인과 물류의 결합" ...'트레이드렌즈'현장 적용 시작. CIOKorea. <https://www.ciokorea.com/tags/28307/%ED%8A%B8%EB%A0%88%EC%9D%B4%EB%93%9C%EB%A0%8C%EC%A6%88/39291>

17) 김경은. (2021.09.10). 월마트, 까르푸,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매출 상승...식품 패션 등 공급망 추적 탁월. 블록체인월드. <http://www.bcwnews.com/4596>

18)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증명 기술소개. <https://ncv.kdca.go.kr/menu.es?mid=a12502000000>

2. 가상자산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된 데이터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보상이다.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되게 되며, 가상자산은 시스템 사용에 대한 보상이다. 가상자산은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 블록체인의 분산형 디지털 원장을 통해 거래를 기록하며, 가상자산의 생성을 제어하여 가치를 유지하고, 암호 수단을 통해 가상자산의 소유권을 유지한다.¹⁹⁾

(1) 특징

2009년 1월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한 이후 라이트코인, 리플(XRP), 이더리움 등 수많은 가상자산이 발행되었으며,²⁰⁾ 현재 그 종류 역시 수천 가지에 달할 만큼 시장이 성장하였다.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 고시된 가상자산은 2022년 9월 기준 약 1만 개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²¹⁾ 2022년 8월 한국무역협회(KITA)는 ‘가속화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과 시사점’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2021년 9월 2.2조 달러 (약 2천 8백조 원) 수준이라 밝혔으며, 시가총액이 가장 큰 비트코인의 경우에 2021년 8월 최고 6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현재 550조 원에 달할 만큼 높은 성장을 보여주었다. 가상자산은 등장 이후 투자수단뿐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래의 매개 수단으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²²⁾

이러한 가상자산의 높은 성장의 배경은 자산 간 거래를 중재하는 중앙기관의 부재에 있다. 가상자산은 미국의 달러(USD), 유럽의 유로화(EUR)와 같은 명목 화폐와 달리 가상자산 자체의 가치를

19) 정영훈. (2022.06.03). 소비자정책동향 제22호: NFT(대체불가능토큰) 관련 주요 동향과 소비자 이슈. 한국소비자원

20) 김제이. (2022.04.09). [비트코인의 미래①]채굴 90%가 끝나...가격 더 오를까. NEWSIS. https://mobile.newsis.com/view.htm?ar_id=NISX20220408_0001826473#_eniple

21) CoinMarketCap. <https://coinmarketcap.com/ko/>

22) 안병선, 평명선. (2022.08.24). 가속화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과 시사점. Trade Brief. -15. 한국무역협회.

보증하거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블록체인의 P2P 네트워크 상에서 가상자산은 은행과 같은 중앙기관의 통제나 의존 없이 참여자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하고, 환전 수수료가 매우 적으며, 빠른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상자산의 적은 수수료와 빠른 거래 속도로 인해 가상자산은 현재 가장 주목받는 결제 수단으로 금융 혁신을 이루기 위해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다.

세계 최초로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상용화한 글로벌 휴대폰 결제 기업 다날(Danal)은 2019년 4월 자회사 다날핀테크(Danal Fintech)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인 페이코인(PCI)을 발행했다. 페이코인은 결제와 송금을 위해 발행된 가상자산으로 낮은 수수료로 인해 출시 이후 외식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페이코인은 낮은 수수료를 강점으로 2021년 기준 약 7만여 개의 가맹점을 확보하였으며, 출시 2년만에 250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 확보에 성공하였다. 2021년 기준 페이코인을 통한 일일 거래량은 5,000만 원 ~ 6,000만 원에 달한다. 페이코인을 통한 결제 수수료는 1% 미만으로 기존 신용카드 결제 시장의 1.5~2% 수준 대비 매우 낮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느린 정산 주기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다날의 페이코인 외에도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 시도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²³⁾. 2022년 7월 비자(VISA)는 가상자산 플랫폼 50개사와 제휴를 맺고, 전세계 7,000만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카드를 선보였으며, 페이팔(Paypal) 역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인 '체크아웃 위드 크립토(Checkout with Crypto)'를 통해 미국 수백만 가맹점에서 가상자산을 통해 결제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²⁴⁾ 이외에도 맥도날드, 월마트, 스타벅스 등 해외 주요 기업들 역시 가상자산 결제를 도입한 상태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의 실생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²⁵⁾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민간 부문에서의 분산형 디지털 원장 기술을 이용한 블록체인의 발전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금융 생태계가 활발하게 형성됨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점차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

23) 김동환. (2020.08.07). 블록체인이 힘 "페이코인 결제 수수료, 신용카드 8분의 1" . CoinDesk Korea. <https://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1370>

24) 하이메. (2021.03.31). 페이팔,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체크아웃 위드 크립토' 출시. Tokenpost. <https://www.tokenpost.kr/article-57036>

25) 권승원. (2022.04.11). 맥도날드, 스타벅스, 월마트, 비트코인 결제수단으로 수용한다. 블록스트리트. <https://www.blockstreet.co.kr/news/view?ud=2022040814351216148>

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이 65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86%의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빠른 인터넷 보급과 알리페이(Alipay), 위챗페이(Wechatpay) 등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2010년대부터 ‘현금 없는 사회’로 돌입하였으며, 한국무협협회(KITA)는 ‘가속화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과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은 CBDC 발행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은 11개 디지털 위안화(DCEP) 사용 시범 운영 지역을 지정하고 지역 내, 지역 간 거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홍콩 지역을 활용한 국경 간 결제 테스트를 통해 CDBC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²⁶⁾

중국 이외에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기술 실험을 진행 중에 있다. 한국의 한국은행 역시 2020년 CBDC 연구에 착수한 이래, 현재까지 1,2 단계 모의 실험을 마치고 2022년 하반기 중 실제 사용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다. CBDC의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국제결제은행은 미국, 유럽 등의 주요국과 CBDC 연구 그룹을 결성하여 CBDC가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3대 원칙을 구체화하기도 하였다. 각국의 CBDC 도입과 함께 가상자산이 일상 생활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26) 차대운. (2020.10.13). '현금 없는 사회' 중국서 ATM 하루 300개씩 사라진다. 연합뉴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3067500089>

3. NFT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는 온라인 환경에서 고유성, 불변성 및 콘텐츠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저장되는 디지털 데이터 단위이다.²⁷⁾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토큰을 발행하고 해당 토큰 안에 특정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온라인 환경에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고유성과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 온라인 시대가 도래하면서 콘텐츠 복제, 위조 및 해킹의 용이성은 디지털 자산의 가장 일반적인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²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NFT는 중앙집중형 서버의 해킹으로 인한 데이터 소실 위험, 원본 증명의 어려움으로 인한 위·변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 무한정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자산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의 불변성과 유일성을 통해 디지털 자산에 가치를 저장할 수 있으며, NFT 자체가 디지털 인증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NFT 기술은 디지털 인증서로서 디지털 환경에서 재화에 대한 고유성과 소유권 확보를 통해 가치상승, 거래 투명성 확보 등 다양한 활용이 기대된다.

NFT 기술은 2017년 대퍼랩스(Dapper Labs)에서 발행한 ‘크립토키티(CryptoKitties)’를 시작으로 최근 컬렉터블 NFT 분야, 게임 NFT 분야, 미술품 NFT 분야, 메타버스 NFT 분야, 유틸리티 NFT 분야로 나뉘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²⁹⁾ ‘NFT 최근 산업동향과 시사점’은 DeFi 데이터 플랫폼 댑레이더(DappRadar)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약 9,400만 달러(약 1천 3백억 원)에 불과하던 NFT 거래대금이 2021년 들어 약 248억 달러(약 34조)까지 치솟으면서 약 262% 성장하였다고 밝혔다.³⁰⁾ NFT 시장의 높은 성장과 함께 성장을 견인한 분야 역시 다양하다.

글로벌 투자은행 제프리스&컴퍼니(Jefferies&Company)는 2022년 1월 ‘digitally-enabled experiential tie-ins’에서 2019년 240만 달러(약 33억 원)인 NFT 시장 규모가 오는 2025년까지 800억(약 110조 원)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예견하였다. 또한 2022년 7

27) Melissa Heikkilä, (2021). NFT가 도대체 뭐야?. MIT Technology Review. <https://www.technologyreview.kr/what-is-nft/>

28) NFT&Metaverse산업에 PwC 서비스 적용 사례. (2022년 4월). PwC.

29) 김주혜. (2022.02.16). [웹3웨이브]NFT 산업을 만들고 개척하다: 대퍼랩스, 더밀크. <https://contents.premium.naver.com/themilk/business/contents/220216091945707PE>

30) 김도현. (2022.07.29). [이슈분석 219호]NFT 최근 산업동향과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 <https://url.kr/rzd7le>

월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VMR(Verified Market Research)는 ‘Non-Fungible Tokens Market’을 통해 2021년 약 113억 달러 (약 15조 원)의 NFT 시장 가치는 연평균 33.7%의 성장률로 2030년까지 2,310억 달러 (약 32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³¹⁾

NFT 기술은 음악, 영화, 스포츠를 포함한 여러 산업에 적용되어 성장 것으로 보이며, 콜렉터블 NFT 분야와 미술품 NFT 분야 등 다양한 NFT 분야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³²⁾ 가치 있는 것은 오프라인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환경에서도 존재하지만 원본을 증명할 수 없다면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기 힘들다.³³⁾ NFT 기술은 온라인 환경의 콘텐츠 복제, 위조 및 해킹을 방지하여 원본을 인증해주는 기술로 원본을 증명하는 디지털 인증서로 적용될 수 있다.

4. 메타버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추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³⁴⁾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며 공진화하고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이다.³⁵⁾ 미국의 비영리 가속연구재단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ASF)은 2007년 기술의 적용 형태(증강/시뮬레이션)와 대상의 지향 범위(내적-개인/외적-환경)를 기준으로 메타버스 세계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라이프로그(life-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 ‘가상세계(virtual worlds)’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메타버스의 4가지 분류의 공통점은 가상 공간과 현실의 공간 정보가 서로 교류하며 상호작용한다는 것이

31) 코인뉴스. (2022.07.15). 리서치 "2030년 NFT 시장가치 2,310억 달러까지 성장 전망" 등.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7/623896/>

32) 박창현. (2021.11.15). 블루베리NFT, '프로스포츠 영상 NFT' 플랫폼 내놓는다. the bell.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11150837427760107430&svccode=04>

33) 이효은. (2022.04.24). [ITP 리뷰 1]기업들 NFT로 헤쳐모여...관심만큼 우려도 높아. ETnews. <https://www.etnews.com/20220422000096>

34) 이준희. (2021년 11월 16일). [이준희 칼럼] 메타버스, NFT 그리고 핀테크.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111902102269660001

35) 손훈. (2021.10.02). 손훈 글로벌전략연구소장 KTV인터뷰(2021.10.02). KAIST GSI. <https://gsi.kaist.ac.kr/html/sub05/0501.html?mode=V&no=8db63454984b82f689c9c42ca3a7b3e3&GotoPage=1>

며, 최근 기술의 고도화와 서비스 사이의 융합으로 인해 각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는 추세이다.³⁶⁾

메타버스가 온라인 환경의 텍스트 기반의 콘텐츠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아바타(Avatar)로, 메타버스 참여자는 아바타를 통해 현실과 다른 능력과 소통 방식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한다.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른 MZ세대는 자신의 부캐로 아바타를 만들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가상의 세계인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메타버스를 이용한 사업자는 시공간 제약이 없는 가상공간에서 홍보 및 부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메타버스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³⁷⁾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메타버스는 미래 소비 주체인 MZ세대에 대한 노출도 측면에서 기존 매체보다 더 효율적인 매체로 부상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기존 매체 대비 긴 노출시간, 능동적 노출, 저비용 등으로 초기 실험적 단계임에도 광고 ROI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³⁸⁾

글로벌 시장에서 게임 기반의 메타버스 기업들이 속속 시장에 서비스를 오픈하고 있는 와중에 국내에서는 네이버제트는 플랫폼 제페토(ZEPETTO)를 개발하여 서비스 중이다. 2018년 서비스를 시작한 제페토는 아바타를 만들어내는 기술과 마인크래프트(Minecraft)와 같이 사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해 낸다는 점이 흡사하지만 셀프카메라 앱 스노우(SNOW)에서 출시한 제페토는 사용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아바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제페토는 메타버스를 통해 단순 소통 기능을 넘어서 가상 공연, 가상 팬미팅, 가상 점포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으며, 구찌, 현대백화점, DGB 금융그룹, 하나카드, 롯데월드, YG엔터테인먼트 등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하고 있다. 특히 제페토 내에서 진행한 블랙핑크 가상 팬 사인회에는 4,600만 명이 참여한 바가 있는 등 오프라인의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³⁹⁾

국내기업뿐 아니라 엔비디아(NVIDIA), 메타(META) 등 해외 기업 역시 제조 분야와 플랫폼 분야를 가리지 않고 메타버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메타는 2021년 11월 페이스북(Facebook) 창업 후 17년 만에 사명을 메타로 변경하였으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메타버스를 기반

36) 남현우. (2021). 메타버스의 환경 변화와 기술 동향. 한국통신학회지 (정보와통신), 38(9), 24-31.

37) 김준연. (2021). 메타버스 콘텐츠의 혁신 생태계와 지속 성장의 조건. Future Horizon, 25-30.

38) 성중화. (2021.11.22). 메타버스, NFT가 펼쳐는 미래 혁신 세계. 이베스트투자증권

39) 최한중. (2020.09.21). 가상공간 '제페토'에서 블랙핑크 만나세요.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92107991>

으로 하는 비즈니스 진화와 혁신에 초점을 둘 것을 시사했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최근 VR·AR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왔으며 유럽에서 메타버스 관련 인력으로 약 1만 명을 고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메타버스 분야는 민간 부분에서의 급속한 투자와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⁴⁰⁾

COVID-19는 급속한 디지털 전환을 불러와 광범위한 산업 영역에서 적용되었으며 비대면 패러다임에서 실감형 체험 콘텐츠의 수요를 대폭 증가시켰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trategy Analysis)는 2020년 보고서를 통해 2025년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800억 달러(약 39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밝혔으며,⁴¹⁾ 글로벌 컨설팅 업체 PwC(PricewaterhouseCoopers) 역시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를 2019년 약 52조 원에서 2025년 540조 원, 2030년 약 1,700조 원으로 예측하는 등 성장세가 확장되고 있다.⁴²⁾ 최근 메타버스 관련 기술 기업 간 협업이 증가하며 먼세점, 전시장, 대학교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메타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확장성을 가지며, 현실 세계와 유사한 실재감, 10대, 20대 이용자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메타버스의 성장이 일상을 더욱 다채롭게 하고, 사회적으로 이로운 산업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40) 김태훈. (2021.10.18). 페이스북, 메타버스 작업 위해 EU에서 1만명 고용. TechDaily. <http://www.tec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93>

41) 정일권. (2022.07.16). 메타버스를 내다보다. KOREA IT Times. <http://www.kore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496>

42) 윤정현. (2021). Intro: Metaverse,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어. Future Horizon. -49, 3-8.

2022년
기획연구

Part. 4

한국 사회 유산기부 논의 지형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책임연구자 **노법래**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자 프로필



책임 연구원

노 범 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학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주요경력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원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등 시간강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편집위원장

연구실적

- 202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자원봉사활동 변화의 실제-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의 시계열적 추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주저자)
- 2021,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지형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외환위기 이후부터 코로나19 상황에 이르기까지 언론에 노출된 “식발”, “투신”, “분신” 사건 내용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을 중심으로(2021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주저자)
- 2021, 저출생, 고령사회의 심화에 따른 한국사회의 생애주기별, 지역별 사회적 위험의 분포에 관한 연구(국회미래연구원, 책임연구원)
- 2021, 2000년대 이후 의제지형 변화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 연구: 차별과 혐오 의제를 중심으로(서울시 NPO 지원센터, 책임연구원)

요약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유산기부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자료 정제 과정을 거쳐 약 20년간 유산기부를 다룬 기사문 1,435건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본 연구는 연구의 이론적 맥락으로서 관련 문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유산기부 문화의 확산과 관련된 주요 사회적 흐름을 사회 전반의 성숙, 기부 문화의 성숙, 가족주의 전통의 극복으로 정리했다.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토픽모델링과 추출된 토픽의 시계열적 변화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 결과 한국 사회의 유산기부 논의에는 앞서 언급한 주요한 사회적 흐름이 전반적으로 함께 포착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모금 단체의 역할과 기업의 사회 책무성 실현과 관련된 움직임이 유산기부 문화 확산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살폈다. 한편으로 시민 일반에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실천이 이뤄지고 있음도 볼 수 있었다. 가족주의 전통은 한국 사회에서 유산기부 확산과 관련해서 중요한 제약으로 보이며, 관련된 갈등을 중재하는 노력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유산기부, 모금단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족주의, 토픽모델링, 기사문 분석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 유산기부 논의의 확산과 논의 지형 변화의 실증적인 관찰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 번째는 유산기부라는 기부의 독특한 한 형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유산기부가 기부 총량에서 차지할 수 있는 잠재적 비중을 고려할 때 유산기부를 둘러싼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기부 문화 확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두 번째는 유산기부 논의의 확산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읽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부 문화 확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측면과 이와 관련성을 지니는 사회 전반의 변화를 포함한다. 유산기부가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할당될 수 있는 몫을 활용해 기부자 사후에 활용된다는 독특성과 이를 위해서 기부금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등이 요청된다는 점에서 유산기부 논의의 확산 저변에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유산기부 논의의 확산과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2000년부터 연구 시점인 2022년 6월까지 “유산기부”를 검색어로 수집된 기사문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였다. 국내 유산기부 연구는 사회적 관심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 소수 수행된 바가 있는 연구도 개인 단위 연구인 경우가 많았다. 이들 연구들도 대부분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이나 의향을 검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유산기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회 변화를 짚기에는 한계가 있다. 유산기부의 흐름을 사회 전반 수준에서 검토한 국내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그 탐색적 시도로써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유산기부 논의의 사회적 확산이 지니는 의의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사회적 수준에서 유산기부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규명한 연구가 많이 없는 상황이므로 본 연구는 개인 단위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한 함의점을 바탕으로 이를 사회적 차원으로 연결하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연구의 두 번째 단계는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관찰로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사문을 중심으로 논의 지형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 가운데 토픽 모델링(topic modelling)을 수행할 것이다.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론적 검토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유산기부와 관련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정리하고 기부 문화 확산과 관련한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유산기부의 사회적 맥락

사회 전반의 수준에서 유산기부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유산 기부의 성격에 대한 논의와 유산 기부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위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유산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산이 지니는 의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유산기부에 대한 논의의 전개는 기부 문화는 물론 여러 사회 변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 본고는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유산기부에 대한 논의 확산이 사회 전반의 성숙을 드러낸다는 점, 기부 문화의 확산의 한 결과라는 점, 그리고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따른 의의로 대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 전반의 성숙을 드러내는 지표

기술 발전에 힘입은 경제 성장과 생산력의 전반적인 증대에 따른 물질적 자원 확보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 속에서도 현대 사회는 여전히 빈곤 문제와 심화되는 불평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환경 오염,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한 문제는 국경을 넘어 인류 전반에 걸쳐 거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른바 자본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이끈 거부들을 중심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기부 행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부자의 입장에서 최종적인 형태의 기부 행위이면서, 기부 규모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따라서 유산기부에 대한 일련의 관심 증가는 경제 성장 그 자체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와 더 많은 소비를 더 나은 삶으로 치환한 자본주의 가치에 대한 반성과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희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 성장과 생산력의 증대 과정에서 환경 오염, 불평등과 같은 문제가 심화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 문명의 발달은 생존에 대한 문제로부터 해방을 가져온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일

정 수준의 경제적 번영은 사회 전반의 윤리적 측면의 각성을 유도하는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다 (Friedman, 2006). 따라서 일정한 경제적 성취를 이룬 사회에서는 행복한 삶과 더불어 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인가, 그리고 그 방식이 어떻게 다음 세대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 나게 된다. 왜냐하면 죽음의 양태는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궁극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은 생의 마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사후에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사회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결단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하려는 개인의 도덕적 열망이 반영된 행위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은 거부들을 중심으로 자신이 축적한 부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반영한다는 점과 함께, 일반 시민 전반에 걸쳐서도 바람직한 죽음에 대한 윤리적 관심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의 성숙을 드러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면, 그것은 한국 사회가 경제 성장의 맹목적 추구와 소비의 최대화와 같은 물질주의적 가치 지향을 넘어서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2) 기부 문화의 성숙

유산기부와 관련된 기부 문화의 성숙은 기부 행위 자체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 및 경험 축적과 기부 문화 활성화의 촉진자인 모금 단체의 역할 증대와 신뢰 확보라는 측면, 그리고 관련 제도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순서대로 논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 증가는 기부 자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서, 기부 문화의 성숙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유산기부에 대한 기존의 개인 단위 연구에서 이전 기부 경험은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자신의 노동과 시간에 대한 기부라고 볼 수 있는 자원봉사 경험 또한 유산기부 의향에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철희, 2009). 따라서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 증대는 사회 구성원 전반에 걸쳐 기부 경험이나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 단위에서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유산기부는

일반적인 기부 형태에 비해서 까다로운 절차를 수반하거나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심리적 거리는 유산기부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실제로 유산기부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관련 절차를 까다롭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Sargeant et al., 2006). 유산기부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 가운데 하나는 유산기부에 대한 안내와 설득의 경험 유무로 알려져 있다(Wilberforce, 2001). 따라서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는 모금 단체의 소개와 적극적인 설득 노력과도 관련될 수 있는 것이다.

유산기부는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진행되는 기부이며, 기부자 사후에 기부금에 대한 운용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부자에 의한 직접적인 모니터링이 어려운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기금 운용에 대한 모금 단체의 역량과 신뢰성에 대한 인식은 유산기부 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 개인 단위 연구에서 모금 기관에 대한 신뢰와 역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유산기부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Weipking et al., 2012).

끝으로 개인 단위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유산기부와 관련된 법제도적 환경은 유산기부 결정에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Pelozo & Steel, 2005). 따라서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는 기부 문화의 제도적 성숙을 드러내는 세제상 혜택과 같은 제도 변화와 궤를 같이 할 수 있다.

3) 한국 사회에서의 특수성에 따른 의의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한국 사회의 특수한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 사회는 시대에 따른 변화는 있으나 전통적으로 개인의 자유보다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되는 '가족주의적 습속'이 강한 특성을 보여왔다(송재룡, 2008). 따라서 이런 '가족주의 습속'하에서는 개인의 자유는 물론 그것에 근거한 자발적인 공동체 기여에 대한 노력 또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역할은 부차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가족주의 습속"을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부에 있어 역할 갈등을 더 강하게 경험하며 기부 행

위에 대한 의사가 위축됨을 보고하고 있다(Wiepking et al, 2012).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유산기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면, 그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약화되고 그 약화된 틈이 공동체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신호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이 축적한 부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자신의 가족이 아닌 사회 전반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한다는 결단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읽음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

3.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유산기부”를 검색어로 웹에서 수집된 기사문 전수를 활용하였다. 수집 과정에서 중복되는 내용이나 관련성이 떨어지는 기사문은 제거하였다. 아울러 기사문의 텍스트가 짧은 경우도 분석에서 제외했다. 본 연구에서는 글자수가 200자 미만의 단신은 또한 분석에 활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분석에 활용된 기사는 총 1,435건이었다. 수집된 텍스트 정보 가운데서 분석 목적상 불필요한 특수 기호 등은 제거하고 형태소 분해를 진행하였다. 형태소 분해 결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형태소 분해 과정에서 참조하는 사전의 갱신을 반복하는 과정이 있었다. 분해된 단어 가운데 분석에는 명사만을 취하여 활용했다. 텍스트 데이터의 수집 및 정제 과정은 Python 3.6 환경에서 수행하였으며, 형태소 분해는 “KoNLP” 라이브러리(박은정, 조성준, 2014)의 관련 함수를 활용했다.

2) 텍스트 처리

유산기부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논의 지형과 그 변화를 살피기 위해서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픽 모델링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해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방식을 활용하였다. LDA는 텍스트에 분포된 단어 빈도를 활용하여 하나의 텍스트가 잠재 토픽에 속하는 정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Blei et al., 2003).

LDA는 잠재 구조를 다루는 분석 기법의 특성상 모형(토픽의 수)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토픽의 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특정 주제를 구성하는 토픽에 대한 기존의 이론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본 연구를 포함하여 토픽 모델링에서 다루는 주제는 토픽의 수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만, 선택된 모형에 따른 분석 결과가 기존의 이론이나 현실에 타당하게 부합되는지 검토하는 과정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토픽을 결정하는 최적 모형의 선택에 있어 수리적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를 앞서 진행한 문헌 검토 결과와 견주어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여기서 최적 모형의 선택에 있어 가장 간명하고 활용하기 쉬운 모형 적합도 평가 지표는 조화평균(harmonic mean)을 들 수 있다(Griffiths & Steyvers, 2004). 본 연구에서는 토픽 수의 변화에 따른 조화평균의 변화를 관찰하는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최적 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도출된 토픽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하나의 단계로서 본 연구는 수리적으로 도출된 토픽 간 의미상 거리와 실제 토픽 내용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포함하고자 한다. 토픽 간 의미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t-분포 확률적 임베딩(t-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 T-SNE)을 활용한다. T-SNE는 차원 축약(dimension reduction)의 한 방법으로서 고차원의 자료를 저차원의 공간에 투영하여 분석에 포함된 개체 간 거리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결과를 검토하기 위한 시각화 방식도 다양하게 제시한다(Van der Maaten & Hinton, 2008). 본 분석에서는 기사문이 각 토픽에 속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감마값(gamma)을 활용하여 차원 축약 결과를 2차원의 평면상에서 다루고자 한다. 끝으로 문

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연관성이 높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토픽을 묶어서 토픽 구조를 정리한다.

분석의 두 번째 단계는 약 20여 년간 토픽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관찰하는 것이다. 토픽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기사문이 하나의 토픽에 속하도록 조정하였다. LDA를 통해 도출된 개별 텍스트의 감마값(γ)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각의 토픽에 속할 확률값 혹은 텍스트에 담긴 토픽의 비중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의 한 기사문이 최대 감마값을 지니는 토픽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분석 결과 제시의 간명성을 위해서 3년 단위로 시점을 묶어서 시기별 토픽 구성의 변화를 검토했으며, 여기에는 교차분석을 활용했다. 시기별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유의미하게 규모가 큰 토픽을 중심으로 변화를 추적하였는데, 교차표 내의 관측치에서 드러나는 확률적 유의미성은 하나의 셀에 속할 기댓값과 실제 관찰된 사례 규모 간의 차이를 활용하는 피어슨 잔차(Pearson's residual)를 통해 검토했다. 개별 토픽의 변화에 이어서 유사한 주제를 담고 있는 토픽을 묶은 토픽 그룹 수준에서 규모의 상대적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도별로 한 번 더 검토하여 시기에 따른 토픽 변화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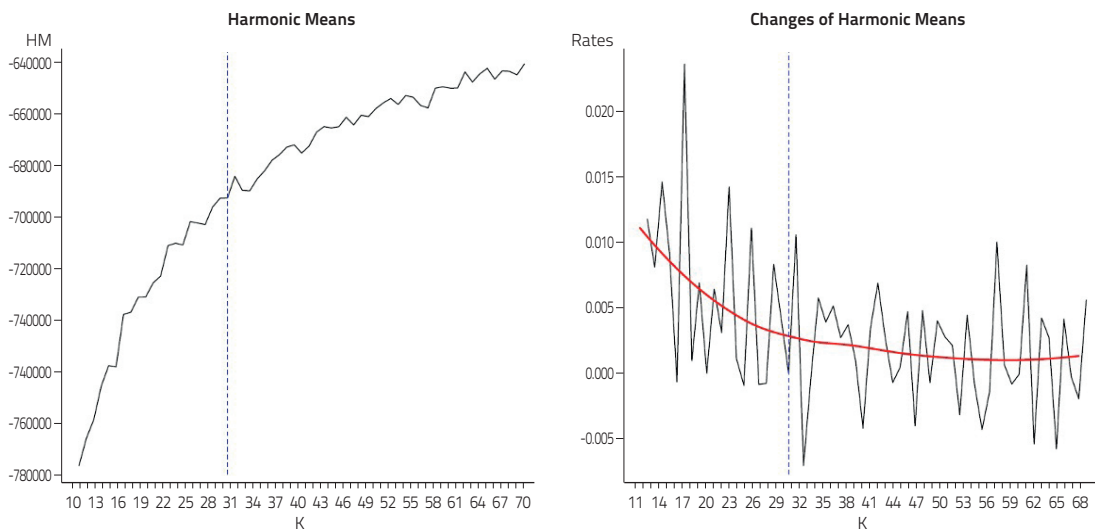
4. 분석 결과

1) 토픽 구조

〈그림 1〉은 모형(토픽 수)의 변화에 따른 조화평균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좌측의 그림은 조화평균의 변화를 제시한 것이며 우측의 그림은 이전 모형 대비 조화평균의 변화 정도를 비율값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토픽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표의 개선은 이뤄지지만 그 정도가 체감하는 지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형의 설명력과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표 개선이 둔화되는 지점을 최적 모형으로 정하고자 한다. 유산기부와 관련된

토픽의 수 자체를 엄밀하게 도출하기보다는 유산기부에 대한 논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상 이와 같은 선택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토픽의 수가 30일 때 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모형을 최종 선택하였다.

〈그림 1〉 모형(토픽 수) 변화에 따른 조화평균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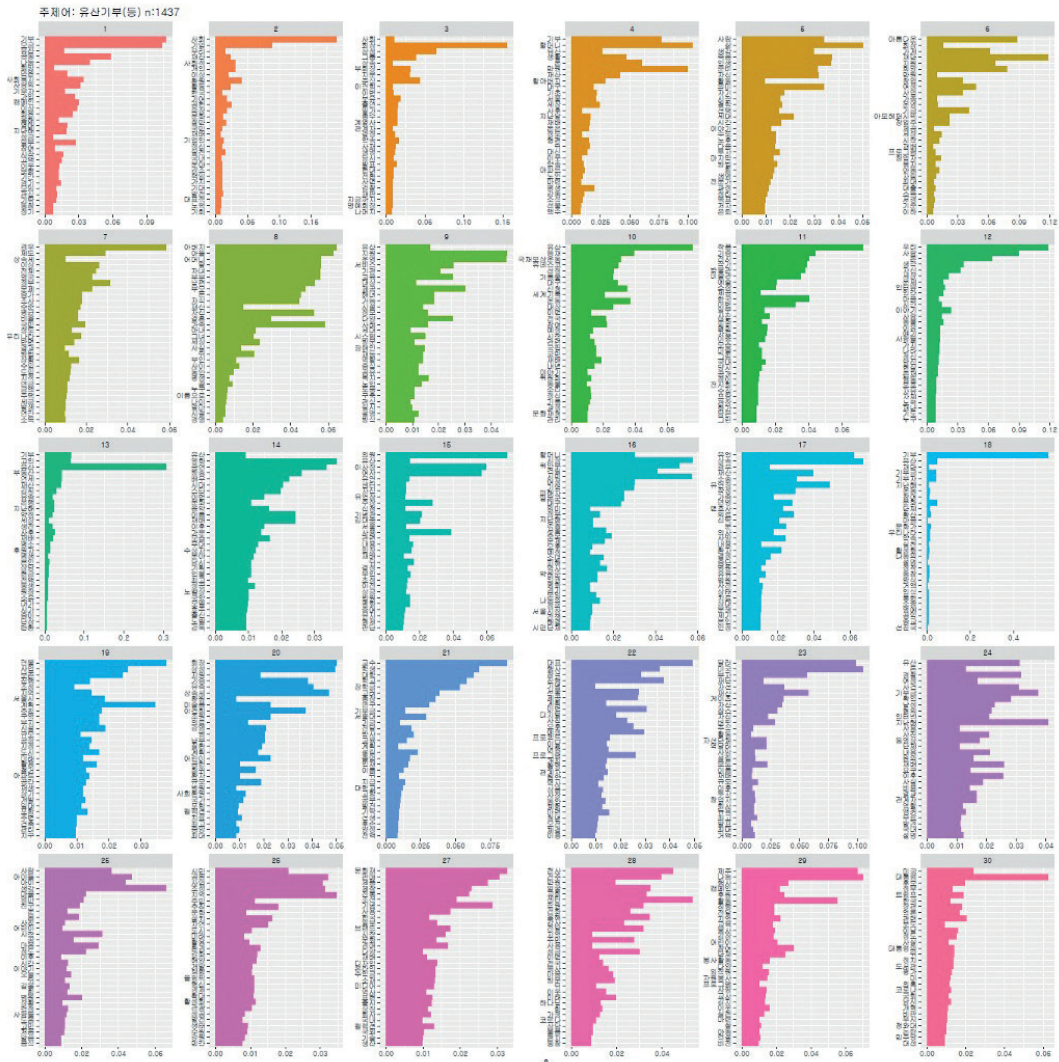
〈그림 2〉는 추출된 30개 토픽을 구성하는 상위 30개 주요어를 제시한 것이다. 주요어의 기준은 LDA 분석을 통해서 도출되는 토픽의 고유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어의 고유한 기여 수준을 의미하는 베타값(beta)을 기준으로 정렬하였다. 그림에서 막대그래프의 길이가 베타값을 의미하며 참고를 위해 단어의 나열은 빈도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빈도수와 베타값은 일정 수준 상관성을 지니지만 단어가 특정 토픽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특히 높은 빈도에 의하거나, 혹은 다른 토픽에는 없는 고유성이 예외적으로 큰 경우는 약한 상관을 보일 수 있다.

토픽 별 주요어의 구성을 검토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토픽의 내용을 초기에 검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토픽8의 경우 “아버지”, “어머니”, “부인” 등 가족과 관련된 단어가 주요어에 다수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토픽이 가족과 관련한 이슈를 다루고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 또 다른 예로 토픽16은 “할머니”, “위안부”, “추모” 등이 주요어로 있음을 통해서 위안부 피해

자의 기부와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베타값을 활용한 주요어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토픽의 성격을 일부 추정할 수 있지만 탐색적인 성격이 강하며 특정 토픽을 전형적으로 반영하는 텍스트의 실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토픽 이해에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림 2〉 토픽별 주요어의 분포



기사의 제목을 상위 5개까지 나열하였다. 이때, 기사문의 내용이 유사한 경우 하위 순번의 기사문을 제시했다. 기사문의 특성상 유산기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인사 동정, 도서 소개, 문화 행사 등 분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토픽이 추출될 수 있는데, <표 1>에서 “문화/도서/인사 동정”으로 명명된 토픽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토픽은 분석 목적상 필요가 없으므로 별도로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추후 분석에서도 제외하였다. 각 토픽별로 부여한 “토픽 이름”은 감마값이 높은 기사문의 내용과 각 토픽을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높은 베타값)의 구성을 고려하여 부여하였다. LDA에 따른 문서 분류에서 토픽 번호나 제시 순서는 연구 목적상 큰 의미가 없다.

<표 1> 토픽 추출 결과

토픽	토픽 이름	Gamma	제목
1	아너소사이어티	0.3383	‘고바우’ 김성환 화백,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0.3096	[매경이 만난 사람] '사랑의 열매' 췌신 이동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0.2719	“자녀에게 좋은 유산 물려줘야죠”
		0.2164	‘아너소사이어티’ 최초父子회원 탄생
		0.2157	“승자는 세상에 신세 많이 진 사람… ‘빛’ 값으며 살아야”
2	국내 기업인 기부	0.3654	‘부의 세습’ 주력한 재벌과는 다르다… ‘부의 환원’ 나선 4050 창업가들
		0.2769	자수성가 부자 통 큰 기부… 재벌 富대물림과 달랐다
		0.2069	[한경플라자]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길
		0.1924	[김화진 칼럼] 아산 정주영의 나눔 철학
		0.1878	직장인 기부 늘었지만…가진 자들의 ‘노블레스 NO블리주’
3	삼성 사회 환원(1)	0.5382	[경제]이건희 재산 사회환원 잘 되고 있나
		0.4049	삼성 ‘8천억 사회헌납’ 마무리
		0.3988	<현대차-삼성 사회공헌방안 공통점과 차이점>(종합)
		0.2685	이건희 유산 상속 내용 28일 발표…사회환원 계획 공개
		0.2470	미술품 최대 2조·사재 1조 등 사회 환원 나설 듯

4	시민 기부(1)	0.4253	기초생활수급자 김화규 할머니, 전세금 사후기증 약속
		0.3802	〈사랑 그리고 희망 - 2009 대한민국 리포트〉전재산 쪽방 전세금도... 장기·안구도... “받은 것 돌려줄 뿐”
		0.3523	“돈 많으면 도둑만 들어, 다 주고 가야지”
		0.3301	돈 없어 공부 포기한 동생 생각나... · · · 남동생 유산 기부한 할머니
		0.3076	[행복한 나눔 릴레이]〈8〉 유산 기부 대구 김용만 씨
5	좋은 죽음	0.5205	〈기획탐구〉 노후불안 ④ 최고의老테크는 노후 가치관 정립
		0.2846	미리 경험하는 죽음이 그대를 편안케 하리라
		0.2659	영정사진 찍고 ‘죽음’을 이야기한 청년들의 결론
		0.2466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 백만장자 신앙인이 쓴 ‘나눔의 성공학’
		0.2297	“더 많이 나누고 아름답게 떠나야죠”...‘이별학교’ 수업 현장
6	희망가게	0.5705	아모레퍼시픽 “창업 지원해드려요”...‘희망가게’ 전수창업지원사업 공개 모집
		0.4297	‘희망가게’ 50번째 희망씨앗을 심다
		0.3960	‘희망가게’ 새 창업주 모십니다
		0.2178	아름다운재단, 1% 기금 99%로 쓴다
		0.2019	‘아름답고 훈훈한 유산’ 50억
7	상속 제도 정비	0.3270	베이비부머 82% “죽으면 화장해달라”
		0.2831	[오늘과 내일/천광암]문제 많은 상속 · 증여세 손볼 때다
		0.2495	‘GDP대비 기부액 비율’ 美의 3분의 1
		0.2425	[아침을 열며] 고령사회와 상속제도 정비
		0.1980	유산기부 활성화 위해 재산의 10% 기부자 상속세 감면 등 혜택 공론화 시작
8	유산기부 관련 가족 갈등(1)	0.4247	[최효찬의 문사철(文史哲) 콘서트] 돈으로 키운 자식, 아버지를 돈으로 봐
		0.2326	자식 없어 다행이라는 백만장자의 속마음
		0.2179	백만장자 모, ‘괘씸죄’ 세 딸에 유산 5천원
		0.2074	“평생 농사로 일군 재산 좋은 일에 써야죠”
		0.1937	“癌 퇴치에 써달라” 서울대 의대에 노부부 80억 익명기부

9	문화/도서/인사 동정	.	.
10	문화/도서/인사 동정	.	.
11	문화 기부	0.5179	'이건희 컬렉션' 광주·전남에 근현대 미술작품 '51점' 기증(종합)
		0.4645	[박현주 아트 클럽]소변기' 뒤상전 서울 오게 한 '기증의 힘'
		0.2799	[정준모의 영화 속 그림 이야기] 위대한 컬렉터를 만든 나눔과 베풀기
		0.1883	국립한국문학관 도서 기증자와 자산 기부자에게 감사패 증정
		0.1725	김영섭 성대 교수, 한예종에 클래식 음반 1만장 기증...'문화 기부'
12	문화/도서/인사 동정	0.4804	위대한 문학에서 배우는 돈에 대한 7가지 교훈
13	대학 기부(1)	0.3466	날인 없는 200억대 재산 헌납 유언장 '연세대 기부' 이뤄질까
		0.2299	'120억 기부' 유언, 날인 없어 '무효' 판결
		0.2212	대법 "날인 없는 유언장 무효"...연대, 3년 분쟁 패소
		0.1884	연세의료원, 유산 기부자 클럽 '세브란스 오블리주' 론칭
		0.1694	재야 사학자故마만주 선생 유족, 동국대에 2억원 기부
14	문화/도서/인사 동정	.	.
15	문화/도서/인사 동정	.	.
16	위안부 피해자 기부	0.5699	〈광복70년〉 대구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8월 개관
		0.4829	"위안부 역사관, 평화의 전당으로 만들겠다"
		0.4048	유산 기부하고 눈감은 日 위안부 피해 할머니
		0.3568	고 김순악 할머니, 1억826만원 유산 기부
		0.2762	위안부 恨의 역사, 한국만 '찬밥신세'
17	유산기부 관련 가족 갈등(2)	0.5989	'가깝고도 먼' 존엄한 죽음...내 가족이라면 어떤 선택할까?
		0.5384	서민들도 상속 분쟁 늘어... 10건중 1건은 1000만원이하 소송
		0.5269	대중화된 상속분쟁, 불효자 뭇도 인정...유언장이 효력을 가지려면?
		0.4833	[맞춤 재테크]재산상속 유언장 작성 어떻게
		0.4173	동거녀·복지재단에 30억 유산 남긴 前남편..."애들 뭇 받을 수 없을까요"

18	유산기부 소개	0.2570	[위크엔드]기부 세제지원 뭐가 있나...
		0.2444	새로운 형태의 기부문화 '유산기부' 조금씩 늘어
		0.2254	이색 기금 등장...기부 문화 확산
		0.2150	[시론/박태규]'유산기부' 풍요한 사회 만든다
		0.2144	[국회 입법 전망대] 기부문화와 세제혜택
19	문화/도서/인사 동정	.	.
20	삼성 사회 환원(2)	0.6138	미술계도 놀란 컬렉션 기증..의료공헌에만 1조원
		0.5417	유례없는 삼성家の 사회환원
		0.4963	고(故) 이건희 회장 “유익한 일에 쓰겠다” 13년前 약속대로...의료사업에 1조
		0.4951	감염·희귀병 퇴치에 1조... 13년 전 약속 '코로나 맞춤형' 공헌 현실화
		0.4491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이건희 사회환원, 어떻게 나왔나
21	대학 기부(2)	0.3539	토지보상금5억 고려대에 쾌척
		0.2943	'얼굴 없는 천사' 얼굴 드러냈다...5년째 동신대 기부
		0.2684	“아내의 나라, 한국 대학에 유산 기부”
		0.2678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가 평생 몸담았던 부경대에 기부합니다
		0.2418	유산 50억 KAIST에 기부
22	문화/도서/인사 동정	.	.
23	해외 거부 기부	0.4004	“기부만 안했으면”...빌게이츠 세계 갑부 2위
		0.3645	대체 미국 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0.3426	버핏 효과 확산, 그러나 여전히 인색한 미국 부자들
		0.3405	세계는 지금 기부 열풍... 거부들 재산 사회 환원 잇달아
		0.2955	미국 '슈퍼부자'들은 죽으며 어떤 재산을 남길까
24	문화/도서/인사 동정	.	.
25	문화/도서/인사 동정	.	.
26	문화/도서/인사 동정	.	.
27	문화/도서/인사 동정	.	.

28	시민 기부(2)	0.5494	'전주 얼굴 없는 천사' 올해도 나타나... 22년째 선행
		0.5476	[아직 살만한 세상] 한푼 두푼 모은 돼지저금통... 19년간 6억 기부한 '천사'
		0.4944	"도난→회수"...우여곡절 끝 '전주 천사' 20년간 6억7천만원 기부
		0.3773	'10원짜리 동전부터 5만원권까지'...'천사' 기부금 '6016만3510원'
		0.2862	창녕군, 연말 한파 녹이는 기부행렬 이어져
29	문화/도서/인사 동정	.	.
30	문화/도서/인사 동정	.	.

〈그림 3〉은 T-SNE를 활용한 토픽별 의미 거리를 제시한 결과이다. 토픽의 의미상 거리 확인을 통해서 앞에서 제시한 토픽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징적인 토픽을 중심으로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에서 좌측의 산점도는 2차원의 공간에 기사문 내용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각 기사를 점으로 표시하여 제시한 것이다. 우측의 그림은 이를 다시 앞서 제시한 토픽 번호로 표시한 것이다. 비교 검토의 편의를 위해 기사문의 수가 많은 경우는 글자의 크기를 더 크게 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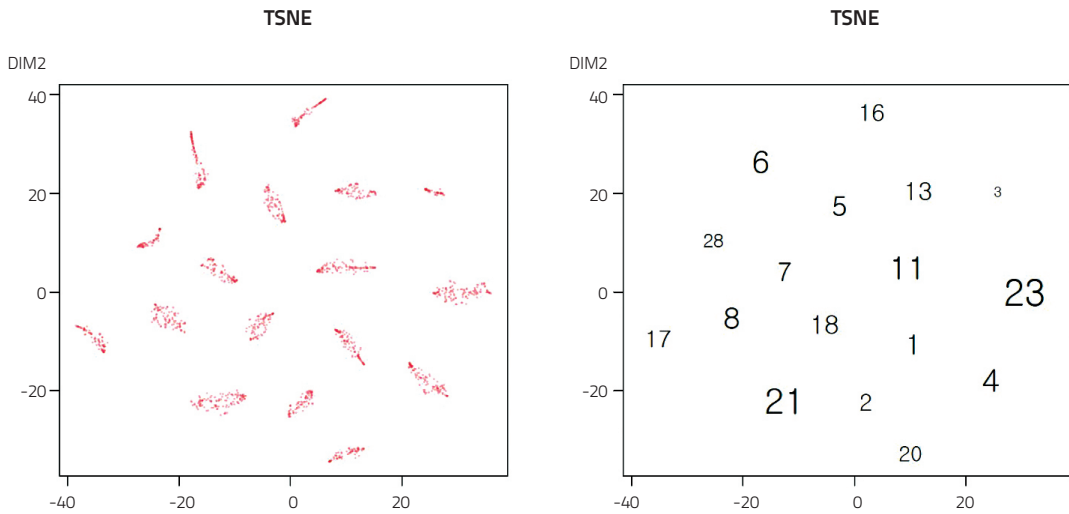
그림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토픽23은 앞에서 해외 거부들의 유산기부 관련 소식을 전하는 내용임을 확인하였다. 토픽23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토픽4는 일반 시민들의 기부 관련 주제로 유산기부 주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픽23과 거리를 두고 가족 갈등을 다루고 있는 토픽17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두 토픽의 내용상 이질적 성격에 의해 의미상 거리가 멀게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토픽17과 가장 가까운 토픽8은 상속과 관련한 갈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깝게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미상 분포에서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는 여타의 토픽들과 겹치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분포에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토픽18번의 경우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유산기부에 대한 소개와 사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토픽과의 공통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T-SNE를 활용한 토픽 간 의미상 거리에 대한 분석 결과는 토픽을 묶는 엄밀한 기준을 제시한다기보다는 토픽의 성격을 의미상 거리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토픽 모델링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토픽을 묶어 의미상 위계 구조를 다루는 것은 이론적, 해석적 과정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는 문헌 검토에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어서 토픽의 의미 구조를 정리하고자 한다.

〈그림 3〉 T-SNE를 활용한 토픽별 의미 거리



〈그림 4〉는 의미가 유사한 토픽을 묶어 위계적으로 재구성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의미상 위계 구조는 앞서 문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회 전반의 성숙”, “기부 문화 성숙”, “가족주의 습속 극복”으로 나누었다. 사회 전반의 성숙을 다루고 있는 토픽은 다시 “부의 책무성”, “의미 있는 마감”으로 분류했다. 기부 문화 성숙과 관련해서는 “소개/관심”, “모금 기관”, “법제도 환경”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가족 문화와의 충돌을 다루고 있는 토픽 그룹은 하나의 토픽만 포착되었기 때문에 세부 구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토픽 구성은 문헌 검토에서 살펴보았던 유산기부와 관련된 주요 요인들과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각 요인들의 성숙 수준과 별개로, 적어도 내용적 측면에서 유산기부와 관련된 논의가 한국 사회에서 일정 수준 체계를 갖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 토픽의 의미 구조



2) 토픽 구성의 시계열 변화

〈그림 5〉는 토픽 구성의 전반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토픽과 시기별 텍스트의 분포를 전반적으로 제시한 결과이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시기는 3년 단위로 묶었다. 각 셀의 크기는 해당 시기와 토픽에 속하는 텍스트의 상대적 규모를 의미하며, 실선의 진한 셀일수록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텍스트의 양이 많은 것으로, 반대로 점선의 진한 셀일수록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텍스트의 양이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시기별로 확률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규모를 차지하는 셀은 토픽의 명칭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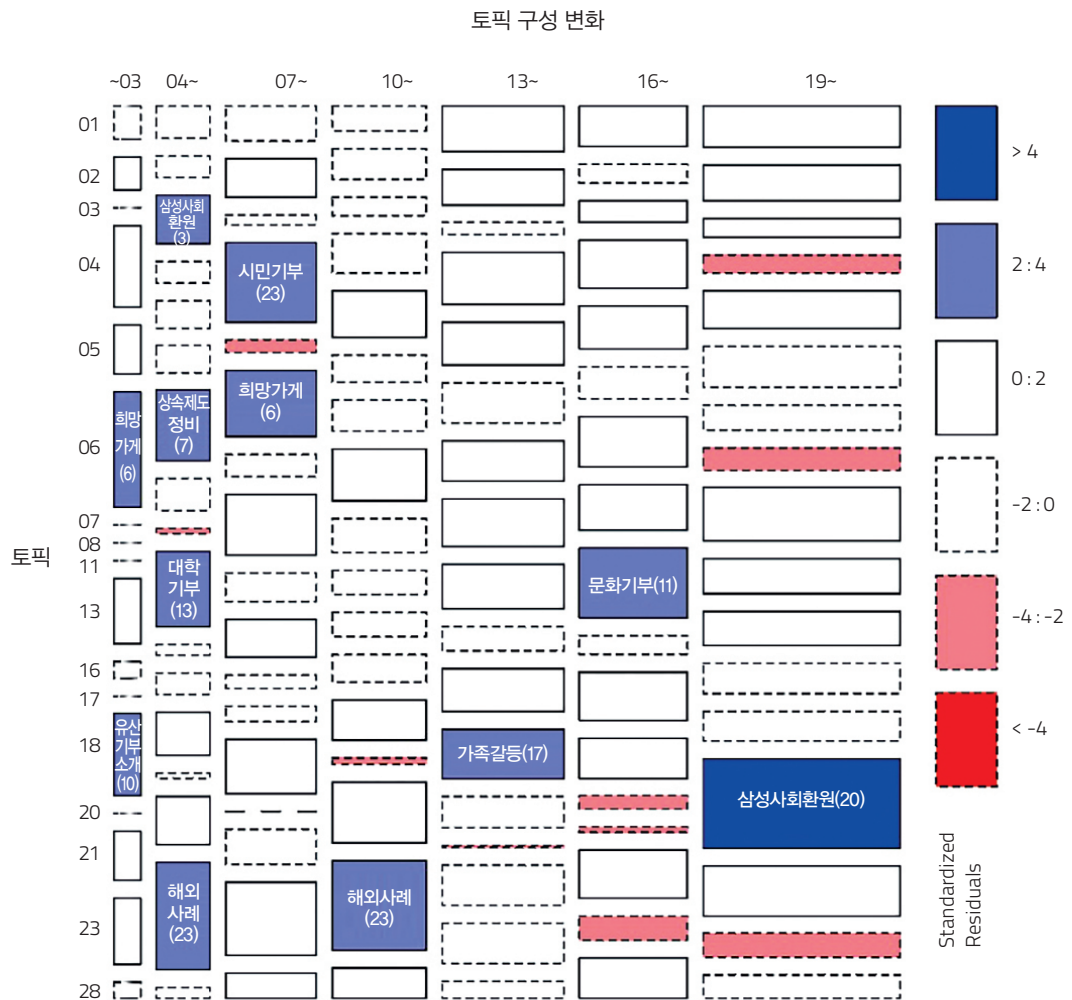
그림에서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유산기부에 대한 기사는 양적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사문의 꾸준한 양적 증가는 총량적 수준에서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기별로 토픽 구성의 특징적인 측면을 확률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토픽을 중심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의 초기 시점부터 2006년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유산기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주제가 다양해지는 시기적 특성을 보인다. 2003년 이전 시점의 경우 “희망가게”와 “유산기부 소개”에 대한 주제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시점에 유산기부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시작되었으며, 그 지점에 “희망가게” 사례가 있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어진 2004~2006 시점에서는 유산기부와 관련된 토픽이 보다 다양해지는 패턴이 관찰됨을 알 수 있다. “삼성 사회 환원”, “상속 제도 정비”, “대학 기부”, “해외 사례”가 유의미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책임지는 부, 관련 법제도의 정비, 기부의 다양화 등으로 유산기부에 대한 논의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해외 거부의 유산기부 사례는 이런 흐름에서 사회적 관심을 더욱 촉발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는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시민사회 저변으로 확대되는 확산기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7~2009 시점에 “시민 기부”와 “희망가게”에 대한 주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유산기부에 대한 논의가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2018년까지 토픽 구성에서 큰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지만 이 시점 중반(2013~2015)에 “가족 갈등”이 유의미한 토픽으로 포착되는 점은 유산기부 논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필

수불가결하게 한국 사회의 강한 가족주의 전통과 마찰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5〉 토픽 구성의 전반적 흐름과 시기별 주요 토픽



2019년 이후 시점은 유산기부에 대한 기사문의 양이 이전의 점진적인 증가 추세와 달리 크게 증가한 시점이며, 이 시기의 핵심 토픽은 “삼성 사회 환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산기부의 특성상 큰

규모의 기부가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질 때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시점은 대규모 감염병 상황과 겹치기 때문에 이후의 사회적 변화가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의 양적 측면이나 내용적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찰이 요망된다.

〈그림 6〉은 앞서 토픽을 상위 의미 단위로 묶은 토픽 그룹이 텍스트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검토한 것이다. 기사문이 대부분의 토픽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비중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토픽 전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5〉는 〈그림 4〉에서 살펴 본 토픽의 시기별 전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의가 있다.

각 토픽 그룹의 상대적인 비중 변화는 일률적인 추세를 보이기도는 시기별로 그 구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미 있는 마감”의 경우는 시기별 파동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그 비중이 높아지면서 일정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고령화 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다 의미 있게 생을 마감하는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그 하나의 방식으로 유산기부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산기부에 대한 안내와 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내용인 “소개/관심”은 분석 초기 시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후는 그 비중이 빠르게 감소해서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를 단순하게 안내하는 토픽의 중요도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이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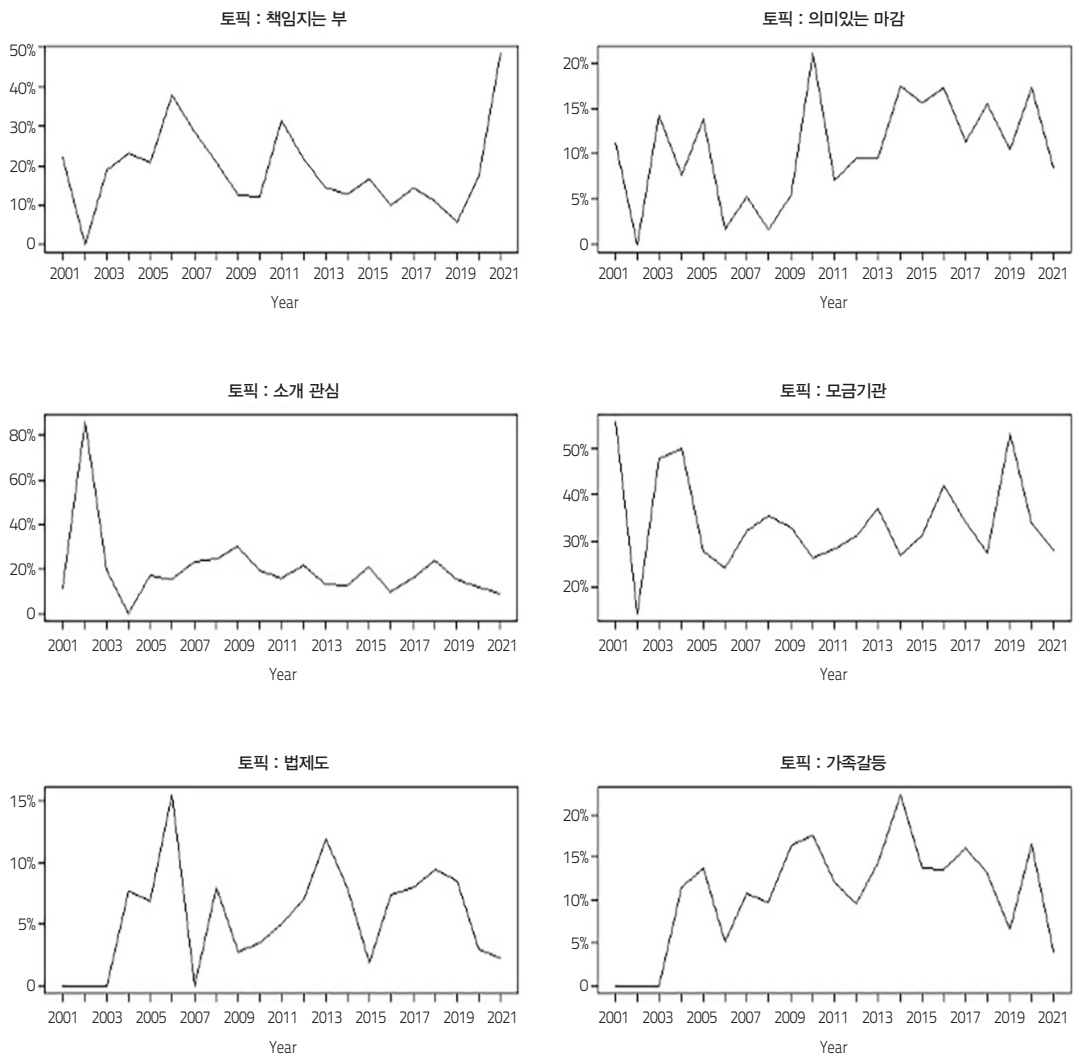
모금 기관의 역할은 특히 초반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일정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이것은 앞서 토픽별 비중 변화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초기 시점에 “희망가게”와 같은 활동이 유산기부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면서 다양한 유산기부 사례와 방식이 제안되면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책임지는 부”의 경우는 특정한 시점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최근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큰 규모의 유산기부 움직임이 있을 때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는 패턴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제도” 또한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비중이 일정하게 높아지는 패턴을 보이는데, 유산기부와 관련된 법적 정비가 이뤄지는 시점을 중심으로 관심이 모아지는 특성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갈등”에 대한 내용은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과 궤를 같이하면서 비

중이 높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산기부 논의의 확산과 가족 중심적 한국 문화 사이의 마찰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최근 시점에 관련 비중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른 토픽 그룹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책임지는 부”의 높은 점유율에 의한 것으로, 이후 변동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그림 6〉 토픽 그룹별 상대적 비중의 변화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유산기부 논의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는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유산기부는 기부의 한 방식으로서 지니는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서 기부 문화는 물론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는 현상이다. 여기서는 그와 같은 변화를 사회 전반의 성숙, 기부 문화의 심화,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가족주의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 실증 자료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실증 관찰은 2001년 이후 약 20여 년간 유산기부를 다루고 있는 언론 기사문을 수집하여 토픽 모델링을 중심으로 토픽의 성격과 토픽 비중의 시계열적 변화를 관찰했다.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의 유산기부 논의에서 사회 전반의 성숙을 드러내는 주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 전반의 성숙을 드러내는 주제는 기업인을 중심으로 전개된 자본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측면과 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두 측면으로 크게 대별하여 살펴 볼 수 있었다. 전자는 기부 규모가 큰 기업인의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면 후자는 유산기부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과 관련성이 높다. 따라서 토픽의 상대적 비중 변화 또한 전자의 경우는 특정 기업인의 유산 기부 사례를 중심으로 변화가 관찰된다면, 후자는 점진적으로 비중이 확대되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를 보였다.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 증대는 한국 사회의 성숙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둘째, 유산기부 논의의 전개 과정에서 비영리 모금 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문헌 검토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유산기부는 특성상 모금 단체에 대한 투명성과 역량에 대한 신뢰가 기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산기부 논의 확산은 관련 단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대와도 관련된다. 특히, 토픽의 시기별 구성 변화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희망가게”로 상징되는 모금 단체의 역할이 한국 사회에서 유산기부가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함께 등장하고, 이후 논의 확산 시점에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헌 검토에서 유산기부에 관한 개인의 결정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주어지는 역할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가족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역할을 강하게 강조하는 한국의 가

족주의 습속은 한국 사회의 유산기부 확산에 중요한 도전 요소가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분석 결과는 가족과의 갈등을 다룬 토픽이 유산 기부 논의의 확산 과정에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유족이 유산기부 결정에 반발하거나 유족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유산기부를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점은 가족 중심주의 문화의 한계를 적절하게 극복하는 가운데 기부 행위를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놓고 한국 사회 기부 문화 확산에 필요한 두 가지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기부 활성화에 모금 단체의 역할이 전반적으로 중요하지만 유산기부는 사후에 이뤄지는 계획된 기부라는 측면에서 모금 단체의 특히 높은 신뢰가 필요하다. 즉, 모금 단체의 투명성, 그리고 기금 활용 기획과 집행에 있어 높은 수준의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한국의 주요 모금 단체들은 유산기부의 도입에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산은 이들 단체의 신뢰, 그리고 역량 강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산기부의 사회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기금 운영 기획과 운영에서의 투명성, 그리고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유산기부 문화가 특수한 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있는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음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문헌 검토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유산기부를 까다롭거나 특수한 기부 형태로 인식하는 것이 개인의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 습속은 유산기부와 관련해서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유산기부를 고려하고 있거나,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참여자들이 이와 같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심리적 부담 없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유산기부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된다면 강한 가족주의 전통에 따른 공동체적 연대 의식의 약화를 경험해 왔던 한국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철희, 이종은, 배민경. (2009) “우리나라 시민의 유산기부의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5 - 32.
- 박은정, 조성준. (2014) “KoNLPy: 쉽고 간결한 한국어 정보처리 파이썬 패키지”, 제26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 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 송재룡. (2008) “한국사회의 자살과 뒤르케임의 자살론: 가족주의 습속과 관련하여”. 사회이론, 34, 123 - 162.
-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 - 1022.
- Friedman, B. M. (2006). The Moral Consequences of Economic Growth. *Society*, Jan/Feb, 9, 15-22
- Griffiths, T. L., & Steyvers, M. (2004). Finding scientific topic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1, 5228 - 5235.
- Pelozo, J., & Steel, P. (2005). The price elasticities of charitable contributions: A meta-analysis. *Journal of Public Policy & Marketing*, 24(2), 260 - 272.
- Sargeant, A., Hilton, T., & Wymer, W. (2006). Bequest motives and barriers to giving: The case of direct mail donors.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17(1), 49 - 66.
- Van der Maaten, L., & Hinton, G. (2008). Visualizing data using t-SNE.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9(11), 2579 - 2605.
- Wiepking, P., Scaife, W., & McDonald, K. (2012). Motives and barriers to bequest giving: Motives and barriers to bequest giving. *Journal of Consumer Behaviour*, 11(1), 56 - 66.
- Wilberforce, S. (2001). *Legacy fundraising: The art of seeking bequests*. London: Directory of Social Change.

2022년
기획연구

Part. 5

국제 해외 기부 경향 분석: 해외 기부의 다양성 및 포괄성



책임 연구원 **정복교** 케인대학교

공동 연구원 **김성주**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공동 연구원 **윤정아** 케인대학교





책임 연구원

정복교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Kean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ssociate Professor

학력

University of Pittsburgh, Graduate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Ph.D.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주요경력

Rutgers University-Newark, School of Public Affairs and Administration, New Jersey,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Robert Morris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Pennsylvania, Adjunct Faculty

Duke University, Sociology and Public Policy, Visiting Scholar Fellowship

연구실적

- Jeong, B. & Kim, S. (2021). "NPO/NGO Educ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Journal of Public and Nonprofit Affairs*. 7(2), 173-191.
 - Jeong, B. & Kim, S. (2021).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Collaboration against COVID-19 in South Korea: A Single or Multiple Actor Play?" *Nonprofit Policy Forum*. 12(1), 165-187.
 - Compion, S., Cnaan, R., Brudney, J., Jeong, B., Zhang, C., and Haski-Leventhal, D. (2021). "Young, Fun, and Free: Episodic Volunteers in Ghana, South Africa and Tanzania,"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1-16.
 - Jeong, B., & Kim, S. J. (2019). NPO/NGO Higher Education Programs in South Korea: Social Movement and Entrepreneurial Management Drives. *Journal of Nonprofit Education and Leadership*, 9(1), 39-62.
 - Jeong, B. (2015). "Developmental state and South Korean social enterprise model," *Social Enterprise Journal*, Special Issue-An International Institution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Social Enterprise Country Models: A Critique and Expansion. Vol. 11 (2), pp. 116-137. DOI: 10.1108/SEJ-01-2014-0005.
 - Jeong, B. & Kearns, K. (2015). "Accountability in Korean NPOs: Perceptions and strategies of NPO leaders,"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Vol. 26 (5), pp 1975-2001. DOI: 10.1007/s11266-014-9492-8.
-



공동연구원

김 성 주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Assistant Professor

학력

School of Social Work, Indiana University, Ph.D.

Mandel School of Applied Social Science,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MSSA.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주요경력

Monmouth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Assistant professor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Adjunct facul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Research Fellow

연구실적

- Kim, S. J., & Jeong, B. (2021). University-based nonprofit and nongovernment education in South Kore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Nonprofit Education and Leadership*. Advanced online publication. DOI: <https://doi.org/10.18666/JNEL-2021-10982>
 - Cai, Q., Okada, A., Jeong, B., & Kim, S. J. (2021). Civil Society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A Comparative Study of China, Japan, and South Korea. *China Review*, 21(1), 107-137.
 - Lee, L. & Kim, S. J., (2020). The effect of government grants on private giving to East Asian nonprofits: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managers. *Advances in Social Work*, 20(1), 95-113.
 - Kim, S. J., & Jung, J. K. (2019). Korean nonprofit/non-government sector research: A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Voluntaristics Review: Brill Research Perspectives*, 4(6), 1-71.
-



공동연구원

윤정아

Kean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ssistant Professor

학력

School of Public Affairs and Administration, Rutgers University-Newark, MPA, Ph.D.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주요경력

Rutgers University-Newark, School of Public Affairs and Administration, Adjunct faculty
한국전력공사 근무

연구실적

- Yun, J., Hamidullah, M. & McDougale, L. (2020). An Analysis of Gender Differences in Public Administration Doctoral Dissertation Research. *Journal of Public Affairs Education*, 26(1), 73-95. <https://doi.org/10.1080/15236803.2019.1565593>
 - Yun, J., Lee, Y., & Mastracci, S. (2019). The Moderating Effect of Female Managers on Job Stress and Emotional Labor for Public Employees in Gendered Organizations: Evidence from Korea. *Public Personnel Management*, 48(4), 535-564. <https://doi.org/10.1177/0091026019829163>
 - Hamidullah, M. F., Yun, J. A., McDougale, L. M., Shon, J., Yang, H., & Davis, A. (2021). Exploring individual predictors of variation in public awareness of expressive and instrumental nonprofit brands.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e01710. <https://doi.org/10.1002/nvsm.1710>
 - Kang, D., Yun, J., & Kim, P. (2019). Gender Diversity and Public Employees'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The Importance of Personnel Policies for Gender Equality in the Korean Govern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Studies*, 10(2), 317-340.
-

요약

본 연구는 2020 글로벌 필란트로피 추적 보고서(Global Philanthropy Tracker, 이하 GPT) 연구와 유엔 OCHA의 자금추적서비스(Financial Tracking Service, 이하 FTS)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국의 해외 기부 규모와 공여국 및 수원국을 매칭하는 방법으로 국제 해외 기부 트렌드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특히 해외 기부의 포괄성과 다양성에 초점을 두었다. 국가 기관 중심의 해외 기부 현황 분석에서 벗어나 민간 주체, 시민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해외 기부까지 포함하는[포괄성(Inclusiveness)] 해외 기부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정 지리적 지역이나 국가에 집중 또는 분산되는 정도[다양성(diversification) 및 탈집중성(non-concentration)]까지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기부 다양성 지수를 개발하여 각 나라의 해외 기부가 얼마나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본다. 연구 결과, 해외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나라들은 대체로 주요 서구 국가들이나,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시아 국가들도 해외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구 국가들이라도 유럽연합 국가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참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기부 다양성 지표를 통한 다양성 분석 결과 해외 기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다양성 지표는 높게 측정된 국가도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각 국가별 해외 기부 규모와 수원국/수원단체들의 유형과 규모, 그리고 각 국가가 강조하는 해외 기부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 기부가 지리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는지 아니면 편중 없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는 해외기부 다양성 지수(GPDI)는 향후 국제 개발 및 해외 기부 분야 학계 및 실무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글로벌 필란트로피, 해외 기부, 해외 기부 보편성, 해외기부 다양성 지수, 국제 비교

I. 들어가며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21세기에는 모든 분야의 국가적 이슈가 세계적으로 확대·심화되므로 국가의 사회적 문제를 자국 내 자원 동원은 물론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특히 해외 기부도 국제 사회 및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즉, 한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개인, NPO/NGO단체, 기업, 재단, 또는 국제 기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시민사회의 역할로 자리매김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국가들의 공적 개발 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들 수 있는데, 1960년에 시작한 ODA 프로그램은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 및 사회 발전,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나라들에 대해 해외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ODA의 주요 수원국 중 하나로, 1950년 한국전쟁 전후부터 1990년대까지 ODA로부터 약 127억 달러를 지원받았으나, 1970년대 이후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창설함으로써 수원국에서 벗어나 공여국으로서 해외 기부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Kim & The Beautiful Foundation, 2020). 아름다운재단의 연구에 의하면(ibid), 2007년 한국 기부자의 9.5%가 해외에 기부하였는데, 이 비율은 2018년에는 31.1%로 증가하였다.

한편 다른 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부 주도의 ODA 이외에 민간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다른 나라의 경제·사회적 이슈에 필란트로피적 지원을 꾸준히 제공하여 왔으나, OECD의 ODA 규모에 대한 통계 자료 이외에 각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주체들의 해외 기부 사업 참여 규모 및 내용에 대한 연구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해외 기부 사업의 규모를 측정하는 연구 자료는 미국의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의 글로벌 번영 센터(Center for Global Prosperity)에서 발행하는 글로벌 필란트로피 및 송금 지수(Index of Global Philanthropy and Remittances, IGPAR)에 관한 보고서가 거의 유일하다. 이 연구는 2006년에 시작되었으며 각국의 ODA 및 해외 송금 규모

를 파악하여 각국의 해외 기부 활동에 관한 지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허드슨 연구소의 글로벌 필란트로피 및 송금 지수에 관한 연구는 2016년 총 3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기부 사업의 규모를 측정하여 발표한 「글로벌 필란트로피 및 송금 지수(Global Philanthropy and Remittances), 9판」을 마지막으로 종결되었으며, 이 연구는 2016년부터 인디애나 대학의 필란트로피 연구소로 이전되어 글로벌 필란트로피 추적 보고서(Global Philanthropy Tracker, 이하 GPT)라는 이름으로 수정되어 계속 진행되었다. GPT 연구에서는 ODA 규모 및 해외 송금뿐만 아니라, NGO/NPO 단체가 제공하는 해외 민간 필란트로피(Philanthropic Outflows), 공익성 민간 투자(Private Capital Investment, 이하 PCI)를 포함해서 각 국가의 전체 해외 기부 현황을 조사하였다.

GPT 프로젝트 이외에 해외 기부 트렌드를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는 유엔(United Nations, 이하 UN) 산하 인도지원조정국(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이하 OCHA)에서 제공하는 재정확인서비스(Financial Tracking Service; 이하 FTS)가 있다. FTS는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인도적 기금 지원 흐름을 집계한 자료로서, 각 정부의 해외 지원 기금, UN의 인도적 지원 기금, UN 기관, 국제 NGO 및 다른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인도적 지원 기금을 집계하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FTS 데이터는 기부자(정부 및 민간 기관)와 인도주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관 당사자(UN 기관, 적십자사 기관, NGO 및 시민사회단체 기관 등) 사이의 자금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보여준다. FTS 데이터는 자금 모금 및 집행의 진행 단계를 인도주의 지원 요청 및 대응 플랜에 근거해 모니터링하고 자료 수집을 한다(Financial Tracking Service, n.d). FTS는 각 국가의 다양한 주체가 제공하는 해외 기부 중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자료만 수집하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는 행위자 및 기관에 관한 정보를 섹터, 기관의 유형, UN/NGO 기관의 관여 등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2020 GPT 보고서와 함께 보완적으로 사용되면 해외 기부금의 수준과 내역, 자금의 흐름을 보다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GPT 데이터를 통해 각국의 해외 기부 규모를 파악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FTS 데이터를 통해 해외 기부가 어느 정도로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해외 기부의 정량 비교를 넘어서서 해외 기부의 다양성까지 분석해볼 수 있다. 더 나아가 GPT 데이터와 FTS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외 기부 분산성 산정 방식을 제안하고 실제로 실증 자료를 통해 이를 산정함으로써

써 향후 해외 기부 다양성 및 보편성 측정에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측면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가 해외 기부의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방향과 초점은 다음의 두 가지로 집약이 된다. 첫째, 해외 기부가 이루어지는 양태와 수준에 있어서의 포괄성(inclusiveness) 분석이다. 현 시기에는 국가 기관 중심으로 해외 기부가 일원화되어 이루어지는 단계를 넘어서서 다양한 행위 주체가 해외 기부에 기여를 하고 있다. 시민단체, 민간 단체, 개인 단위의 민간 지원, 송금, 투자 등의 규모가 상당 수준에 이르며, 이를 파악해 해외 기부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해외 기부의 다양성(diversification) 및 탈집중(non-concentration)을 반영하는 연구이다. 해외 기부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집중되는지 아니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이루어지는지 분석을 함으로써, 기부 국가와 해당 국가의 행위자들이 보여주는 필란트로피적 관심의 다양성/보편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2020 GPT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국의 해외 기부 사업 규모를 비교 분석하고, FTS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국의 해외 기부 사업의 수원국/수원단체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각 국가별 해외 기부 규모와 수원국/수원단체들의 유형과 규모를 파악하고, 각 국가가 강조하는 해외 기부의 특징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제 사회의 해외 기부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디애나대학의 2022 GPT 보고서에 사용된 각 나라의 해외 기부금 데이터와 FTS의 자료 중 기부금 제공 국가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여 각 나라의 해외 기부 규모 및 기부금 제공 국가(이하 공여국)와 기부금 수령국(이하 수원국)을 서로 매칭하였다.

인디애나대학의 GPT 데이터는 총 47개 국가를 대상으로 2018년 해외 기부금 총액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로서, GPT에서 정의하는 해외 기부금은 1) 각 나라의 기부자(개인, 기업, 재단, 또는 다른 기부금 배분 단체 등)가 다른 나라의 개인, 비영리단체 및 유관 협력 기관에 제공한 기부금과, 2) 외교 문제, 인도적 지원, 국제 관계 이해 도모 또는 국제적 연대 증진과 같은 광범위한 범주의 국제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있다.

해외 기부금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근거하여 인디애나대학에서는 각국의 해외 기부 규모 및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 4가지 항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째, 해외 기부(cross-border philanthropy).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업이 필란트로피를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송금한 기부 금액을 포함하였다. 총 47개 나라의 해외 기부 트렌드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32개 국가의 해외 기부에 관한 정보는 각국의 통계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간하는 공공 데이터를 통해 수집하였다. 한편 인디애나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은 기관들을 통하여 추가 정보를 수집해 반영하였다. 둘째, ODA. OECD가 매년 출판하는 OECD 국가의 ODA 자료로부터 총 37개 국가의 ODA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셋째, 송금.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2018년 해외 송금 자료를 바탕으로 각국의 해외 근로자의 임금 및 개인 송금 총액을 합산하여 추정하였다. 세계은행에서 측정한 해외 송금 금액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의 자료를 근거로 추출하였는데, 은행을 통한 해외 송금만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PCI가 포함되었는데, OECD에서 제공하는 민간의 해외 투자금액을 참조하였다. OECD에서 제공하는 PCI 자료는 직접 투자, 국제 은행 대출, 채권 대출 및 기

타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FTS 데이터는 1992년 UN 총회 결의 제 46/182호의 결의안에 의해서 UN 산하 기구인 OCHA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로서 각국의 인도주의적 기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FTS는 기부금을 제공하는 국가 및 단체의 정보뿐만 아니라 수원국 및 수원단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S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총 186개 나라가 수령한 해외 기부 금액을 파악하고 기부금의 출처를 취합하였다.

GPT 자료에서는 각국 정부 및 민간 주체(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공익 목적의 기부에 관한 자료와 사회적 투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FTS 자료에서는 각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예, 각종 재난 구호)을 대상으로 기부자 주체 유형에 대한 정보(정부 기관(중앙 정부, 지방 정부), 비정부기구, UN 기구, 민간 기관, 민간 재단, 개인 등) 및 구체적 기부/자금의 흐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각 개별 해외 기부 주체와 기부 금액, 기부 제공처, 기부금 전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FTS 자료는 자금 모금 및 집행의 진행 단계를 함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 지원 호소 및 대응 플랜을 종합해서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S에서 제공하는 국가 간의 해외 기부에 대한 데이터 중 해외 기부 수령 상위 10개 수여국과 단체를 정리하여(기부금 출처, "Funding by Source") 국가 간의 해외 기부 흐름을 살펴 보았다. FTS 제공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총 186개 국가 중 지원받은 자금 출처 정보가 제공되는 국가는 127개이며, 이들 127개 수원국에 대한 기부금 출처 정보를 정리하였다. 포함되지 않은 59개 국가는 공여국 및 자금에 관한 자료가 없는 국가들이다.¹⁾

또한 FTS 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수원국의 주요 기부금 공여국에 관한 정보에서는 평균 95.2%의 기부금 출처를 파악할 수 있었다(최대 100% 알바니아 포함 52개국 ~ 최소 56.1% 1개국 감비아). 127개 수원국 중 공여국에 대한 정보가 80% 미만인 나라는 7개 국가이다. 이들 7개 국가 및 이들 국가의 수원액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다(방글라데시 79%, 레바논 78%, 팔레스타인 77%, 나이지리아 74%, 시에라리온 71%, 라이베리아 64%, 감비아 56%).

1) 포함되지 59 국가는 자금 출처 정보가 FTS에 없는 경우이며, 이들 59개 국가 중 (A) 21개 국가는 본 연구에 포함된 공여국이지만, 자금 출처 정보가 FTS에 없는 경우이며, (B) 38개 국가는 본 연구에 포함된 공여국도 아닌 경우이다. 그리고 (A)의 21개 국가 중 5개 국가 (중국, 쿠웨이트, 리히텐슈타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는 OECA DAC 회원국이 아닌 경우이며, (B)의 38개 국가 중 6개 국가 (체코,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는 OECD DAC 회원국인 경우이다.

III. 연구 결과

1. 국가별 해외 기부 트렌드: 2020 GPT 연구 결과 요약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20년 GPT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에 포함된 총 47개 국가의 해외 원조 총액은 약 913조 1천억 원으로, 이 중 송금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전체 해외 원조 중 57.6%(약 525조 9천억 원)는 해외 송금 금액, 21%(약 191조 7천억 원)는 ODA 13.3%(약 121조 원)는 PCI 금액, 그리고 8.2%(약 74조 5천억 원)는 개인 또는 NPO/NGO가 제공한 해외 민간 기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1] 해외 원조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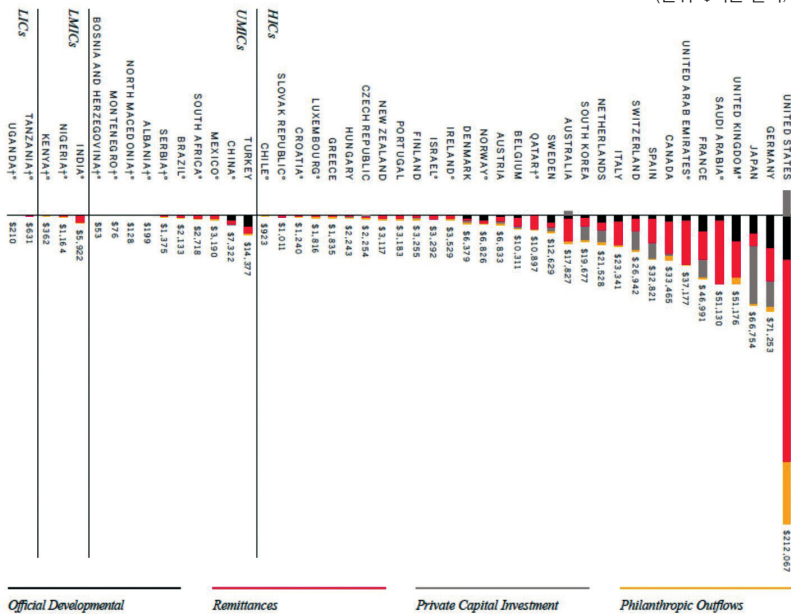
[출처]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20). Global Philanthropy Tracker 2020.

또한 해외 원조 규모 상위 20개국 중 대륙별 국가 분포를 살펴보면 유럽 국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동 국가(4개국), 아시아(3개국), 북아메리카 국가(2개국), 오세아니아(1개국)로 나타났다²⁾.

2020년 현재 한국은 47개 국가 중 13번째로 큰 규모를 보였으며, 동아시아에서는 일본보다는 적은 규모이지만 중국보다는 많은 규모의 해외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등 대표적인 북유럽 및 서양 선진국보다 더 많은 해외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제적으로 상위 그룹에 속한 나라들 중 해외 원조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나라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유럽연합 국가 중 상당 국가가 한국에 비해서 해외 기부에 적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 국가별 해외 원조 규모 비교

(단위: \$백만 달러; 2020년 자료 기준)



Source: 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20 Global Philanthropy Tracker
 Data: ODA and private capital investment from the OECD; Remittances from World Bank; Philanthropic outflows from various sources researched by the 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and shared by partner organizations for some economies. See Appendixes for specific data sources for each economy included.
 Notes: HICs: High-income countries; UMICs: Upper-middle income countries; LMICs: Lower-middle income countries; LICs: Low-income countries
 † Countries that did not have ODA estimates / * Countries that did not have estimates on private capital investment

2)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은 터키보다 적은 규모의 해외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보다 적게 제공하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이스라엘 등이 포함된다.

아래 [그림 3]은 해외 원조를 책정하는 항목 중 개인 및 NPO/NGO 등 민간 단체들이 제공하는 해외 민간 필란트로피 규모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ODA, 송금, 그리고 PCI는 각 나라의 경제 구조 및 경제 상황, 정치적·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지원 규모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자선적 해외 기부의 규모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민간 수준에서의 순수 필란트로피적 해외 기부 규모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3]에서는 각 나라의 민간의 필란트로피적 해외 기부 규모만을 분석한 결과인데, 해외에 자선적 목적의 기부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2위 국가(영국)와 비교해 약 10배 이상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총 476억 달러). 다음으로 영국(약 50억 달러), 캐나다(약 29억 달러), 독일(약 28억 달러), 네덜란드(약 10 억 달러)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또는 민간 단체의 필란트로피 기부가 많은 나라들 대부분은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회원국이었으며,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DAC 회원국이 아닌 나라에서도 민간 단체를 통한 해외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개인 및 NPO/NGO 등 민간 단체를 통한 해외 민간 필란트로피 금액 규모는 상당히 큰데, 총 47개 나라 중 7번째로 많은 필란트로피 기부를 개인 및 민간 단체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 전체에서 제일 높은 수준으로, 전체 해외 원조 규모에서는 아시아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이지만 개인 및 민간 단체를 통한 해외 민간 필란트로피 금액은 일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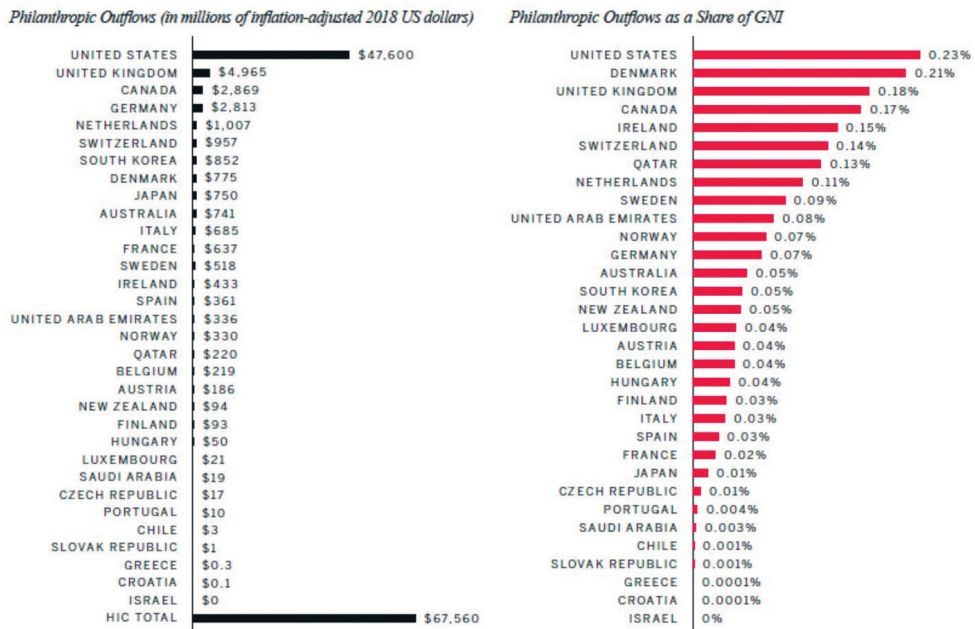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원을 받던 원조 대상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이다. 한국은 1953년 OECD 산하 DAC의 주요 원조 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국제 원조를 받아왔으나 1999년 국제 원조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다. 특히, 2010년 공적 원조를 지원하는 공여국으로 정식 포함된 이후 ODA 지원 규모를 계속적으로 늘려 왔다. [그림 3]의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은 ODA를 통한 해외 원조뿐만 아니라 NPO/NGO를 통한 민간 필란트로피 기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기준으로 민간의 필란트로피 규모가 여타 다른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3]에서는 국민 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이하 GNI) 대비 민간 필란트로피 규모를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 국민 총소득 중 0.2% 이상을 해외 기부에 제공하는 나라는

미국과 덴마크뿐이며, 영국, 캐나다, 스위스, 네덜란드 등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에서도 민간 필란트로피는 전체 국민 소득의 0.10% ~ 0.18% 사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은 전체 국민 소득의 0.05%를 해외 민간 필란트로피 기부에 제공하고 있는데, GNI 대비 해외 기부 규모는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 중동 국가(카타르, 0.13%; 아랍에미리트, 0.08%)를 제외하면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의 해외 민간 필란트로피 기부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 해외 원조 규모에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앞선 일본과 비교해 볼 때, GNI 대비 해외 민간 필란트로피 규모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0.05% vs. 0.01%).

[그림3] 해외 민간 필란트로피 규모 비교



Source: 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20 *Global Philanthropy Tracker*

Data: GNI from World Bank; Philanthropic outflows from various sources researched by the 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and shared by partner organizations for some economies. See Appendices for specific data sources for each economy inclu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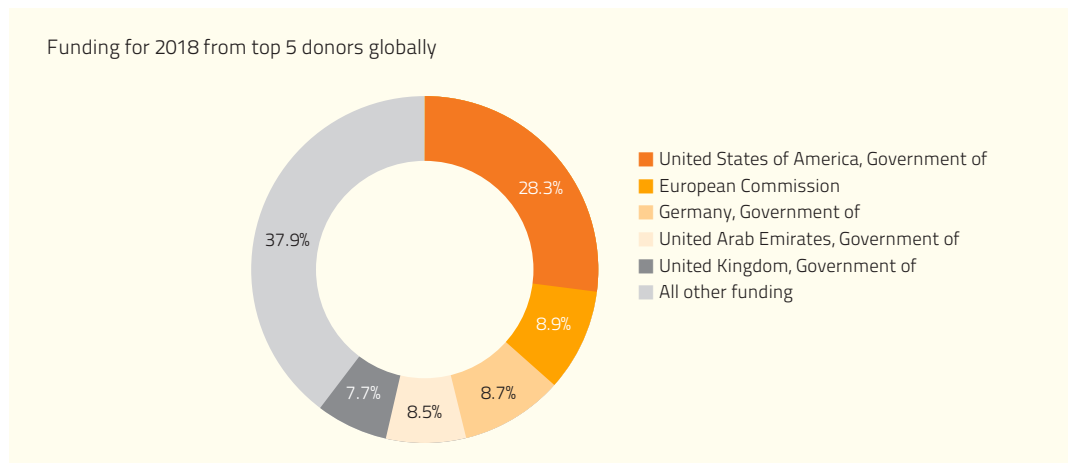
Note: HIC: High-income country

2. 국가 간 해외 기부 트렌드: Financial Tracking Service(FTS)

1) 해외 기부 트렌드: 공여국 및 수원국 현황

UN 산하 OCHA에서도 해외 기부에 관한 공여국 및 수혜국 현황을 FTS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본 장에서는 국가 간 해외 기부 추이를 FTS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018년도 FTS 글로벌 기부 현황 자료(FTS Global snapshot for 2018)에 따르면 FTS 조사에 참여한 나라의 2018년 총 해외 기부 금액은 254억 달러(US\$)로, 기부 공여국 및 기관(donors) 중 최상위 5개 국가는 미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독일, 아랍에미리트, 영국인데, 전체 해외 기부 금액의 62.1%를 이들 국가가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특히 미국의 해외 기부가 전체의 28.3%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유럽연합의 해외 기부는 8.9%, 독일 8.7%, 아랍에미리트 8.5%, 영국 7.7%를 차지하였다. 한편, 국제 사회가 요청한 기부 요청 대비 실제 기부 대응 비율(appeals/response plans)은 6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기부 규모에 관한 국가 간 순위는 GPT 연구 결과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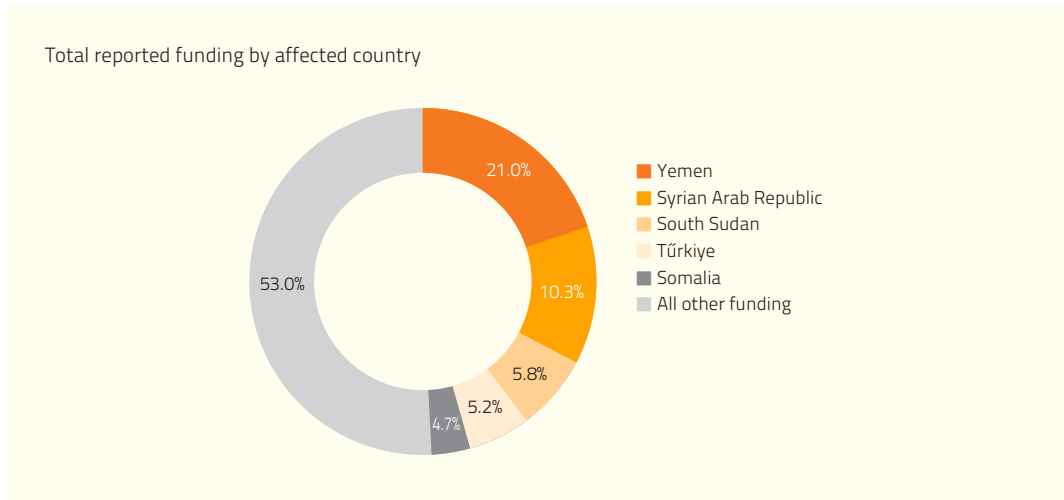
[그림4]. FTS 상위 5 기부 공여국 (2018년 기준)



출처 : FTS Global snapshot for 2018, <https://fts.unocha.org/global-funding/overview/2018>

[그림 5]는 해외 기부를 많이 받은 나라 순서를 나타내는 도표로, 2018년 FTS 데이터에 의하면 해외 기부금을 수령한 수원국가(recipients) 중 가장 많은 해외 기부를 받은 나라는 예멘(21%)이며, 이어 시리아(10.3%), 남수단(5.8%), 터키(5.2%), 소말리아(4.8%)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최상위 5개 국가가 전체 해외 기부금 중 45.9%의 기부금을 수령하였다.

[그림 5]. FTS 상위 5 기부 수원국가 (2018년 기준)



출처 : FTS Global snapshot for 2018, <https://fts.unocha.org/global-funding/overview/2018>

아래 [표 1]은 단일 국가 중 해외 기부금 수령 규모가 가장 큰 상위 10개 국가가 받은 기부 금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많은 기부금을 수령한 국가는 예멘으로 미국 달러 기준 총 490만 달러를 수령하였으며, 이어 시리아 210만 달러, 남수단 120만 달러, 터키 110만 달러, 소말리아 100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에 속한 나라가 총 4개국(예멘, 시리아, 터키, 레바논)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중동 혹은 서남아시아 국가이다. 아프리카 대륙에 속한 나라는 총 6개국(남수단, 소말리아, 콩고, 에티오피아, 수단, 나이지리아)이다.

[표 1]. 해외 기부금 수원국가 상위 10개

수원국	수령합계 (US\$)	대륙
예멘	4,885,290,574	아시아
시리아	2,084,182,299	아시아
남수단	1,230,893,697	아프리카
터키	1,144,653,481	아시아
소말리아	1,024,511,768	아프리카
콩고	916,834,830	아프리카
레바논	861,708,805	아시아
에티오피아	835,736,658	아프리카
수단	708,307,128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689,827,665	아프리카

** 본 표는 FTS의 자금 출처 자료에 기반해서 저자들이 직접 재구성한 것임

[표 2]는 공여국이 기부를 제공한 수원국을 분석한 결과이다. FTS 데이터 중 기부금을 수령한 수원국의 기부 출처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 127개 수원국(recipient countries)들이 총 32개의 공여국(donor countries)들로부터 기부금은 제공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국가로서는 미국이 가장 많은 국가인 81개국에 기부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어, 독일과 스웨덴이 각각 47개국, 스위스 42개국, 캐나다 41개국 등 북아메리카와 유럽 국가들이 단연 많은 수의 국가들에게 해외 기부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이 제일 많은 나라에 해외 기부를 제공하며(23개국), 사우디아라비아(20개국), 아랍에미리트(7개국) 등이 뒤를 이었다. 유럽은 독일과 스웨덴, 스위스(40개국)에 이어, 노르웨이(29개국), 영국(28개국) 순으로 나타났다. 북미에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많은 국가들에게 해외 기부금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다양한 나라에 해외 기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해외 기부 공여국과 수원국가 (국가별)

공여국	GPT 순위	대륙	수원국 수	수원국가
중국	19	아시아	1	파푸아뉴기니
일본	3	아시아	23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방글라데시,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차드, 콩고, 에리트레아, 케냐, 레바논, 모리타니아, 몽골, 미얀마, 나미비아, 팔레스타인, 르완다, 시에라리온, 시리아, 토고, 터키, 예멘, 짐바브웨
한국	13	아시아	3	카메룬, 에티오피아, 터키
쿠웨이트		아시아	5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터키, 예멘
파키스탄		아시아	1	
카타르	17	아시아	1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5	아시아	20	알바니아, 알제리, 베냉, 코모로, 지부티, 감비아, 가나, 그리스, 온두라스, 일본, 말레이시아, 몰디브,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세네갈, 스리랑카, 수단,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예멘
아랍에미리트	7	아시아	7	앤티가바부다, 감비아, 요르단, 페루, 통가, 예멘, 짐바브웨
브룬디		아프리카	1	
오스트리아	20	유럽	2	부르키나파소, 이집트
벨라루스		유럽	2	라트비아, 베트남
벨기에	18	유럽	8	부룬디, 카보베르데, 콩고, 리비아, 말라위, 팔레스타인, 르완다, 세네갈
덴마크	22	유럽	16	아프가니스탄, 인도, 이란, 케냐, 리비아, 말라위, 말리, 미얀마, 파키스탄, 페루, 남수단, 수단, 스위스, 시리아, 우간다,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유럽	1	
핀란드	26	유럽	2	이집트, 르완다
프랑스	6	유럽	18	알바니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차드, 지부티, 도미니카, 과테말라, 아이티, 북한, 라오스, 마다가스카르, 모리타니아, 니제르, 페루, 필리핀, 세네갈,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공여국	GPT 순위	대륙	수원국 수	수원국가
독일	2	유럽	47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방글라데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콜롬비아, 콩고,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란, 요르단, 케냐, 북한, 라오스, 레바논, 리비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미얀마, 니제르,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터키, 우간다, 우크라이나, 예멘, 짐바브웨
아일랜드	24	유럽	11	콜롬비아,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북한, 르완다,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이탈리아	11	유럽	18	알제리, 지부티, 이집트, 에리트레아, 과테말라, 기니비사우, 레바논, 리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니제르, 팔레스타인, 필리핀, 세네갈, 통가, 튀니지, 잠비아, 짐바브웨
리히텐슈타인		유럽	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그리스, 북한
룩셈부르크	35	유럽	7	알제리, 볼리비아, 과테말라, 인도, 이탈리아, 라오스, 세르비아
네덜란드	12	유럽	8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시리아, 우크라이나
노르웨이	21	유럽	28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앙골라, 캄보디아,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 콩고, 이집트, 에리트레아, 이란, 요르단, 북한, 라오스, 레바논, 말리,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우간다, 베네수엘라, 베트남
러시아		유럽	1	북한
스페인	9	유럽	3	알제리,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스웨덴	16	유럽	47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콜롬비아, 콩고,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이란, 케냐, 북한, 라오스, 라이베리아,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 멕시코, 미얀마, 니제르,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세네갈, 소말리아, 남수단, 스리랑카, 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예멘, 잠비아
스위스	10	유럽	42	알제리, 아르메니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에티오피아, 그리스, 아이티,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북한, 라오스, 마다가스카르, 말리, 멕시코, 몽골, 모로코, 미얀마,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페루, 세르비아, 스리랑카, 수단, 스위스, 타지키스탄, 태국, 튀니지, 터키, 우크라이나,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공여국	GPT 순위	대륙	수원국 수	수원국가
영국	4	유럽	27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요르단, 케냐, 레바논, 모리타니, 모잠비크, 니제르,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우크라이나, 예멘, 짐바브웨
캐나다	8	북미	41	알제리,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콜롬비아, 콩고,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피지, 가나, 아이티, 인도, 요르단, 케냐, 북한, 레바논, 리비아,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르완다, 세네갈,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태국, 튀니지, 우간다, 우크라이나
미국	1	북미	81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콜롬비아, 콩고, 코스타리카, 쿠라사오, 지부티,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조지아,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요르단, 케냐, 북한, 라오스, 레바논,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몽골, 모잠비크, 미얀마, 니제르,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팔라우,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르완다, 세네갈, 솔로몬제도, 소말리아, 남수단, 스리랑카, 수단, 시리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통티모르,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터키, 우간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호주	14	오세아니아	13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요르단, 라오스, 레바논, 미얀마,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사모아, 태국, 통가, 바누아투
뉴질랜드	29	오세아니아	7	피지,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사모아, 통가, 바누아투

* 부룬디(\$1,476,285, 2.1%), 에스토니아(\$23,229, 100%), 파키스탄(\$15,841,623, 12.9%)

[표 3]은 해외 기부 공여국과 수원국의 대륙별 분포를 요약하였다. 해외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나라가 가장 많은 대륙은 유럽으로 총 19개 나라이며, 다음으로 아시아 국가(8개국), 북미(2개국), 오세아니아(2개국), 아프리카(1개국) 순으로 나타났다. 남미 국가들은 해외 기부를 제공하는 나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 속한 총 19개 국가들은 전 세계에 85개 수원국(291건, 공여국-수원국)에 해외 기부금을 제공하였으며, 북미 두 나라(미국과 캐나다)는 총 89개국(122건)에게 해외 기부를 제공하였다. 아시아에 속한 총 8개 나라에서도 총 51개국(61건)에게 해외 기부를 제공하였으며, 오세아니아에 속한 두 나라(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총 15개국(20건)에 기부를 제공하였다.

유럽 국가가 제공한 기부 건수의 약 49%(143건)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고, 29%(85건)가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럽 국가들은 다른 유럽 국가에도 기부금을 제공하였는데 6.9%(20건)였다.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아, 해외 기부 건수 중 약 50%(30건)를 차지했으며, 37%(23건)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지원이었다. 북미 국가들도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아 약 45%(55건)를 차지했다. 북미 국가의 해외 기부 중 약 26%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었으며, 북미 국가(9.8%), 남미 국가(9%)들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아니아 국가에서는 오직 아시아 국가(55%)와 오세아니아 국가(45%)에 대해서만 해외 기부를 제공한 것이 특이한 점이다.

[표 3]에서와 같이 오세아니아 국가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특정 대륙의 국가가 해당 대륙의 국가의 이슈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기보다는 다양한 대륙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해외 기부에 관한 일부 시각 중 특정 국가의 해외 기부가 특정 대륙에 있는 나라에만 기부가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각국의 해외 기부가 어느 한 대륙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대륙 및 나라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주요 해외 기부 건수 및 국가 수 (수원국과 공여국; 대륙별)

대륙	공여국 수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합계
아시아	8	23 (16)	30 (27)	2 (2)	3 (3)	1 (1)	2 (2)	61 (51)
아프리카	1	0	1	0	0	0	0	1
유럽	19	85 (23)	143 (36)	20 (8)	21 (9)	18 (5)	4 (4)	291 (85)
북미	2	32 (24)	55 (35)	3 (2)	12 (11)	11 (10)	9 (7)	122 (89)
남미	0							0
오세아니아	2	11 (10)	0	0	0	0	9 (5)	20 (15)

*위 표는 공여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수원국가는 중복 카운트 되었음.

**수원국가 (총 127 국가) 대륙 분포: Africa 47, Asia 31, Europe 12, North America 17, South America 11, Oceania 9

자료는 기부 건수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수원국 국가 수

2) 해외 기부에 대한 기부 주체별 현황 분석- FTS 2018 데이터 기준

FTS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외 기부를 누가 제공하였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각국 중앙 정부 주체가 81.3%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는 정부 간 주체(intergovernmental)가 12.9%를 차지한다. 정부 간 주체의 예로는 유럽연합 집행 기구, 개발 은행(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등) 등이 있다. 다음으로는 UN 기구들이며 전체 기부액의 4.1%를 차지한다. 한편 민간 재단 및 개인들의 기부액 또한 2억 9천 4백만 달러(US\$)로 전체의 1.2%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 재단은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포드 재단(Ford Foundation) 등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립 재단에서부터, 유니세프 국가위원회, 도이체 은행(Deutsche Bank AG), 이케아 재단(IKEA Foundation) 등 다양한 유형의 민간 주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정부 조직 이외에도 민간 조직에서도 해외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FTS 해외 기부액의 기부 유형 2018년 자료

기부자 조직유형	조직 하부 유형	기부액수 US\$	기부선언액 US\$
정부	중앙정부	\$20,660,059,491	\$144,550,015
정부간 조직	해당없음	\$3,267,109,348	\$1,508,311
NGO	국제	\$11,793,508	\$144,635
NGO	개별국가	\$4,673,007	\$0
특정되지 않음	해당없음	\$97,534,239	\$0
기타	해당없음	\$8,544,580	\$1,976,292
통합 기금	글로벌	\$3,353,433	\$0
통합기금	특정국가 기반	\$6,038,497	\$0
민간기관/재단	국제기구/재단/개인	\$199,552,266	\$282,800
민간기관/재단	지방/중앙조직/재단/개인	\$94,883,129	\$0
적십자	국가조직	\$100,000	\$0
적십자	국제조직	\$62,902	\$0
UN 기관	해당없음	\$1,047,521,661	\$0

[출처] <https://fts.unocha.org/global-funding/donor-types/2018>

인도적 지원액을 중심으로 본 2018년 해외 기부 상위 주체/기관을 살펴보면, 미국 정부가 71억 9천 US\$로 전세계 기부액의 28.3%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독일, 아랍에미리트, 영국 정부 순이다. FTS의 기부금 산출 규모는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각국의 정부 및 NGO/NPO들이 자발적으로 보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하므로,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 증진을 목표로 OECD에서 제공하는 자금이나 기술 협력을 위한 지원(일반적으로 ODA로 일컬어짐) 규모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의 사업 성격에 따라서는 일부 ODA에 지원한 정부 지원금이 FTS 데이터에 중복 집계될 수 있다.

[표 5] 2018년 해외 기부금 상위 20개 주체/기관

기부자	자금액수 (US\$)	글로벌 총액 중 비중 (%)
미국 정부	\$7,196,510,189	28.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261,572,846	8.9%
독일 정부	\$2,207,901,353	8.7%
아랍에미리트 정부	\$2,168,953,900	8.5%
영국 정부	\$1,952,487,809	7.7%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1,642,852,990	6.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터키 소재 난민을 위한 EU 시설	\$899,835,781	3.5%
캐나다 정부	\$679,537,144	2.7%
스웨덴 정부	\$670,950,398	2.6%
노르웨이 정부	\$660,095,972	2.6%
쿠웨이트 정부	\$478,342,380	1.9%
일본 정부	\$474,160,244	1.9%
스위스 정부	\$435,589,993	1.7%
덴마크 정부	\$379,947,813	1.5%
네덜란드 정부	\$311,019,619	1.2%
벨기에 정부	\$251,092,28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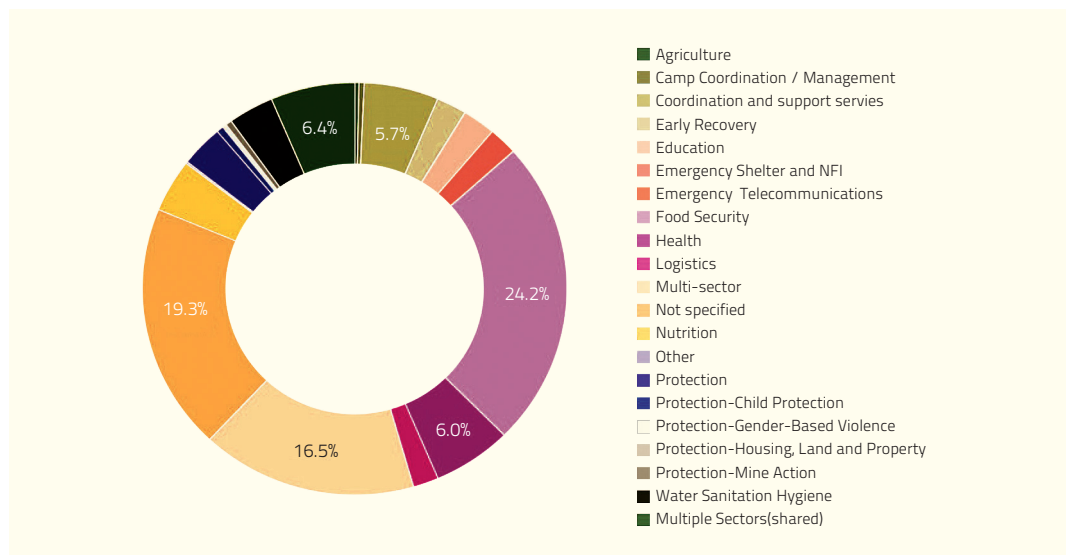
호주 정부	\$247,554,523	1.0%
이탈리아 정부	\$183,333,617	0.7%
프랑스 정부	\$135,559,834	0.5%
아일랜드 정부	\$133,597,716	0.5%

[출처] <https://fts.unocha.org/global-funding/overview/2018>

< FTS 기부금 출처 > 2018년도 "Funding by Source" 자료 기준으로, 총 64개 공여국가 및 해외 기구가 참여하였으며, 그 중에서 32개 공여국가와 그 외 32개 해외 기구 등이 기부하였다.

아래 [그림 6]은 2018년 해외 기부액이 실제로 어떤 영역에서 쓰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FTS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식량 안보에 대한 지원이 24.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영양 지원(19.3%), 복합 영역(16.5%), 농업 분야(6.4%), 보건(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기부금의 19.3%는 기부 분야를 특정하기 어려웠으며, 아동 보호 및 젠더 관련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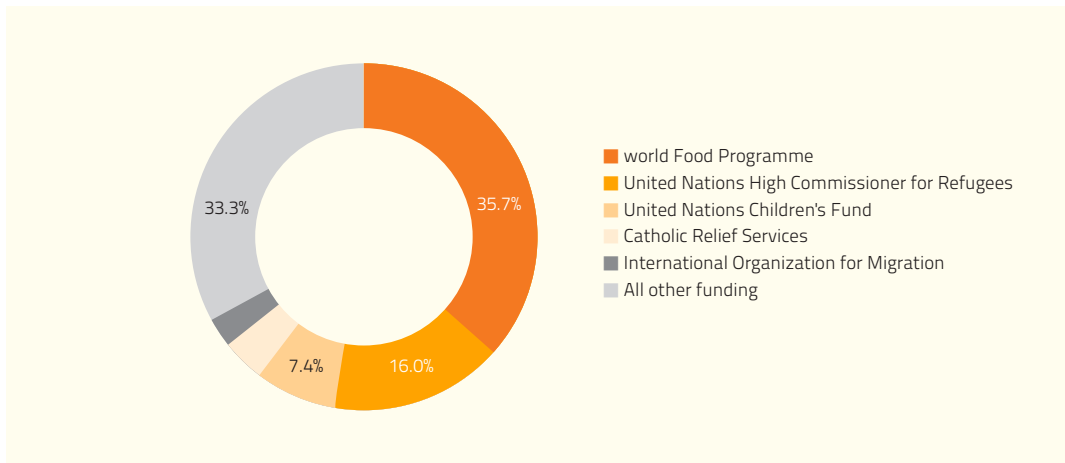
[그림 6] 해외 기부액의 사용 영역 - 2018년



[자료 출처] <https://fts.unocha.org/global-funding/overview/2018>

[그림 7]에서는 한 국가의 해외 기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미국 정부의 해외 기부는 주로 UN 비정부조직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지원이 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UN 난민고등판무관(16.0%), 유니세프(7.4%) 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다만 본 집계에서 유의할 점은 미국 정부가 제공한 기부금을 수령한 UN 산하 기관들은 일차 수령 기관들이며, 이들 수령 기구들은 이후 실제 집행 단체나 기구를 통해 기부금을 재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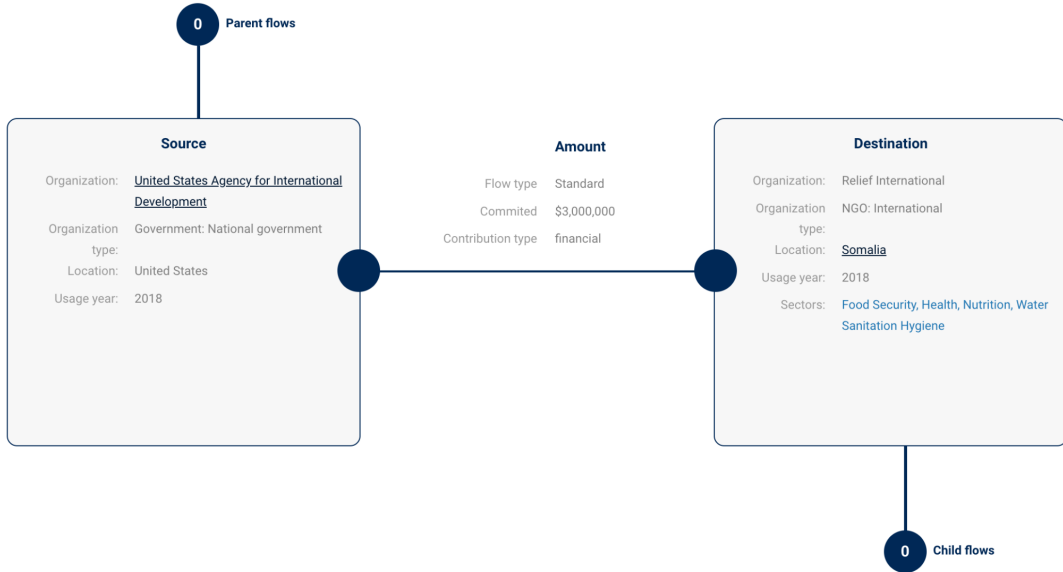
[그림 7] 미국 정부의 기부금 - 수령 기관별 집계



[자료 출처] <https://fts.unocha.org/donors/2933/summary/2018>

아래 [그림 8]은 인도적 지원 자금의 흐름을 미국 케이스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 정부의 해외 원조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인 미국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에서 기부금을 제공하였다. 기금 3백만 달러(US\$)는 구호 담당 국제 NGO인 릴리프 인터내셔널(Relief International)의 소말리아 지부에 제공되었으며, 본 구호 금액은 구체적으로는 식량 안보, 보건, 영양, 물 위생 개선 등의 사업 분야에 쓰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8] 미국 국제 개발 협력 기구의 인도적 지원 자금의 흐름도



[출처] <https://fts.unocha.org/flows/193262?destination=/donors/8492/flows/2018>

3. 해외 기부 다양성 지수 산출 및 분석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GPT 데이터와 FTS 데이터를 결합하여 해외 기부의 탈집중성 및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해외 기부 다양성 지수(GPDI, Global Philanthropy Diversification Index; 이하 GPDI)를 개발하였다. 아래 [표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GPDI는 필란트로피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해당 공여국이 몇 개의 국가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국가 분산도)와 수원국이 몇 개 대륙에 분산되어 있는지(대륙 분산도)를 총 해외 기부 금액(정량 가중치)을 포함한 경우(“GPDI-I”)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GPDI-II”)로 구별하여 보여준다. 정량 가중치를 포함한 지표(GPDI-I)와 포함하지 않은 지표(GPDI-II)를 구별하여 분석한 이유는 전체 해외 기부 규모가 크지만 특정 국가에 집중적으로 기부를 제공한 국가와 상대적으로 전체 해외 기부 규모는 작으나 다양한 나라에 해외 기부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다양성 지수 차이를 구별해 보기 위함이다.

첫째, GPDI-I은 전체 해외 기부 규모를 포함하여 수원국가의 다양성, 대륙 간 분산도를 측정한다. 각 국가의 해외 기부 규모가 클수록, 지원한 국가 수가 많을수록, GPDI-I 지수가 높게 나오도록 설계되었다. 동일한 수의 수원국에 지원을 하는 경우, 6개 대륙 가운데 더 많은 수의 대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GPDI-I이 높게 산정된다. 둘째, GPDI-II는 해외 기부의 전체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수원국 수와 수원 대륙 수를 고려하여 다양성 지표를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는 GPDI-I과 GPDI-II가 0에 가까울수록 다양성이 낮고, 1에 가까울수록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6] GPDI 측정 수식

$$\begin{aligned}
 \text{GPDI-I} &= (\text{정량가중치}) \times (\text{국가 간 분산도}) \times (\text{대륙 간 분산도}) \\
 &= \frac{1}{\text{GPT 해외 기부 총액 순위}} \times \left(1 - \frac{1}{\text{수원국 수}}\right) \times \left(1 - \frac{1}{\text{수원대륙 수}}\right) \\
 \text{GPDI-II} &= (\text{국가 간 분산도}) \times (\text{대륙 간 분산도}) \\
 &= \left(1 - \frac{1}{\text{수원국 수}}\right) \times \left(1 - \frac{1}{\text{수원대륙 수}}\right)
 \end{aligned}$$

예) 글로벌 필란트로피의 다양성 지수 I 의 예

- 미국의 경우 : $(1/1) * (1-1/81) * (1-1/6) = 0.823$
- 일본의 경우 : $(1/3) * (1-1/23) * (1-1/2) = 0.1594$
- 한국의 경우 : $(1/13) * (1-1/3) * (1-1/2) = 0.0256$

글로벌 필란트로피의 다양성 지수 II 의 예

- 미국의 경우 : $(1-1/81) * (1-1/6) = 0.8230$
- 일본의 경우 : $(1-1/23) * (1-1/2) = 0.4783$
- 한국의 경우 : $(1-1/3) * (1-1/2) = 0.3333$

아래 [표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해외 총 기부 금액을 포함한 GPDI-I 모델에 의한 해외 기부 다양성 지표 분석 결과 총 기부 금액이 높은 나라가 다양성 지표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금액 순위는 미국(1위), 독일(2위), 일본(3위), 영국(4위), 사우디아라비아(5위), 프랑스 (6위), 아랍에미레이트 (7위), 캐나다 (8위)순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기부 금액을 포함한 다양성 측정 지표에서는 미국이 0.823으로 가장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위 국가인 독일 0.3915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인다. 지리적 다양성 측면에서 미국과 독일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다양성을 보인다. GPDI-I 모델에 따라 산출된 다양성 지표는, 기부 금액 정량 가중치가 수식에 포함되어 있어 해외 기부 금액이 많은 나라와 적은 나라의 절대 지원 규모의 양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해외 기부의 정량 지표가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다양성 지표 산출에 고

러한 다른 기준들의 영향이 제약되는 한계를 드러낸다. 해외 기부 총액을 고려하지 않고 해외 기부의 다양성 지표를 산출한 결과(GPDI-II), 미국은 GPDI-II가 0.8230으로 해외 기부 규모 순위와 마찬가지로 1위였으나, 다른 나라의 다양성 지표는 GPDI-I 모델로 산출한 결과와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미국 다음으로 스웨덴이 0.8156으로 2위를 차지했는데, 전체 해외 기부 규모에서는 16위(GPT 순위), 기부 금액을 제외한 다양성 지표에서는 2위를 차지하였다. 스웨덴 다음으로 스위스(0.08135), 캐나다(0.8130), 프랑스(0.7870)의 순으로 총 해외 기부 금액에서는 10위권 안팎에 있던 나라들이 다양성 지수에서는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해외 기부 총액에서 순위가 높은 나라 중 다양성 지표에서는 낮은 순위를 보이는 국가들도 있었는데, 일본과 스페인이 이에 속한다. 일본은 전체 기부 금액 순위에서는 3위를 차지하였으나, 다양성 지표 (GPDI-II)에서는 0.4783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스페인은 9번째로 많은 금액을 해외에 기부하였으나, 다양성 지표에서는 0.444로 하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7] 글로벌 필란트로피 다양성 지수(GPDI)

공여국	GPT 순위	수원국 수	수원국 대륙 수	GPDI-I	GPDI-II
미국	1	81	6	0.8230	0.8230
스웨덴	16	47	6	0.0510	0.8156
스위스	10	42	6	0.0813	0.8135
캐나다	8	41	6	0.1016	0.8130
프랑스	6	18	6	0.1312	0.7870
독일	2	47	5	0.3915	0.7830
노르웨이	21	28	4	0.0344	0.7232
영국	4	27	4	0.1806	0.7222
사우디아라비아	5	20	4	0.1425	0.7125
이탈리아	11	18	4	0.0644	0.7083

덴마크	22	16	4	0.0320	0.7031
룩셈부르크	35	7	5	0.0196	0.6857
아랍에미리트	7	7	5	0.0980	0.6857
아일랜드	24	11	4	0.0284	0.6818
네덜란드	12	8	3	0.0486	0.5833
일본	3	23	2	0.1594	0.4783
호주	14	13	2	0.0330	0.4615
스페인	9	3	3	0.0494	0.4444
벨기에	18	8	2	0.0243	0.4375
뉴질랜드	29	7	2	0.0148	0.4286
한국	13	3	2	0.0256	0.3333
오스트리아	20	2	1	0.0000	0.0000
중국	19	1	1	0.0000	0.0000
핀란드	26	2	1	0.0000	0.0000
카타르	17	1	1	0.0000	0.0000

GPDI는 한 국가가 얼마나 다양한 분야 및 국가에 인도적/필란트로피적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GPT 데이터와 FTS 데이터를 단순히 집계해 결합해 보여주는 이상의 함의를 지닌다. 한편 자료 수집의 대표성 및 포괄성의 제약으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가 각국의 해외 필란트로피의 다양성 수치를 통계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결과로서 인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하며, 추가적인 연구 및 근거 자료가 반드시 보충되어야 한다.

IV. 결론

본 연구는 2020 GPT 연구와 UN OCHA의 FTS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국의 해외 기부 규모와 공여국 및 수원국을 매칭해 봄으로써 국제 해외 기부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국가 단위/국가 행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부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 복합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해외 기부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인 수준에서 해외 기부 경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PT에서 PCI 및 민간 필란트로피까지 포함한 해외 기부 규모를, FTS에서 정부 조직, 비정부기구, UN 기구 등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였고, 수원국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해외 기부가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2020년 GPT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포함된 총 47개 국가의 해외 원조 총액은 약 913조 1천억 원으로, 이 중 송금은 57.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ODA(21%)의 2.7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뿐만 아니라 PCI 금액(13.3%)과 해외 민간 필란트로피(8.2%)를 합하면 21.5%에 달해, 이 또한 ODA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결과는 각국의 해외 기부 규모를 파악함에 있어서 기존의 국가 기구 중심의 해외 원조액 집계가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GPT 자료는 해외 기부 규모 파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구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민간의 필란트로피적 해외 기부 규모를 보면 미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2위 국가(영국)와 비교해 약 10배 이상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해외 원조 규모 상위 20개 국가는 모두 경제적으로 상위 그룹에 속한 나라들이 차지하였으나, 경제규모 순위 중간 그룹인 터키와 중국도 상위 20개 국가에 포함되었다. 특히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제일 많은 규모의 해외 기부가 이루어졌으며,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해외 기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한국은 ODA를 통한 해외 원조뿐만 아니라 NPO/NGO를 통한 민간 필란트로피 기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FTS 인도적 지원액을 중심으로 분석할 경우, 미국이 가장 많은 국가에 기부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은 총 81개국에 기부금을 제공했고, 독일과 스웨덴 47개국, 스위스 42개국, 캐나다 41개국 등 북아메리카와 유럽 국가들이 단연 많은 수의 국가들에게 해외 기부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세아니아 대륙에 위치한 국가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특정 대륙에 위

치한 국가가 같은 대륙에 위치한 국가의 이슈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기보다는 다양한 대륙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나라가 가장 많은 대륙은 유럽으로 총 19개 나라에서 해외 기부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아시아 국가(8개국), 북미(2개국), 오세아니아(2개국), 아프리카(1개국) 순으로 나타났다. 유럽 국가가 제공한 기부 건수의 약 49%(143건)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29%(85건)가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아시아 국가의 해외 기부 건수 중 약 50%(30건)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이었으며, 37%(23건) 아시아 국가에 대한 지원이었다.

FTS 인도적 지원액을 중심으로 본 2018년 해외 기부 상위 주체/기관을 살펴보면, 미국 정부가 7조 1,900억 US\$로 전세계 기부액의 28.3%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유럽연합 집행기구, 독일, 아랍에미리트, 영국 순이다. 인도적 지원 사용 영역을 보면 식량 안보가 24.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영양 지원(19.3%), 복합 영역(16.5%), 보건(6.0%)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GPT 데이터와 FTS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해외 기부 다양성을 측정하는 해외기부 다양성 지수(GPDI)를 개발하였다. GPDI는 해외 기부가 얼마나 다양한 분야 및 국가에 지원되고 있는지를 산출하는 지표로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전체 해외 기부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다양성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 국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과 스위스가 이에 포함된다. 반대로 전체 기부 금액은 많으나 다양성에서는 약세를 보이는 나라들도 있었는데, 일본과 스페인이 이에 속한다.

각국의 해외 기부 다양성 지표를 개발하는 데 GPT데이터와 FTS 데이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GPT 데이터는 각국의 해외 기부 규모를 측정하는 데 있어 일부 누락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특정 기관에서 관련 자료들을 조정/총괄하는 방식으로 자료 집계/보고를 하기에, 전체 해외 기부 전체 규모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GPT 데이터는 해외 기부에 관한 각 국가별 규모를 비교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 한편 FTS 데이터는 각국이 기부 및 지원을 한 수원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여국의 기부 및 필란트로피가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는지 또는 특정 국가나 대륙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간접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FTS 데이터가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재난/위기 관련 지원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여국의 관심 및 집중/분산의 정도를 나타내는 간접 지표로서 역할을 하는 데에는 저해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GPT와 FTS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발된 GPDI 모델(GPDI-I, GPDI-II)은 해외 기부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지표 산출 결과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추가적인 근거 자료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V.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 해외 기부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첫째, 국제 해외 기부 트렌드의 포괄성, 보편성,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시도한 GPT 보고서와 FTS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본 연구는 GPT 보고서에 의한 연구가 제공하는 전체 해외 기부 규모를 비교하고, FTS 데이터가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의 다양성을 추가해 분석함으로써 각 데이터의 특성과 강점을 결합해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기존 정부 중심의 해외 기부를 파악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민간 주체, 시민사회 주체 등까지 포함한 규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각국의 해외 기부가 지리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집중되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특정 편중 없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는 해외기부 다양성 지수(GPDI)를 개발해 제안한다. 본 지표는 해외 기부를 진행하는 현장의 담당자들은 물론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각국 국가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지침 및 함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의 해외 기부 규모 측정에 있어서 기초 데이터의 부실로 인한 정확한 해외 기부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KCOC 및 KOICA, 국제청 등 해외 기부에 관한 중요 기관들이 한국의 해외 기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초 자료 조사에 있어서 국가적 기준과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기관들마다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기초 자료를 생산해 내고 있다. 또한 국제 비교를 위한 자료 수집

기준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국제 비교에 한국 자료를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국제 사회에서 각국의 경제적 기여 이외에 다양한 사회적 기여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에 한국의 관심 부재를 들 수 있다. FTS 데이터는 각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데이터인데, 각국의 다양한 기부 지원 주체들이 UN 산하 OCHA에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체 인도주의적 기부가 집계된다. 따라서 FTS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국가에서는 인도주의적 해외 기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FTS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실제 해외 재난 기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도주의적 해외 기부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FTS 데이터에 의하면 한국은 2018년에 3개 국가에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관한 국내에서 발간된 보고서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집계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국제 비교 연구에서 과소평가가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제 비교 연구를 위한 다양한 기초 자료 조사에 한국이 체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UN의 다양한 기관들에서 실시하는 국제 비교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본의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한국은 정부 및 민간 영역에서 사회적 기여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채널 및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에 비해서 국제 사회 비교 연구 및 지표 개발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서 보듯 한국 정부 및 비영리단체들이 다양한 지표를 생산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 제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제 기부 비교 연구 과정에서 한국의 기여에 대한 과소평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참고문헌

- 아름다운재단 (2020, October). [글로벌 리포트- Global Philanthropy Tracker 2020]1. 한국의 해외 기부 현황.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blog/2020/10/08/%ED%95%9C%EA%B5%AD%EC%9D%98-%ED%95%B4%EC%99%B8-%EA%B8%B0%EB%B6%80-%ED%98%84%ED%99%A9-philanthropic-donations-outside-south-korea/>
- Kim, S. J. & Beautiful Foundation (2020, October). Regional report: South Korea. Global Philanthropy Tracker. <https://scholarworks.iupui.edu/bitstream/handle/1805/24846/south-korea-report21.pdf>
-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20). Global philanthropy tracker. <https://scholarworks.iupui.edu/handle/1805/24144>
- UN OCHA (2018). Total reported funding 2018: Global snapshot for 2018. <https://fts.unocha.org/global-funding/overview/2018>
- UN OCHA (2018). Total reported funding 2018: Totals by donor type. <https://fts.unocha.org/global-funding/donor-types/2018>
- UN OCHA (2018). United States of America, Government of 2018: Government donor snapshot for 2018. <https://fts.unocha.org/donors/2933/summary/2018>
- UN OCHA (n.d.). Details for flow ID#193252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018). <https://fts.unocha.org/flows/193262?destination=/donors/8492/flows/2018>
- UN OCHA (n.d.). What is the Financial Tracking Service (FTS) and who to use it? <https://fts.unocha.org/content/what-financial-tracking-service-fts-and-how-use-it>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22년 기획연구 보고서

발행일	2022년 12월 21일
발행처	아름다운북
발행인	한찬희
지은이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획및편집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주소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옥인동)
전화	(02)766-1004
전송	(02)730-1243
웹사이트	www.beautifulfund.org
디자인및인쇄	해든디앤피(02-2266-6372)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22년 기획연구 보고서



비매품/무료



ISBN 978-89-93842-55-5 (세트)